

경기화성

부모애담은산사랏



한국음악협회 화성시지부



화성시

한글서체

한글서체





The Traditional Rhythms of Small Gong
in Hwaseong city,
Gyeonggi Province, Korea

발간사 / 한국국악협회 화성지부장

화성가락을 즐기는 우리가 되길...

화성 각 지역에 산재되어 구전으로만 전수해 오던 경기전통 화성두레 기본가락을 지난 2년에 걸쳐 채록하여 금번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화성만의 독특한 가락을 조사 발굴하여 조상들의 두레정신을 선양하고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악협회에서는 화성가락을 지키고 이를 화성 전역에 전수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화성두레단도 많이 늘었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구어 낸 쾌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자칫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질 뻔 했습니다. 화성가락은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락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화성가락을 제대로 정립하여 경기가락의 정체성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전통 화성두레 채록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봉담 역말의 강은중, 이학재, 이기봉, 정남면 임영의, 향남 백토리의 박희식, 최중근, 마도 고모리의 김정수, 매송 원리의 이창현, 송라리의 이필강, 장안 석포의 차진남, 안영돈, 차기량, 서신 광평리의 한상일, 한상구, 우정 송재천, 송현택, 송재윤, 동탄의 장순복, 양감 용소리의 이문우, 송산 천동리의 이창학, 비봉 정희창, 신외동 안병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채록하여 누구나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정간보, 삼선보로 표준교본을 만들어 주신 이소라 (민족음악연구소 대표)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세기가 '이국적 문화'에 호기심을 갖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확실한 가치'가 느껴지는 문화에 관심을 갖는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남들과 얼마나 다른 색깔의 문화를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화성두레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이 담긴 음악이며 감성에 호소력을 가질만한 '이야기'가 담긴 문화입니다. 화성이 문화예술도시가 되려면 화성문화의 진가를 시민부터가 느끼고 즐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치를 모르면서 남들에게 즐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 전통 화성두레 쇠가락' 발간을 통하여 앞으로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화성가락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흥겨운 우리 가락을 통하여 화성이 21세기 명품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악 계승, 발전은 물론 화성의소리 구현에 앞장 서 주시고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화성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진 규 (한국국악협회 화성지부장)

축하의 글 / 화성시장

세계에 감동 주는 독특한 우리 화성가락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전통 문화를 지키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화성가락을 전수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진규 지부장님의 열의와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그 결실로 맺어진 '경기 전통 화성두레 쇠가락'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두레의 핵심은 가락에 있으며, 특히 쇠가락이 발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성가락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부 어르신들에게 간간이 이어져 내려올 뿐 거의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화성시 국악협회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화성두레단, 청소년 두레단이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좌도가락, 우도가락이 아닌 우리 고유의 가락인 화성가락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 보면 그 나라의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전통 문화가 존재하고 또한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발전시키는 모습에 항상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뿌리이며, 살아온 이야기 등이 전통 문화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가락도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가락으로 발전하며 우리의 삶과 생활이 고스란히 배어 있으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흥과 신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통문화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전승, 발전시켜나가야 할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자칫 잊혀질 뻔한 화성가락이 오늘 이렇게 디딤돌이 마련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도 크나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아이템으로 발전하리라 믿으며,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만큼 앞으로도 화성가락, 나아가 우리시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국악협회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국악협회 화성시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의 창조적 지혜와 슬기로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 시키는 화성의 소리찾기 채보가 발간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성가락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화성두레 채록을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차진규 한국국악협회 화성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구전을 전해주신 어른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화성은 충·효·예의 반듯한 정신문화가 깃든 고장으로 유적지마다 고결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사장되지 않도록 발자취를 찾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함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일 것입니다. 전통문화는 국가 발전의 가장 소중한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력의 원천이며, 건전하게 인간 정신을 정화시키는 문화의 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에 발간되는 화성의 소리 찾기 채보 발간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38만 화성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위대한 문화 유산을 남겨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한국국악협회 화성시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글 / 화성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다시 들을 수 있고 젖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어릴 적 모내기 때나 김매기를 할 때면 언제나 어김없이 찾아와
 한 없이 온 들판을 울리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속에 마구 쏟고 싶은 뜨겁고 절절한 소리였습니다
 '한' 과 '정' 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신명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내 어릴 적을 아름답게 했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두레는 농사꾼들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며
 품앗이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흥건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들의 영혼의 안식처이며
 메마른 가슴속에 윤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너무 화려 한 것, 값싸고 얕음의 현실 속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사라져가는 구전되어오는 화성의 독특한 향기의 소리를 찾아
 한 권의 책으로 묶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들을 수 있고 젖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예술은 영원한 것을 향한 도전이며 인간의 향기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공감이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 주는 고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술인들의 창의력과 창조적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화성은 꿈과 희망과 저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로 힘찬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으로
 화성가락의 정체성을 찾는 '경기화성 전통두레쇠가락' 을 발간한
 한국 국악협회 화성지부 차진규 지부장과 회원 모두에게
 뜨거운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높은 뜻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성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박 무 웅

축하의 글 / 화성문화원 원장

신명나게 어울리는 우리가락 우리화성의 소리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가락은 그 속에 애절한 생활의 절규와 사연들이 담겨져 있어 언제 어디서 듣더라도 신명이 납니다.

서양의 음악과 현대 음악의 범람 속에서도, 곳곳이 이 민족과 함께 명맥을 이어 온 전통 가락은 기쁘고, 슬프고, 경사스러운 일 등 모든 애경사를 비롯하여 농사와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풍년을 기원하고 함께 위로하고 춤추며 어울리던 유일한 위안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신명나게 춤추고 흥겹게 한바탕 어울리면서 모든 시름과 한(恨)과 괴로움을 가락에 실어 다 날려 보내고 다시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락이며 소리였습니다. 모 심는 소리며, 논 맴소리, 소부림말, 동요, 놀이요, 집터다짐, 회다지 소리, 무가 등 많은 노동요와 가락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발굴, 보존, 전수, 계승하는 작업을 다소 게을리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 국악협회 화성지부에서 '경기화성 전통두레쇠가락' 을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가치 있는 작업을 서둘러 해주신 '한국국악협회 화성지부' 차진규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를 계기로 해서 화성시의 전통 민요와 가락들을 발굴하고 보존, 계승하는 사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척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악협회 화성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성문화원 원장 기 봉 서



차례

발간사	3
축하의 글	5
차례	9
머리글	10
일러두기	12
제 I 장. 화성 두레의 구성과 특징	13
제 II 장. 화성 두레의 기본 쇠가락과 고사덕담	19
1. 봉담읍 강은중의 쇠가락	25
2. 이학재의 소고 춤사위	58
3. 향남읍 최중근의 쇠가락	64
4. 마도면 고모리 김경수의 쇠가락	80
5. 매송면 원리 이창현의 쇠가락	92
6. 매송면 송라리 이필강의 쇠가락	98
7. 장안면 석포리 차진남의 쇠가락	105
8. 서신면 광평리 한상일의 쇠가락	114
9. 우정면 호곡리 송재천의 쇠가락	125
10. 동탄면 장순복의 쇠가락	135
11. 양감면 용소리 이문우의 쇠가락	144
12. 송산면 천등리 이창학의 쇠가락	148
13. 비봉면 정희창과 서신면 광평리 한상구의 쇠가락	153
14. 신외동 안병선의 쇠가락	154
15. 정남면 쾌랑리 차진규의 쇠가락 교습	168
화 보	207

책 머리에

이 소 라 (민족음악연구소 대표, 문화재 전문위원)

농악의 유래에 대하여는 풍작과 안택을 기원하는 제의설(祭儀說), 진법에 의한 훈련이라는 군악설, 사원이나 탐걸립 등을 위해 필요했다는 불교관계설, 두레농사에서 유래한다는 두레노동설 등이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당산제와 집들이 농악에서는 풍농·풍어·안택 축원적 요소가 여실히 들어나며, 판제에서의 진(陣)풀이와 영기(令旗), 전립(戰笠), 북(鼓)의 사용 등은 군악적 요소를 나타낸다. 불교관계적 요소로는 고깔, 삼색띠, 잡색인 조리중과 새미, 무동들의 나비춤과 일부지역 농악에 사용되는 제금(바라)을 들 수 있다. 농기(농자전하지대본)는 두레작업의 유습이며, 農事模擬 동작 등은 농악의 변천과정 중에 삽입된 두레노동적 요소라 하겠다.

화성지방에서는 당산제에서 농악을 울리지 않았던 곳이 적지 않으며, 추석과 설날, 줄다리기, 호미걸이 및 두레논매기 때에 농악을 놀았다. 화성의 토민들은 '농악' 놀이를 '두레' 논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성두레의 유래는 두레논매기에 치중된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발굴된 재배벼의 유적지로는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와 고양시 일산지역,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하남시 미사리와 하남시 광암동 등이 있다. 이들은 중기 신석기시대인 기원전 3000년전후부터 무문토기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000년의 시기에 걸쳐있다. 그밖에 한반도에서 발굴된 법씨 유적지로는 평양의 남경(南京), 강화군의 우도(牛島), 안면도의 고남리, 부여의 송국리, 서산의 휴암리, 충주시 조동리,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의 수양개, 이리의 부송동, 부안의 소산리, 여천의 월내동, 승주의 대곡리, 거창의 산포리, 울주의 검단리, 합천의 봉계리, 산청의 강누리, 진주의 대평리 및 김해, 창원 등지이다. 이들 유적은 무문토기시대 전기로 볼 수 있는 B.C 8세기 전후의 평양시 남경 유적을 비롯하여 무문토기시대 전기 및 중기의 것으로 남부지방에서는 특히 기원전 6-4세기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업적에서 미루어볼 때 화성지역에서도 기원전에 벼농사가 행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농업노동에 있어서 마을 공동작업인 두레가 서는 것은 모심을 때가 아니고 논매기 때였다. 각 지역의 논맴소리들은 두레논매기의 한 産物이다.

화성시의 논맴소리로는 두올레, 문생이, 방아류(긴방아·느린방아·중거리방아·жат은방아), 방계류, 에키나방아, 상사류, 곤장네, 어화실실 류, 대허리(단허리), 열카덩어리류, 문돌소리, 위야호호 등이 불리운다. 마지막 논을 매고 마을로 들어올 때는 노래없이 농악만 치는 점은 경기지방의 일반적 특색이다.

화성시의 논맴소리는 한강이남의 서남부경기도 민요로서의 색채를 가지면서 주변의 영향을 받되, 한강이북에 비해 서부 충남과의 교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양반도 방면은 소금생산과 어물 및 중국으로의 배가 닿을 수 있는 선착지로서의 입지조건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농요를 창출할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세(勢)를 가졌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서부 화성지방은 옛 남양군 지역으로 1914년 이전까진 동부 화성지방과 행정구획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성시는 임야가 총면적의 4할에 못미치는 평야지대인 고로 그 경계는 표고 200~300m의 산을 계기로 나누는 정도라 동서간의 민요권적 차이가 적지만 논맴소리의 종별마다 문화중심지가 다름에 따라 그 전파력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 고로 약간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곤장네 류는 서부지역인 남양반도에서 주로 불리우며, 대허리 류의 전파는 동남부지역에서 멈춘다.

화성지역의 논맴소리가 이러한 특색을 가진다는 것은 ‘화성두레’도 논맴소리만큼이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질 것임을 시사해 준다. 오늘날 지정보호되고 있는 평택농악과 안성농악 및 대전웃다리농악, 그밖에 천안시 흥타령 농악 등은 대부분 남사당풍물과 인연을 가졌던 지배들에 의한 남사당계열의 농악이다.

화성시엔 다행히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마을의 두레농사꾼들로부터 배운 껌이들이 생존해 계셨고 이 시점에서 이들의 쇠가락과 판제, 소고춤사위 등 전해오는 모습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으며, 경기전통 두레의 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쇠가락 조사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생존한 베틀꾼들이 몇분 계셨으나 이미 몸동작이 유연하지 못한 탓으로, 상쇠가 마당놀이 제2부에서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런대로 기본적인 춤사위나 뒹뒹이를 채록하였으니, 앞으로 실연(實演)을 통해 다듬어 나가기 바란다.

여러 가지 특색을 지닌 전통 ‘화성두레’이니 만큼, 이번 쇠가락 조사를 계기로, 길이 전승보존되길 바란다.

2008년 1월 28일

일러두기

ACW : 시계반대방향으로 도는 것 (Anti-Clock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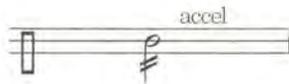
CW : 시계방향으로 도는 것 (Clockward)

〈SR〉 : 채보자의 해석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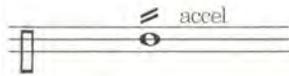
passage : 연결채

accel. : 점점 빠르게 연주

● 강박의 쇠 타점 / ○ 일반 쇠 타점 / ▽ 장식음 / ► 막음쇠 /



쇠를 갖게 연타하되 점점 빨리 몰아치기



쇠를 갖게 연타하되 점점 빨리 몰아치기



앞의 마디를 1회 반복하기



앞의 마디를 3회 반복하기



약한 요성(謠聲): 약하게 떠는 음



막음쇠



퇴성(退聲): 음의 끝을 끌어 내리며 점점 사라짐



앞의 2마디를 1회 반복하기



앞의 2마디를 몇 회 반복하기



(π : 제음 길이보다 조금 길게 연주)

(z : 제음 길이보다 조금 짧게 연주)

제 I 장

전통 화성 두레의 구성과 특징



제 I 장

전통 화성 두레의 구성과 특징

1. 구성

화성에서는 예전에 ‘농악’ 이라 부르지 않고 ‘두레’ 라고 불렀다.¹⁾

화성 두레는 길곳에 이어 마당놀이 3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잦은 연타채로 잽이들의 주의력을 한군데로 모은 후, 길가락을 제시하고는 길가락의 본가락과 변형가락을 친 다음, 자진길가락-더드래-자진가락(달도밝고/우물고 사가락/엎어빠기/달도밝고)후, 마무리한다.

제2부에서는 벽구들을 놀리거나 여러 가지 진법을 구사하며 논다.

제3부에서는 양산 더드래와 짚지패가락으로 춤을 추고, 남녀(여장 남자)아이의 단동고리와 열두발상모돌리기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북잽이만 점고가락을 울리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길곳가락은 길가락(이른바 칠채가락)으로 할 수도 있고 더드래를 쓸 수도 있다. 퇴장가락으로 애용되는 군대 행진곡 가락은 강은중이 사변 후에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다. 강은중은 영등포로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점쟁이들이 앉는 모습을 보고 ‘꿨는 상모’ 를 고안해 내었다고 하는 바, ‘꿨는 상모’ 란 오른다리를 땅에 붙이고 앉은 다음, 왼다리를

1) 農樂이란 용어가 처음 문헌상에 보이는 것은 1935년도에 민속학자 宋錫夏가 쓴 <농촌 오락의 조장과 정화에 대한 私見>이라는 글이며, 조선총독부에서 1937년에 발간한 [조선의 향토오락]에도 ‘농악’ 이란 용어가 나온다. ‘농악’ 이란 지방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풍물, 풍장, 장풍장, 매구, 걸궁, 걸립, 굿, 金鼓, 軍鼓, 두레)을 통합할 수 있는 학술적 어휘로서, 日帝에 앞서 우리 학자에 의해 처음 指稱된 것이라 여겨진다.

땅에 붙이고 앉는 동작을 하는 것으로서, 다른지방 풍물단의 상쇠 등의 동작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따금 파악된다. 삼십육방 군대 훈련진도 강은중이 생각해 내어 역말농악에서 시작하였다고 강은중은 믿는다.

화성두레는 경기북부의 웃다리농악과는 달리 농사 모의동작같은 것을 하지 않는 대신, 진법놀이를 펼친다. 화성두레의 진법으로 을자진, 멍석말이(달팽이진), 팔자진, 원진, 가새진, 십자진, 고사리찍기, 삼십육방 훈련진 등의 진법이 존재하였다. 을자진은 짚이들이 마당에 들어서서 맨처음 만드는 대형이다. 화성두레에서는 무동을 세우지 않았던 곳도 있지만, 세웠던 마을에서도 남자아이 한명과 여장 남자아이 한명을 단동고리로만 무동세웠다.

치배들의 복색은 1960년대에 여성농악단이 활약하고부터 유행되었다고 하는 바, 화성두레에서는 흰바지 저고리 위에 파란조끼를 입고 노랑색, 파란색 띠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로 내려 빨간색 허리띠로 뒤에서 매어 고정시키는 형태를 선호한다.

2. 특징

(1) 화성두레에서는 기본가락 명칭으로 길가락, 자진길가락(육채), 더드래, 잣은 더드래, 자진가락을 쓰며, 자진가락 안에 우물고사가락과 엮어빼기 및 “달도밝고 별도밝고” 가락을 포함시킨다. 화성두레에서 가장 느린 가락은 ‘상벽구춤’ 가락과 짚지패가락으로서, 짚지패가락은 타지방의 굿거리에 해당하나, 화성두레에서는 ‘짚지패’ 가락으로 통한다.

길가락은 타지방 웃다리농악에서의 칠채에 해당한다. 칠채에선 징을 7타함이 일반이지만, 화성두레에서는 8타하기를 애호한다.

더드래는 타지방의 삼채에 해당한다. 더드래의 교습가락 중에 “화성 땅에는 효자가 많고, 경기도 땅에는 바탕이 좋다” 라는 구음이 전해온다.

같은 3분박4박장단이지만, 잣은더드래<더드래<양산더드래<짚지패가락 순서로 속도가 느려진다.

엮어빼기는 소고가 엮어빼기 사위를 할 때 쳐 주던 가락으로 타지방에서는 ‘휘모리’ 라고도 일컫는 바, 화성두레에서는 자진가락에 섞어 연주한다.

‘달도밝고’ 가락의 연주에 있어서 막음쇠의 정도에 따라 ‘지가’ ‘메라’ ‘그라’ 의 구음으로 이를 구별한다(제17장의 해설 참조)

(2) 화성두레에서는 본쇠(단쇠) 이외에 변형장단(결쇠)을 많이 구사함을 그 가락의 특징으로 삼는다. 특히 길가락에서 결쇠를 구사할줄 모르면 화성가락을 연주할 줄 모르는 것으로 여긴다.

또한 단순한 반복을 피하고 약간의 변화를 주어 두종류의 가락을 교차반복시킴으로써 쇠가락이 풍성해 보이도록 한다. 이러한 기법은 강은중의 행진곡 북가락〈화성두레 11〉에서도 돋보인다.

(3) 화성두레에서는 길가락 다음에 반드시 자진길가락(육채)을 거쳐 더드래로 진행한다. 타지방의 웃다리두레에서는 자진길가락이 존재하더라도 길가락 다음에 바로 자진길가락을 잇대는 용례가 더물다.

(4) 백토리 두레의 ‘상벽구춤’ (제5장의 해설과 〈화성두레 16〉참조)가락은 느린 3분박 4박장단이지만, 쇠채를 비스듬히 밑으로 뺀치며 쳐내리는 부분 등, 독특한 구성을 한다.

(5) 마도면 고모리 김경수의 열두발상모가락〈화성두레 17〉은 실제 연희가 뒤따르지 않았던 조사라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8분의5박 2마디에 8분의9박 1마디를 결합한 복합장단이라 주목된다. 또한, 강은중이 이끄는 역말두레는 ‘끓는상모’ (제3장 해설의 2. ‘소고춤사위’ 참조), 삼십육방 훈련진, 퇴장시의 행진곡가락 등을 고안한 빼어난 두레이다.

(6) 신외동 안병선 전승의 고사덕담은 사설이 특별하다.

(7) 백토두레에서처럼 마당놀이의 종결 뒤에 북이 단독으로 점고가락을 울리는 점은 이채롭다.

여 백

제 II 장

전통 화성 두레의 기본 쇠가락과
고사덕담



제 II 장

전통 화성 두레의 기본 쇠가락과 고사덕담

화성 두레의 기본 쇠가락 일부를 정간보로 작성한다. 제 17장의 삼선보 등과 비교하여 학습한 후, 본 보고서의 삼선보 채보들을 이해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강박의 쇠 또는 징의 타점 / ○ 일반 쇠타점 / ● 약박의 쇠의 타점 / ▽ 장식음 /
- ▶ 막음쇠 / ACW 시계반대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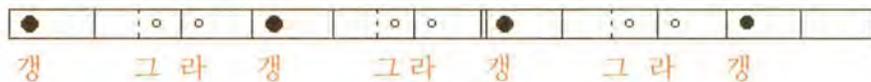
〈화성두레 1〉

길 가 락

(A) 8분의 5박 2마디



(8분의 6박) + (8분의 5박)



8분의 5박 3마디



(B) 8분의 5박 2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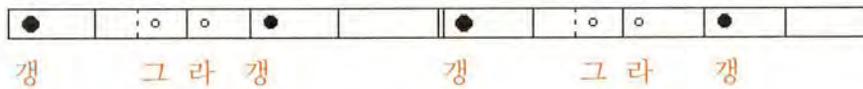
(8분의 6박) + (8분의 5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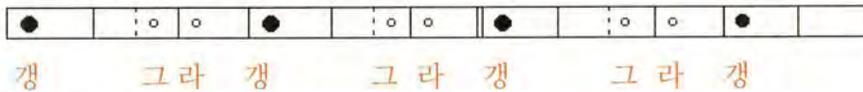
8분의 5박 3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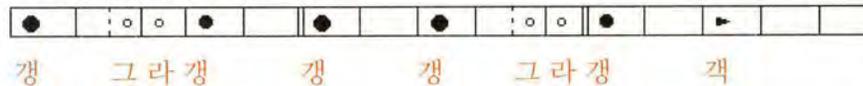
(C) 8분의 5박 2마디



(8분의 6박) + (8분의 5박)



8분의 5박 3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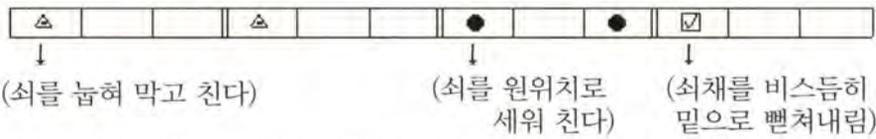


〈화성두레2〉

상벽구춤

- 삼선보〈화성두레 16〉의 8(상벽구춤)과 대조할 것 -

느린 3분박 4박(1박 = M.M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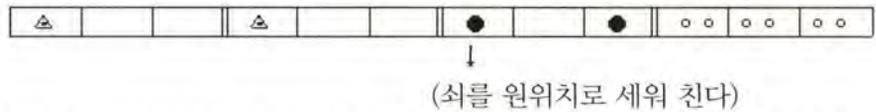


(쇠를 눕혀 막고 친다)

(쇠를 원위치로 세워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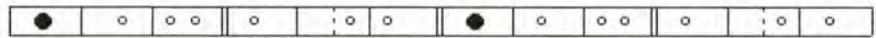
(쇠채를 비스듬히 밑으로 뺀채내림)

(잡이들 동작) ; (안을 향해 큰 원을 그리고 제자리에 정지) (옆으로 1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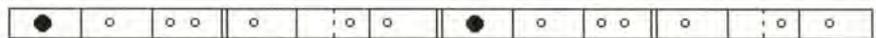
(쇠를 원위치로 세워 친다)

(잡이들 동작): (제자리에 정지) (옆으로 1步) ACW



(잡이들 동작); (G) (제자리에 정지) (H) (옆으로 1步)

3분박 4박(1박 = M.M 79)



(잡이들 동작): (J) (옆으로 1步) ACW (K) (옆으로 1步) ACW

* (K)를 몇회 반복한다.



상벽구춤가락은 3분박4박의 느린 굿거리장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처음 2장단에서 매장단의 제1,2박의 쇠를 눕혀서 막아치는 점과 제3,4박에서는 쇠를 원위치로 세우고 치되 첫장단의 제4박에서는 쇠채를 밑으로 뿌리며 치는 점이 독특하다. 처음 2장단에서 북은 제4박을 강하게 치며, 제1,2,3박을 약하게 친다. 잭이들의 동작을 보면 제1,2,3박에선 정지해 있다가 제4박에 옆으로 한걸음 걷는다. 제3마디에선 전반부에서(G) 정지했다가 후반부(H)에서 한걸음 옆으로 간다. 제4마디부터는 반장단에 1보씩 시계반대방향(ACW)로 옆걸음질한다.

〈화성두레 3〉

옆어빠기

8분의 4박 2마디



위의 ①길가락〈화성두레 1,39의1〉, ②상벽구춤가락〈화성두레 2,16의8〉, ③옆어빠기〈화성두레 3〉 이외에 ④인사굿〈화성두레 16의1〉, ⑤자진길가락(육채)〈화성두레 39의2〉, ⑥터드레〈화성두레 40〉, ⑦짚은 터드레〈화성두레 39의3〉, ⑧양산(도) 터드레〈화성두레 16의 12〉, ⑨짚지패가락(굿거리)〈화성두레 16의13〉, ⑩찍찌기〈화성두레 9〉, ⑪상부받아 치기〈화성두레 16의10〉, ⑫북상〈화성두레 16의11〉, ⑬무동삼채〈화성두레 8,17의5〉, ⑭열두발상모〈화성두레 17의4〉, ⑮우물고사가락〈화성두레 39의4〉과 ⑯“달도밝고 별도밝고” 〈화성두레 39의4〉 등의 자진가락〈화성두레 39의4〉, ⑰종결가락〈화성두레 17의2 끝〉, ⑱점고가락을 활용한 종고가락〈화성두레 16의13끝, 19〉, ⑲행진곡가락〈화성두레 11〉, ⑳꽃놀이가락〈화성두레 44〉 및 여러 가지 연결채 내지 넘김채들이 있다.

이중에서 ②⑥~⑩, ⑬의〈화성두레 8〉, ⑳ 은 3분박장단이고, ③⑪⑫⑮⑯⑲ 는 2분박장단이다. 그리고 ①④⑤, ⑬의 〈화성두레 17의5〉, ⑭⑰⑱ 은 복합장단이다.

1. 봉담읍 강은중의 쇠가락

<화성두레 4>

화성시 봉담읍
역말두레

강은중 쇠가락

쇠 : 강은중(1925.남)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 (2006, Dec. 3)

1. 시작

♩ = 150

이하, 정도 잦은 연타채로 점점 몰아침(accel)

(징은 멈춤)

2. 길가락

2-1 제시

♩ = 100 ~ 120

2-2 본가락

<부>
이학재



* (2-2)의 본가락을 1회 더 반복.

2-3 변화가락



* (2-3)의 변화가락을 1회 더 반복한 뒤, 본가락을 다시 1회 반복한다.
이어서 변화가락을 1회 더 반복하면서 쇠손을 높이 들어 자진길가락으로
들어감을 예고한다.

3. 자진 길가락

♩ = 170

*이어서 (A)+(B)+(A)+(B)+(B)+(B)를 연주한다.

4. 삼채

♩ = 100

(쇠잡은 손을 치켜 든다)

*이어서 (C)를 몇차례 더 반복한다.

(쇠손을 치켜들어
자진가락으로 들을 예고한다)

5. 자진가락

♩ = 207

달도 밝고 별도 밝고

〈북〉 / sim

6. 얹어빼기

-쇠를 얹혀 친다-

♩ = 200~207

달도 밝고 별도 밝고

〈북〉 / sim (D-1) (D-2)

*(D-1) 또는 (D-2)를 12회 더 반복한다.

7. 단락짓기

♩ = 104

달도 밝고 별도 밝고

♩ = 120

8. 삼채

♩. = 120

12/8

〈북〉
이학재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shows the first two measures of the piece. The upper staff is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lower staff is a bass clef. The tempo is marked as quarter note = 120. The time signature is 12/8. The first measure contains a drum part (북) and a melody starting on a dotted quarter note. The second measure continues the melody with eighth notes.

(E-1) (E-2)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shows measures 3 and 4. Measure 3 is marked (E-1) and measure 4 is marked (E-2). Both measures feature a melody in the upper staff and a corresponding bass line in the lower staff. The melody consists of eighth notes.

*(E-1)+(E-2)를 5회 더 반복.

(E-3) / sim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shows measure 5, marked (E-3). The melody in the upper staff is followed by a repeat sign and the word 'sim' (simile). The lower staff continues with eighth notes.

(*쇠를 치켜들었다 내림)

6/8 / sim.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shows measures 6 and 7. Measure 6 is marked with a 6/8 time signature. The melody in the upper staff has a change in pitch, indicated by the instruction '*쇠를 치켜들었다 내림' (raise the bell and lower). The lower staff continues with eighth notes.

16 (E-4)를 16회 더 반복 (쇠를 치켜들어 신호)

(E-4)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shows measures 8 and 9. Measure 8 is marked (E-4) and measure 9 is marked with a 16-measure repeat sign and the instruction '(E-4)를 16회 더 반복' (repeat (E-4) 16 more times). The lower staff continues with eighth notes. The instruction '(쇠를 치켜들어 신호)' (raise the bell and signal) is written below measure 9.

9. 자진가락

♩ = 194

달도 밝고 별도 밝고

<부>

/ sim.

<앞어빼기>

♩ = 214

/ sim.

♩ = 206

(F-1)

(F-1)을 3회 더 반복

/ sim.

(장은 윈다)

(쇠를 눌혀 친다)

(G)

(G)를 반복

/ sim.

(F-2)로의 넘김가락

(F-1)

(F-2)를 2회 더 반복

10. 단락짓기

* '달도 밝고 별도 밝고' 가락을 4회 연주한다.

(달도 밝고를 단락짓는다)

(징과 북도 맞게 연타한다)

쇠

4
4

복

장례

(쇠를 눌러 막고 친다)

(쇠를 막지않음)

(H)를 3회 반복

(J)를 3회 반복

(K)를 3회 더 반복

3

3

3



12. 단락짓기



13.

$\text{♩} = 120$

The musical score for exercise 13 consists of five staves. The first staff begins with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and a 12/8 time signature. The tempo is marked as $\text{♩} = 120$. The first staff contains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half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G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B4; the second measure has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B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G4. The second staff continues with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half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G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B4; the second measure has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B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G4. The third staff continues with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half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G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B4; the second measure has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B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G4. The fourth staff continues with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half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G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B4; the second measure has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B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G4. The fifth staff continues with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half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G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B4; the second measure has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B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G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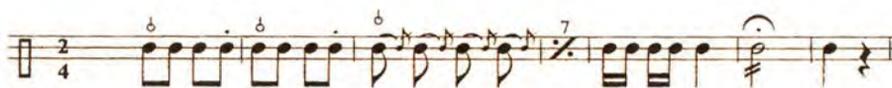
$\text{♩} = 120$

The musical score for exercise 14 consists of two staves. The first staff begins with a treble clef,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and a 12/8 time signature. The tempo is marked as $\text{♩} = 120$. The first staff contains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half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G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B4; the second measure has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B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G4. The second staff continues with two measures: the first measure has a half rest followed by a quarter note G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B4; the second measure has a quarter note C5, a quarter note B4, a quarter note A4, and a quarter note G4.



15. 단락짓기

$\text{♩} = 100$



달도 밝고 별도 밝고

16. 종결가락

$\text{♩} = 75$

$\text{♩} = 110$



〈화성두레 5〉

화성시 봉담읍
역말두레

강은중 길가락

쇠 : 강은중(1935. 남)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2006, Dec. 3)

(서두) ♩. = 110



(제시) ♩. = 110



(본가락)



(변화가락)



(자진 길가락)



(A)를 2회 더 반복.



(삼채 넘김가락)

♩. = 120



⋮
* 쇠잡은 손을 치켜들어
삼채로 진입함을 알린다.

〈화성두레 6〉

화성시 봉담읍
역말두레

강은중 자진가락 3채

최 : 강은중(1935. 남)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2006, Dec. 3)

* 3채란 '달도 밝고'와 '엷어빼기' 및 '우물고사 가락'을 의미한다.
* 구체적으로는 진입 -달도밝고- 엷어빼기-우물고사-엷어빼기
-넘김채-달도밝고-단락짓기로 진행된다.

♩ = 187

(진입)

달도 밝고 별도 밝고

(엷어빼기)

갠 지갠 지개 개개개 갠 지개

(우물고사채)

♩ = 200

물줍 쇼 물줍 쇼 사해용왕 물줍 쇼

(넘김채)

(A)를 6회 더 반복.

(단락짓기)

달도 밝고별 도밝고

<화성두레 7>

화성시 봉담읍
역말두레

무동 삼채 (1)

쇠 : 강은중(1935. 남)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2006. Dec. 3)

* 더드래의 3분박4박중 매박마다 한걸음씩 내딛는다.
* 차진규: 양산더드래의 매박에 두발을 모으며 걷기도 한다.

♩. = 120~110

(한걸음) (한걸음) (한걸음) (한걸음)

♩ = 171

* 단순 삼채가락으로 자진가락으로 들을 암시 (쇠잡은 손을 치켜 들)

♩ = 187

별도 밝고

(엄지손가락 끝으로 쇠를 놀림)

〈화성두레 8〉

화성시 봉담읍
역말두레

찍지기

쇠 : 강은중(1935, 남)
징, 북 : 이소라
채보 : 이소라(2006, Dec. 3)

- * 역말에선 해방되고나서부터 찍지기를 한다.
- * 앉을상 가락이라고도 일컫는다.
- * 자진가락 끝내놓고 북상이 전진, 후진한 후에 새로이 찍지기 가락을 치는데, 원진을 ACW로 돌며 2,3회 친다.

♩. = 105 ~ 120

The first staff of music shows a rhythmic pattern in 12/8 time. It consists of a sequence of notes: a quarter note, an eighth note, a quarter note, an eighth note, a quarter note, and an eighth note. This sequence is repeated twice. Below the notes, there are two dashed lines, each labeled "(까치걸음)".

The second staff of music continues the rhythmic pattern. It includes the same sequence of notes as the first staff. Below the notes, there are two dashed lines, each labeled "(강은중 동작) 엉덩이가 달을 정도로 앉음". The first line is followed by "일어섬," and the second line is followed by "앉음, 일어섬,". The staff ends with a fermata and the marking "/ sim".

The third staff of music shows the rhythmic pattern again. Below the notes, there are two dashed lines, each labeled "(까치걸음)".

The fourth staff of music shows the rhythmic pattern. Below the notes, there are two dashed lines, each labeled "앉음". The first line is followed by "일어섬," and the second line is followed by "방향을 돌려 선다." The staff ends with a double bar line.

〈화성두레 9〉

역말두레

까치걸음채와 소고 동작

쇠 : 강은중(1935, 남)
 소고 : 이학재
 채보 : 이소라(2006, Dec, 3)

1. 정지

♩ = 75

소고동작 : (준비) (소고1타) (1타) (1타) (1타)
 소고잡이 : 제자리에서 침.

2. 앞걸음질

♩ = 100

소고동작 : (밑에서 1타)(위에서 1타) / Sim. (CW) (ACW)
 (*앞걸음질)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오른발
 상모지를 시계방향 (CW)으로 돌린다. 시계반대방향 (ACW)으로 돌린다.
 (뒷걸음질 예고)
 (CW) (ACW)

3. 뒷 걸음질

*징은 멈춘다. 쇠는 막고친다.

♩ = 100

(1타) (1타) (1타) (1타) (D)를 6회 더 반복. (*넘김채)
 상모지를 2회씩 돌림 2회씩 돌림 (D)

4.

♩ = 110

- a 허리 밑에서 앞면 1회 칩.
- b 가슴께에서 소고를 쥔 왼손의 손등이 보이도록 소고를 돌려 소고의 뒷면을 1회 칩.
- c 가슴께에서 소고를 쥔 왼손의 손등이 보이지 않도록 원상복귀하여 소고의 앞면을 짧게 1회 칩.
- d 가슴께에서 소고잡은 손은 c상태로 그대로 두고 소고채를 쥔 오른 손을 소고 뒤로 가져가 1회 칩.

〈화성두레 10〉

화성시 봉담읍
역말두레

퇴장 때의 군대 행진곡 가락

최 : 강은중

채보 : 이소라(2006, Dec. 3)

♩ = 100

〈화성두레 11〉

화성시 봉담읍
역말농악

강은중의 엇어빠기 가락

최 : 강은중

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06.1-10-1B)

* 자진가락 중의 하나이며, 소고의 엇어빠기 장면에 쓰인다.

* 엇어빠기를 지금은 휘모리 라고도 부른다.

(해방전)

♩ = 200

* (A+A+B)를 3회정도 반복한 다음(B)를 몇회 되풀이 하고 맺는다.

* 1946년 이후론 다음의 가락으로 즐겨 쓴다.

(해방후)

- 1946년 이후에 즐겨 쓴다. -

♩ = 200

〈화성두레 12〉

화성시 봉담읍
동화3리

줄다리기 쇠가락

쇠 : 강은중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 (06-12-3-2A)

1. 줄메고 나갈 때

♩. = 105

Musical notation for '1. 줄메고 나갈 때' in 12/8 time, tempo 105. It consists of three staves. The first staff has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second staff has a bass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third staff has a bass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and accidentals. There are two sections labeled (A) and (B) indicated by dashed lines under the second staff.

2. 줄 당길때

♩. = 63

Musical notation for '2. 줄 당길때' in 6/8 time, tempo 63. It consists of two staves. The first staff has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second staff has a bass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and accidentals. There are two instances of the Korean text '휘여차' written below the notes in the second staff.

3. 판정난 이후

♩. = 120

Musical notation for '3. 판정난 이후' in 12/8 time, tempo 120. It consists of two staves. The first staff has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second staff has a bass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and accidentals.

〈화성두레 13〉

화성시 봉담읍
역말두레

고사반

창 : 강은중
채보 : 이소라 (06-12-3-2B /
MD06-12-3 n.1)

국태민안이 범윤자 시화년풍
년년이 돌아든다

이씨 한양 등국시에 한양 도읍이 생길 적에
삼각산 기봉하여 봉학이 넉치 생겼구나.

대궐을 둘러라 봉학을 짓구, 봉학을 둘러라 대궐을 짓구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오영문 학악산은
각도 각읍을 마련하고,

왕십리는 청룡이되고 등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종남산은 안산이요 인왕산은 주산이라.

관악산은 화산이요 동쪽강이 조수되어,
여천지(는) 무궁이요 만호장안은 절씨고



강남은 소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인물지심을 아니시던 고국 역살에 손님 마마
강남서 나오실 적에, 선 세분이 나오시다가



선분은 회정을 하고 다만 세분이 나오실 적에
요동은 칠백리요, 금릉은 육백리라

앞으루두 열두강, 뒤루두 열두강(이요)
이십사강을 건널 적에 어찌어찌(나) 건널소냐
배를타고 건널적에 / (K1)

그 무슨 배를 잡었더냐 나무배를 잡어타니
나무배는 썩어지구 돌배를 잡어타.

돌배풍뎡 갈았고, 흙토산이를 잡어타,
모진강풍 못잇어서 질락발락 다 떨어지고

종이배를 잡아타, 종이배는 미어지구,
 앓다 그배 못씨겼다 수양산 벼들잎을
 주루룩훑어 배를모아 영계양산 흐르는 물에

두둥실 띄어다가 홍공단 선을 둘러
 백공단 늦을 달어 이물에 잡아 청청기.

고물에 잡어서 왕청기 청기 용상 받은 후에
 방도날은 순위되어, (K1)

부는 바람 역풍이라 명지바람 전설풍에
 애찍 지찍 건널적에 노정기를 되여보자
 철산가산 안주백산 단군 천년이나 기사<기자> 천년.

이천년 조공받던 평양 계명을 다달어
 인물 지심을 잠깐하고 을미대를 넘치돌아
 시내 귀경을 잠깐하고 경기도<황해도>로 치달어.

열아래 손축을 얼른 지나 송도역마 갈아타구
 송도왔던 개성 목, 인물지심을 잠깐하고
 경기도루 치달어, 고양 역말을 갈아타구

양주읍을 훌훌지나 작은 옥분 큰 옥분이
 무학재 고개를 훌훌 넘어 독립문을 앙알아 메고, (K1)

팔만장안 그 먼가고 가고 잠깐 하울적에
 아랫대곶에 웃대곶 경북궁 새대곶,
 왕자 그건 이아니시냐 이름 한자를 적어두고

개오집<기와집>을 돌아봐, 계와집은 계한가중
 초가집은 초한가중, 오두막 집은 복석가중
 밤이머는 불쓴가중, 낮이머는 나는 가중

이리 저리 저리 이리 담을 짓고 하도로 내려올제,
 남대문 낙사읍로사 칠패팔매 돌머러루

앞녹이라 동조강을 앞녹이라 과천 옥발을 지나
 밭서겨네 굴서겨네 지대 고개를 훌훌 넘어

♩ = 120

(소)



♩. = 150-133

수원 북문을 들어 서 수원 같은 대목 안
 인물 지심을 잠 깎하고 수원 남 문씩 나서
 가자 가자 가 잘 소냐 그어테 를 가잘소냐
 화성시 하고도 봉 답음 동 화리를 접어들어

그 누운 경치로다 도원 누이도 부인마마
 근거 본능에 양년부처 근실계 극락으루
 하루 백리를 들어갈적에 무심 옥심 덩쿨달어

산 팔 십 후 팔십 일 백육십 사 시두륙
 점 지 발원 하옵 소니 근 들 아 니 가 좋 을 소 나

(쇠) ♩ = 133

그는 그리도 하느니와 금년같은 해우년에
 호구 역사를 시작하니 호구 역사를 풀어보자

살을 풀이라 걸인살, 원근 도정에 이별살
 내외지간에 공방살, 하늘이 울어 천동살
 땅이 울어 지동살, 사람이 죽으면 상문살

혼인 대상은 주상살, 거리 거리도 성황살
 돌무데기도 석살이나 단불 단불이 선황살
 물아래 출입을 하옵시고 이태백이도 선황살,

물위에 출입을 하옵시면 두되백이도 선황살
 사랑 밑에는 땡그랑살 수채 구녕에 흘린 쌀

모든 살을 막어다가 어디월날 소홀하니
 근들 아 니 가 좋 을 소 나

그는 그리도 하느니와 금년같은 황월
 농사 한철을 지어보자

신농씨의 큰손으로 하우씨는 비를주구
 천황 지황은 인황씨 농사백이 또 있느냐
 남은 독기라고 장만할제 앞들에는 천석지گی요

뒷들에는 만석지گی, 물이출렁 수답이나
 물이 말려서 건답이나 한톨 종자를 땅에 묻어
 천금 만금 들어가니 농사 입이 다 오셨다.

범씨 한번 뿌릴적에 울긋불긋 대추찰 알록달록이는 까투리찰,
여주 앞에는 석노찰 꼭꼭 붙었다 쟁끼찰 김포통진은 밀타리 베

광주분원은 사밭베 여주 이천 자채베에
환각씻는 노이베 견우 직년의 칠성베
온갖 씨를 다 흙엿느니 밭농사 접어들어

올콩줄콩 쥐눈이콩 만리 타향은 강남콩
이팔 청춘에 푸르대콩 두방 태수는 무르대콩 방정맞다 마태콩

그는 그리도 하려니와 갖은 양념을 심어보자
참깨 들깨는 더들깨 고추 장추는 화당초

오이 호박엔 마늘과 미나리 생각을 덧들여서
여기 저기 심었으니 근들 아나가 좋을소냐
그는 그리도 하려니와 농사 한철을 버티보자

구 누가 그러구나, 앞동네 선머심
뒷동네 선머심, 우묵 낫을 갈아치구
이리 흙척 도려묵고 저 논둑에 걸쳐놓고

저리 흙척 도려묵고 이 논둑에다 걸쳐놓고
우유같은 요와님은 술둥이를 받치고
(한냉으자는 고은 앵은?) 제 흥이 도도하다

농사 한철 저를 적에 사람의 힘이루 못하며는
우마 대마를 풀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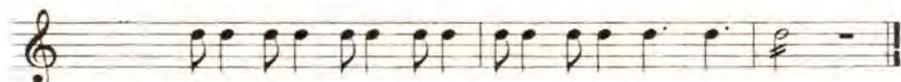
어떤 우마를 풀어 보나 왼논 백이나 별 백이,
우각뿔이나 좌각뿔 안쪽 식이나 밧쪽 식이나
이실 식이나 비날 배기루 드럭 고구룩

꽂지없는 동경소 각처 우마가 다 모여서,
애껴 지껴 실을 적에, 나갈 적에는 빈손이요
들을 적에는 옥석밭이 담불 담불이 노적이라

노적이루다 울타릴 내고 앞노적을 바라보니
붕하이 한쌍 앉았구나 한 날개를 툭탁치니
수만금이 들어오고 또 한날개를 툭탁치니

만고 불락이 들어온다 그 무슨 복 들어 오나,
사람의 복은 길어들고, 쪽제비 복은 뛰어들고
구렁복은 기어들고, 물복은 흘러들고

만수산에 구름 일듯 뭉개뭉개 들어오니
거부 장자가 되옵시고



- 자손축원 -

* 참고용

축원이 갑니다 축원이 갑니다
(건명애) 김씨댁에 (축원이 갈적에야)

없는 애기두 점질하고, 있는애기, 수명 장수
명과 복을 빌을 적에,

♩ = 100~107

아-들 애기를 낳으 시면 효 자충신 발원 이고
딸 애기를 낳으 시며는 열 녀 효부 발원 이라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게는 효자동이,
동기간에는 우애동이, 일간 간에는 화목동이,

친구 간에는 우신동이, 점지 발원 하옵소사 -

강은중의 쇠가락 해설

1. 계보

강은중은 1925년도에 정남면 귀래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섯 살에 봉담면 동화3리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동화3리는 조선시대에 파발마에 쓰는 역말을 길렀기 때문에 자연마을 이름으론 '역말' 로 불리운다. 강은중은 농사도 지었다.

역말에서는 두레논매기 때와 호미걸이, 정월 보름날 밤의 줄다리기 및 정제(우물제;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뚫어라 / 물줍쇼 물줍쇼 (요왕님요) 물줍쇼) 때에 주로 쇠를 쳤다. 음력 10월 초하루에 지내는 산제에서는 두레를 치지않았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산제당이 있어 어디에 걸립을 나가게 되면 산제당에 들려 고하고 나갔었다.

강은중은 12세부터 농악에 입문하였으며, 소고수를 40년간 하였고, 역말두레의 상쇠를 맡은지는 30년 된다. 역말의 상쇠 계보는 다음과 같다. 강은중은 이성재의 쇠가락을 보고 들으면서 익혔다.

이씨(살았으면 120세, 역말출신)-김씨(살았으면 110세, 역말출신)-임수원(강은중보다 7,8년 년상, 동화3리 토민, 농사지었음)-이성재(1919년생, 남, 동화3리 토민)-강은중

역말두레는 1986년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봉담역말두레로 나가 입상한 이후로 이름이 났다. 강은중이 26세 되었을 때 수원의 이병태(선소리꾼)가 꾸민 걸립패를 따라 걸립을 나갔는데, 동행한 임광식은 그당시 겨우 상모만 돌리는 10세미만의 어린이였다. 이병태 걸립패에서 강은중은 벽구잡이로서 돌사위, 앓을사위, 반상, 꼭두상모며 자반뒤집기 등을 하였다. 돌사위와 앓을사위는 역말마을에서 그냥 배운 것이고, 꼭두상모는 안성에 갔다가 안성사람들 하는 것 보고 배워, 역말두레에 처음 도입하였다. 강은중에게 쇠를 배운 제자로는 이성만 등이 있다.²⁾

2) 이성만이 1986년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상쇠로서 역말두레를 이끌고 나가 준우승하여 상금 20만원(그당시 땅 500~600평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을 탔다. 역말두레는 그때부터 매년 경기도로부터 전승 보조금을 받고 있다. 강은중에게 배워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간 제자가 넷이며 그중 1명은 대학교에 들어갔다(2006년 10월 강은중 대담).

2. 소고 춤사위

돌사위는 오른발을 먼저 내밀고 시계반대방향(ACW ; Anti-clockward)으로 한바퀴 돌리는 동작이다. 앉을 사위는 앉았다 일어선다. 반상은 앉았다 반쯤 일어선다. 꼭두상모는 안성에 갔다가 안성사람들 하는 것 보고 배워, 역말두레에 처음 도입하였다. 강은중에 쇠를 배운 제자로는 이성만 등이 있다.

3분박4박의 더드래 한 장단 “갠-지(♪ ♪) 갠-지(♪ ♪) 개개개(♪ ♪ ♪) 갠(♪.)”에 “좌 - 우 - 뒤로 제깎 - 고개 숙임”의 상모동작을 한다. 그 1박(갠-지)의 속도는 M.M 118정도 된다. (M.M 60이라면 1초의 속도이고, M.M 30은 2초, M.M 120은 1초의 절반인 빠르기이다) 자반뒤집기에서는 몸을 뒤집어 돌려 뛰며 원진(圓陣)으로 회전한다.

예전에 벽구들의 상모는 **나비상**(꼬리가 세 개달린 상모)이었으므로 짧았다.³⁾ 그 후, 강은중이 영등포로 군대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점쟁이들이 앉는 모습을 보고 ‘끓는 상모’를 고안해 내었다. ‘끓는 상모’란 오른다리를 땅에 붙이고 앉은 다음, 왼다리를 땅에 붙이고 앉는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줄다리기 쇠가락

역말의 줄은 수원의 고색줄 만큼이나 컸었다. 매년 정월 보름밤에 다른 마을두레들도 초청하여 줄다리를 하였는데 봉담 동화1리 밤고개 두레, 봉담 분천1리 두레, 봉담 분천2리 시내말 두레, 봉담 상리 샷갯골 두레, 봉담 수영리 두레, 태안읍 기안1리 두레, 태안읍 병점 진원 두레, 태안읍 배암말 두레, 정남면 보통리 두레, 수원의 고색말 두레, 수원의 고찌말(현 수원시 마우리 조금 넘어간 곳에 위치)두레, 수원의 오목내 두레 등 이웃 12두레들이 참가하였다. 이중에서 밤고개·분천·보통리·고색말·고찌말 두레는 단골 손님으로 늘 왔었다. 역말에서도 고색마을 행사 때는 늘 갔었다. 이들 이웃 두레들이 도착한다는 전갈이 오면 초청두레인 역말두레가 영기(令旗)를 앞세우고 마을 입구로 나가 서로 북(鼓)으로 점고(〈화성두레 19〉이창현의 점고가락 참조)를 울리며 맞아들인다.

이웃 두레들을 맞이하기 전에 동화3리에서는 농기를 앞세우고 마을뒷산에 있는 당집으로 가서 북어, 막걸리 등 제상을 차린 후, 엮어빼기 식으로 절을 하고 고사떡담을 하면서 농기에 신을 받아온다. 내려오는 길에 마을 공동 우물에 들러 우물굿(더드래로 길굿을 치고 가서는 자진가락으로 들어가 우물고사를 하고 맺는다)을 한다.

3) 나비상에 대하여는 이소라, [대전웃다리농악]대전직할시, 1991, 351쪽 참조.
차진규의 어린시절엔 채상의 길이가 길어서 두발 반 정도 되었다(차진규).

화성시 줄다리기에 대하여는 필자의 **원리줄다리기**[화성시사]가 참고된다.¹¹⁾

계재 악보로는 <화성두레 13>의 줄메고 나갈 때(1)와 줄당길 때(2) 및 승부가 판정이 난 후의 쇠가락(3)을 실었다. 줄메고 나갈 때는 남자아이와 여장 남자아이를 줄 우측에 세운다. 줄을 만들 때는 쇠를 치지 않았다. 썩던 줄은 공터에다 나무 고임목에 받쳐 둥그렇게 쌓은 다음, 이엉을 둘러 보관해 두었다가 이듬해 다시 결줄을 달아 수선하고 보충하여 썼다.

줄메고 나갈 때(1)는 3분박4박의 더드래가락을 친다. 상쇠가 처음에 (A)류를 예시하는 대로 잽이들이 이를 따라 1회 연주한 다음, (A+B)를 계속 몇회 반복한다. 매듭지을 때는 (1)의 제3행에서처럼 (B)의 후반을 갈라치지 않고 1박에 1타를 주되, 끝박은 막아친다.

(A)와 (B)는 각각 전반부만 다를 뿐 후반부는 갠-지 개갱- (♩ ♪ ♩ ♩)으로 같다. (A)의 전반부(제1,2박)는 매박이 길고 짧은 3분박(♩ ♩)임에 비해 (B)의 전반부는 이와 반대인 짧고 긴 3분박(♪ ♩)이다. 이와같이 동일 가락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고, 변화가락을 첨부하여 반복함으로써 보다 쇠가락을 풍성히 보이게 함은 강은중 쇠의 요령이며, 특징이다.

줄당길 때(2)는 3분박2박으로 갠-지개 갠-개를 연주한다. 제1박인 ‘갠-지개’에서 징이 1타하며 줄꾼들은 ‘위여차’ 외치면서 줄을 당긴다.

승부가 판정이 난 후에는 더드래가락(3)을 치면서 세바퀴 돈다. 짚지패가락은 치지 않는다. 무거운 줄을 메고나갈 때 보다는 흥가분하므로 (1)보다는 약간 속도가 잦아 반장단에 1초의 속도로 연주되었다. 세 바퀴를 돌고나면 자진가락으로 진행하여 한참을 놓고 맺는다.

4. 진법

역말의 진법에는 을자진, 명석말이(달팽이진), 팔자진, 원진, 가새진, 십자진, 고사리찍기, 삼십육방 훈련진, 열두발상모돌리기 등이 있었다. 열두발상모돌리기는 맨 마지막에 한다. 잽이 옆치기나 무동세우기, 당산벌림 등은 없었다.

동화3리의 김씨네 집으로 용인군 수지면 머네마을의 김학수(장고잽이)가 양자로 들어와 용인두레패와 역말농악이 서로 방문을 하여 함께 놀곤하였는데, 용인두레패엔 무동놀이가 있었다.

11) 이소라, “원리 줄다리기” [화성시사 제2권, 충·효·예의 고장 (곤편)] 화성시, 2005, 242~266쪽.

남사당농악과 계열이 비슷한 옷다리농악에서는 무동들이 많기 때문에 무동쾌자놀이며, 삼동고리, 곡마단 같은 무동 세우기를 하고, 무동들만으로도 한 줄을 만들 수 있어 ‘ㄴ’자 당산벌림을 하지만, 역말농악처럼 무동을 세우지 않거나, 화성의 다른 두레농악에서와 같이 단동고리로 남녀아이를 무동세우는 정도의 농악에서는 당산벌림을 하지않는다.

두레논매러 갈 때는 길곳으로 길가락을 쳤다. 도착하고서는 을자진을 만들고 삼십육방 훈련진을 하여 자진가락과 더드래로 돌리고는 길가락을 치면서 명석말이를 한다. 명석말이를 풀고서는 팔자진, 원진으로 들어와 꼭두상모, 반상 등을 하며 놀았다.

을자진은 잽이들이 마당에 들어서서 맨처음 만드는 대형이다. 을자(乙字)모양으로 대오를 지으며 행진한다. 명석말이(달팽이진)는 길가락을 치면서 잽이들을 명석을 말 듯 달팽이진을 만들었다가 푸는 형태이다.

팔자진에서는 잽이들이 여덟 팔자를 그리며 행진한다.

원진(圓陣)은 가장 많이 쓰는 대형이며, 겹원을 만들기도 한다.

가새진에서는 잽이들이 팔자를 그리지 않고 두줄로 만들어 직선으로 들어간다. 한번은 각각 바깥으로 돌아 다시 두 줄로 들어오지만 또 한 번은 서로 안으로 돌아 뒤로 빠진다.

십자진에서는 소고가 일렬 종대로 들어와 정한 위치에 이르면, 다른 잽이들이 소고줄에 직각선으로 들어오는 진법이다.

고사리꺾기를 강은중의 어린시절에도 했었다. 잽이들이 큰원을 그리고 상쇠가 잦은 연타채로 맺고는 부쇠쪽으로 가 부쇠부터 꺾는다. 3분박 4박의 더드래 두마디마다 한사람 또는 여러명씩 꺾는데, 꺾인 잽이들은 일어나 대열의 꿈무늬를 따라간다.

삼십육방 훈련진은 해방 후에 강은중이 군대 훈련식을 응용하여 만들어 시작하였다고 한다. 삼십육방이란 설흔여섯명의 지배들을 가리킨다. 네 줄로 갈라서서 군대훈련하는 식으로 상쇠의 지시를 따른다. 고사리꺾기 류의 더드래가락을 활용한다. 열두발상모는 요즈음과 마찬가지로, 마당놀이의 제일 끝판에서 돌린다.

5. <화성두레 4 ~ 13 >

<화성두레 4>에서 강은중의 쇠가락은 잦은 연타로 점점 몰아치는 시작굿(1)에 이어 길가락(2), 자진길가락(3), 더드래(4.삼채), 자진가락 달도밝고(5), 앞서빼기(6), 단락짓기(7)로 진행된다. 여기까지가 마당놀이 제1부에 해당한다. 이어서 더드래(8)-자진가락(9)을 치고는 다시 단락 짓는다(10). (11)에서는 북상을 놀리며 (12)에서 이를 단락짓는다. (8)부터 (12)까지가 마당놀이 제2부에 속한다. (13)은 양산도 더드래, (14)는 열두발상모 놀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에서는 달도밝고 가락으로 단락을 짓고는 (16)의 일반적 패턴의 종결가락으로 대단원의 마당놀이 막을 내린다. (13)에서 (16)까지가 마당

놀이 제3부를 장식한다.

〈화성두레 5〉에서는 길가락으로 길을 가는 길긋만 녹화하였다. 서두에서 상쇠가 4분의 5박으로 (개갱- 개갱- 갱- 갱-)을 연주하면 다른 잽이들이 주위를 환기한다. 이어서 상쇠가 8분의5박 4마디로 구성된 (갠-지갱- 갠-지갱- 갠-갠-지가 갠-지갱-)을 치면, 이를 신호로 다른 잽이들도 일제히 길가락의 본가락을 연주한다. 본가락은 8분의5박 6마디와 8분의6박 1마디가 결합된 복합장단이다. 8분의6박은 8분의5박의 제2마디와 제3마디 사이에 들어간다. 이는 경기농악의 대표적인 길긋가락인 칠채이며, 마당놀이에서는 명석 말이에 주로 쓰인다. 웃다리농악을 하는 타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징을 7타하지만 화성두레에서는 8분의5박의 제5마디에서 징을 2타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8타 하는 경향이다. 화성두레에서는 칠채라고 부르기 보다는 길가락으로 통하며, 변화가락을 애용한다. 길가락에 이어 바로 자진길가락으로 들은 역말농악을 비롯한 화성두레의 특징이다. 자진길가락은 길가락의 8분의5박 끝부분의 2마디에 해당하는 가락이다. 길가락에서와는 달리 징을 1타하지만, 잽이에 따라서는 길가락에서처럼 징을 2타하기도 한다.

자진길가락 다음엔 바로 자진가락으로 들질않고 잠시 더드래를 거쳐가는 것이 화성두레의 일반적 순서이다.

〈화성두레 6〉은 강은중의 자진가락 3채이다. 3채란 ‘달도밝고’와 ‘앞어빼기’ 및 ‘우물고사가락’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결채(passage) - ‘달도밝고’ - ‘앞어빼기’ - ‘우물고사가락’ - 넘김채 - ‘달도밝고’ - 단락짓기로 진행한다.

〈화성두레 7〉은 무동 삼채의 예이다. 역말에서는 무동을 세우지 않았으나, 무동 세우기를 하는 용인의 머네마음과 함께 놀 때는 무동 삼채를 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삼채란 더드래가락을 의미한다.

〈화성두레 8〉는 찌찌기 가락이다. 역말에서는 예전에 찌찌기를 안하다가, 해방되고나서부터 하며, 앉아 춤추는 장면이 있어 ‘앉을상가락’이라 했다. 자진가락을 끝내놓고 북상이 전진, 후진한 후에 새로이 원진을 하면서 시계반대방향(ACW)로 돌면서 찌찌기 장단을 2,3회 친다.

찌찌기 가락은 더드래 3마디를 조합한 것으로, 예를 들어 EFF의 F는 더드래 3분박4박의 제2,3박의 2분박으로 쪼개져 있어 잽이들은 〈화성두레 9〉의 예에서처럼 제1마디(E)에서는 반장단에 한번씩 까치걸음으로 걷고, 제2마디(F)에서는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로 앉아 오른손 춤사위를 하고 제4박에 일어서며, 제3마디(F)에서는 다시 엉덩이가 땅에 닿을 정도로 앉아 왼손 춤사위를 하고 제4박에 일어난다. 이렇게 2,3회 반복하다가 맺을 때에는 방향을 돌려 선다.

〈화성두레 9〉은 마당놀이 제2부에서 소고수들이 다른 지배들의 앞으로 나와 까치걸음으로 앞걸음질 또는 뒷걸음질 할 때 쳐 주는 쇠가락이다. 소고가 준비할 때는 잣은 연타채를 쳐주고, 까치걸음 한걸음(오른발을 내딛고-왼발을 오른발 뒤쪽에 붙임-오른발 내디딤)에 쇠는 2타하되 제2타마다 막음쇠를 친다. 앞걸음질하다가 쇠를 4타하면 뒷걸음질하라는 신호가 되어 이후로는 뒷걸음질 한다. 뒷걸음질할 때는 징은 멈춘다. 쇠는 놓혀서〈사진 38〉막아 친다.

〈화성두레 10〉은 요즈음 농악대회에서 흔히 듣는 퇴장 때의 행진곡가락이다. 강은중은 해방이후에 군대 행진곡에서 응용하여 스스로 이 가락을 치기시작하였다고 한다.

〈10〉은 4분의4박 2마디가 1패턴이다. 제2마디의 북은 강은중이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다. 이와같이 강은중은 단순한 반복가락이라도 변화가락을 주어 두가지 가락을 가지고 반복하여 치는 경향이다.

〈화성두레 11〉은 자진가락 중의 하나인 엮어빠기가락이다. 본래는 소고의 엮어빠기 장면에 쳐주던 것인데, 잊지않기 위해 자진가락 중에 넣어 구성하여 자주 친다고 한다.

〈화성두레 12〉에 대하여는 앞의 줄다리기 쇠가락에서 언급하였다.

〈화성두레 13〉은 강은중이 기억하고있는 고사반이다. 다른 곳에서 역말로 이주하여 몇 해 살았던 분한테서 듣고 기억한 것이다. 그분도 농악을 좋아하였고 강은중보다는 열일 곱살 연상이니, 살았으면 88세정도 된다. 그분 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못보았다고 한다.

〈13〉은 경기농악의 일반 고사반과 공통되는 가사도 있지만, 대전웃다리농악이나 이광수 CD에 실린 고사반 가사와 동일하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⁵⁾ 마지막 ‘자손축원’ 부분은 남사당 계열의 ‘축원’ 과 동류의 선율이다.

6. 삼색띠

역말에서도 적색과 황색의 삼색 띠를 어깨 양쪽으로 둘렀다. 일반적으로 우홍 좌황(右紅左黃)이라 하였으니 역말에서도 오른쪽 어깨로 부터는 붉은색 띠를, 왼쪽 어깨로 부터는 노랑색 띠를 걸쳤을 것이다.

5) 이소라, [대전웃다리농악] 앞의책, 235~252쪽 참조.

서신면의 한상일은 이광수의 고사반 CD를 듣고 가사와 가락을 충실히 배우고 모두 외워 녹음해 주었으며, 구송해준 전 가사를 전부 채록하였으나, 화성가락과 특성을 찾는 본 보고서의 성질상 게재하지는 않았다.

2. 이학재의 소고 춤사위

〈화성두레 14〉

화성시 봉담읍
동화3리

이학재의 소고 사위

소고 : 이학재(1929. 남. 토민)
쇠 : 강은중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 (06-10-10-2B /
06-12-3-1A)

1. 입장

* 쇠를 갖게 연타하기 시작하면 소고잡이는 오른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려 채상을 시계방향(CW)으로 돌릴 준비를 취한다.
시계방향으로 5회(1회 = Mm120, 즉, 1초동안에 2회 돌린다)돌리고 나서, 시계반대방향(ACW)으로 2회 돌린다.

이어서 CW 1회 - ACW 1회 - CW 1회 돌린다음, 쇠의 막음박에서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제긴다 (도리깨질), 시작에서 여기까지가 약 8초 소요되었다.

* 채상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쇠는 잦은 연타를 약간 멈춘다.

* 소고는 잦은 연타채로 계속 친다. 1회 돌리는데 4회 연타하므로 1초동안에 8회정도 연타한다.

2. 더드래

♩. = 120

(쇠 제시)

(소고는 준비 자세)

(가슴께)

(배꼽아래) (소고가 뱅글 돌아감)

CW 1회 ACW 1회

- 소고의 앞을상 -



소고잡이는 오른무릎을 세우고 (고개제킴) (일어서다) 앞으며, CW 1회로 고개숙임.



(뒷걸음질 1보)

(뒷걸음질 1보)



(F)
까치걸음으로 뒷걸음질

까치걸음으로 뒷걸음질

* 이어서 쇠는 F를 2회 연주하며, 소고잡이는 까치걸음으로 앞걸음질한다.

3. 잣은 더드래

12/8

(북: 이창현) /Sim.

CW 1회 CW1회 CW 1회 ACW 1회 ACW 1회 ACW 1회

4. 자진가락

$\text{♩} = 200$

(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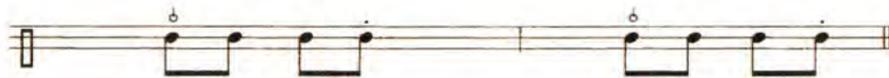
달도 밝고 별도 밝고

CW 2회 CW 2회

- 얹어빼기 -



- a. 허리 밑에서 소고의 앞면을 1회 친다. 채상은 CW 1회.
- b 가슴계에서 소고잡은 손의 손등이 보이도록 소고를 돌려 소고의 뒷면을 1회 친다. CW 1회
- d 가슴계에서 소고잡은 손의 손등이 보이지않도록 원상복귀하여 소고의 앞면을 짧게 1회 친다.
- d 가슴계에서는 소고잡은 손은 c 상태로 그대로 두고, 소고채를 친 손을 소고 뒤로 가져가 1회 친다.
c-d 에 걸쳐 시계방향(CW)으로 채상을 1회 돌린다.
- e. f.g.h 도 abcd와 같은 요령이나, 다만 채상을 시계반대방향(ACW)으로 돌린다.



달도 밝고

이학재의 소고 춤사위 해설

이학재는 1929년생이며 봉담읍 동화3리 역말 토민이다. 그는 역말농악에서 소고수의 몇 사위를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1. 더드래의 앓을 상과 잣은 더드래, 자진가락의 소고 사위

〈화성두레 14〉에서는 더드래가락의 앓을 상(2)과 잣은더드래(3) 및 자진가락에서의 소고춤사위(4)를 재현하였다.

처음에 소고수가 입장(1)하여 상쇠가 쇠를 갖게 연타하기 시작하면 소고수는 오른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려〈사진 39〉 채상을 시계방향(CW)으로 돌릴 준비를 한다. 시계방향으로 5회(2회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초) 돌리고 나서는 시계 반대방향(ACW)으로 2회를 돌렸다. 이어서 CW 1회 - ACW 1회 - CW 1회를 돌린 다음, 막음쇠에서 고개를 뒤로 제꼴다가〈사진 36〉 앞으로 숙여〈사진 37〉 도리깨질한다.

쇠는 잣은 연타채를 계속 치면서도 채상의 방향이 바뀔 때는 잠시 멈춘다.

소고수는 채상을 1회 돌리는데 소고를 4타한 관계로 1초동안에 8타한 셈이 된다.

(2)에서 상쇠가 더드래가락을 제시하면 소고는 준비자세를 취한다. 껍이들은 더드래가락을 내어주면 3분박4박중 제1,2,4박에 소고를 친다. 제1,2박에서는 배꼽 아래에서〈사진 32〉, 제4박은 가슴위〈사진 44〉에서 친다. 제2박을 칠 때는 소고가 뱅글 돌아가게 친다. 앞 반장단(제1,2박)에서는 시계방향(CW)으로 1회, 뒷 반장단에서는 ACW로 1회 채상을 돌렸다. 이러기를 두마디 더 반복한 후, 앞반장단에서 소고껍이는 오른 무릎을 세우고 앉으며, 이때 시계방향(CW)으로 채상을 돌려 고개를 숙인다. 제3박에서 고개를 제끼며 쇠는 강박을 쳐준다. 제4박에서는 일어선다. 이것이 앓을상이다. 앓을상을 2회 더 연출한 후에, 앞반장단에서 보통 걸음으로 뒷걸음질을 1보하고 뒷반장단에서도 뒷걸음질을 1보한다. 그 다음의 앞반장단에서는 까치걸음으로 뒷걸음질을 1회하고 뒷반장단에서도 까치걸음으로 뒷걸음질을 1회한다. 이러기를 2마디 더 한다. 쇠는 계속 악보의 (F)가락을 연주하고 소고껍이는 까치걸음으로 앞걸음질 한다. 이러한 동작동안에 소고수는 소고를 계속 더드래 제1,2,4박에 앞의 예처럼 친다.

잣은 더드래(3)에서는 3분박4박 1마디 중 제1,3박에 소고를 치되, 제1박은 배꼽아래에서, 제3박은 가슴위쪽에서 치며, 이러기를 매마디에 계속한다. 채상은 제1마디의 제1박에서 CW 1회, 제2박에서 CW 1회 돌리며, 제3,4박에서 크게 CW로 1회 돌린다.

제2마디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제1박에서 ACW 1회, 제2박에서 ACW 1회 돌리며, 제 3,4박에서 크게 ACW로 1회 돌린다.

자진가락(4)에서 쇠가 8분의 4박 1마디(즉, 4분의 2박 1마디)로 “달도밝고 별도밝고” 를 치는동안 소고수는 소고를 2타한다. ‘달도밝고’ 에서는 배꼽아래로 1타, ‘별도 밝고’ 에서는 가슴위로 1타한다. 제1마디에서는 채상을 CW로 2회 돌렸다가 제2마디에서는 ACW로 2회 돌린다.

앞어빠기에서는 악보의 a부분에서 소고의 앞면을 배꼽아래로 1타하며, 채상은 CW로 1회 돌린다<사진 32>. b부분에서는 가슴께에서 소고잡은 손의 손등이 보이도록 소고를 돌려 소고의 뒷면을 1타하며 채상을 CW로 1회 돌린다<사진 33>. c부분에서는 가슴께에서 소고잡은 손의 손등이 보이지 않도록 원상복귀하여 소고의 앞면을 짧게 1타한다<사진 34>. d부분에서는 가슴께에서 소고잡은 손은 c상태로 그대로 두고, 소고채를 왼 손을 소고 뒤로 가져가 1타한다<사진 35>. c-d에 걸쳐 시계방향(CW)으로 채상을 1회 돌린다. 제2마디인 e-f-g-h 도 a-b-c-d와 같은 요령이나, 다만 채상을 시계반대방향(ACW)으로 돌린다.

2. 까치걸음채와 소고수

<화성두레 9>는 소고수들이 다른 치배들의 앞으로 나와 까치걸음으로 앞걸음질 또는 뒷걸음질 할 때의 장면이다. 소고가 준비할 때는 쇠가 잦은 연타채를 쳐주다가 막음한다.

그리고나서 쇠는 4분의2박장단으로 매박에 1타씩 또박 또박 치되 짝수박에서는 막아치며 이때 징은 홀수박마다 1타 한다. 소고수도 매박에 소고를 1타한다. 첫 두마디동안은 제자리에서 치며 합하여 4타한다. 그 다음마디부터는 제1박에선 밀치기를 1회하고 제 2박에선 윗치기를 1회하며 이러기를 되풀이한다.

소고수의 발동작을 보면, <화성두레 9>앞걸음질(2)의 제1마디에서는 밀치기 1타 - 윗치기1타 동안에 까치걸음(오른발을 내딛고-왼발을 오른발 뒤쪽에 붙임-오른발 내디딤)을 1회하며 채상을 CW로 돌린다. 제2마디에서는 밀치기 1타 - 윗치기1타 동안에 까치걸음(왼발을 내딛고-오른발을 왼발 뒤쪽에 붙임-왼발 내디딤)을 1회하며 채상을 ACW로 돌린다.

소고수는 이렇게 앞걸음질하다가 4분의 2박 1마디안에서 쇠를 4타하면서 그 마지막 타점을 막아침을 신호로 그 다음마디부터는 뒷걸음질을 한다. <화성두레 9>의 (3)에서와 같이 뒷걸음질할 때엔 징은 치기를 멈추며, 쇠는 높혀서<사진 38> 막아 친다.

<화성두레 9>의 (4)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앞어빠기 동작을 한다.

3. 향남읍 최중근의 쇠가락

〈화성두레 15〉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최중근의 쇠가락

상쇠 : 최중근(1941년, 남, 백토2리 출신)
징 () 부쇠 : 박희식(1938, 남
향남읍 송곡리 토민)
북 : 박재희(1945, 남, 백토1리토민)

백토리 노인정 2차녹음 협조자 :
조인식, 송기정, 최원심, 김건배,
신홍수, 박춘희, 박찬희, 강기만 등

채보 : 이소라 (06-11-14A, 06-12-1)

*백토리 마당에서의 한판과
제1차 별도녹음 정리

1. 마당에서의 시작 곳

♩ = 120~107
쇠 accel.

자진가락 ♩ = 100 34회

♩ = 111-120 3회

달도 밝고

Detailed description: The image shows four staves of musical notation for a traditional Korean song. The first staff is in treble clef with a tempo marking of ♩ = 120~107 and the word 'accel.' above it. The second staff continues the melody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The third staff is in 2/4 time with a tempo marking of ♩ = 100 and includes a '34회' (34th time) repeat sign. The fourth staff is in 2/4 time with a tempo marking of ♩ = 111-120 and includes a '3회' (3rd time) repeat sign. The lyrics '달도 밝고' are written below the fourth staff.

2. 길가락

♩ = 107

passage

진입제시

본가락

본가락을 7회 더 반복

3. 자진 길가락 (시돌림)

자진길가락을 4회 더 반복

4. 더드래 (되돌림)

♩ = 130-133

3회

약 10초

♩ = 113

5. 자진가락

♩ = 136

약 20회

A또는 B를
20회정도 반복

6. 시회물수

♩ = 125

몇회

C를 몇회 반복

물줍 쇼

5회

달도 밝고

7. 상벽구옆(찍찌기)

상쇠 외침 : "좋다 -"

잡이들 : " 좋소 "

♩. = 120

쇠 제시

박희식<박>

(D) 1步
(오른발을 (왼발을 갖다 붙인다.)
옆으로 내민다)

(E) 1步 (F) 1步

<박>

*(D+E+F)를 몇회 반복한다.

8. 상벽구 춤

♩. = 50

(쇠를 눕혀친다)

(쇠를 원위치로 세워 친다) (쇠를 친 다음, 쇠체를 밑으로 비스듬히 뺀채 내림)

<박>

북을 약하게 친다. 북을 세게친다.

(잡이들 동작) : 안을 향해 큰원을 그리고 제자리에 정지 옆으로 1步

(쇠를 눕혀친다) (쇠를 원위치로 세워 친다)

〈복〉 (잡이들 동작) ; 제자리에 정지 옆으로 1步(ACW)

(잡이들 동작) ; (G) 제자리에 정지 (H) 옆으로 1步

♩. = 79 몇회

(잡이들 동작) ; (J) 옆으로 1步(ACW) (K) 옆으로 1步(ACW) (K)를 몇회 반복한다.

9. 상벽구 잡쇠

♩ = 120 정 : 조인식 북 : 박희식

The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has a tempo of ♩ = 120 and a 12/8 time signature. It features a melody on a single staff with a '잡쇠' (japso) section indicated by a dashed line. A second staff below shows a drum accompaniment with the notation '<북>'. The second system has a tempo of ♩ = 122 and a common time signature (C). It includes a 'passage' section with a half note and an 'accel.' section with a quarter note.

10. 상부받아치기(부쇠가 상쇠를 받아치기)

♩ = 100

The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has a tempo of ♩ = 100 and a 2/4 time signature. It starts with '상쇠 제시' (presentation of the upper gong) and ends with '14회' (14 repetitions). The second system continues with '부쇠 받아치기' (lower gong receiving), '상쇠' (upper gong), and '부쇠 받아치기' (lower gong receiving), ending with '4회' (4 repetitions). The third system has a tempo of ♩ = 105 and a tempo change to ♩ = 113. It includes '(M) 상쇠' (M upper gong), '(N) 부쇠 받아치기' (N lower gong receiving), and '몇회' (several times). The final measure is marked '물줍 쇼' (water-splashing show).

11. 북상

♩ = 114 (징은 안친다)

(벽구 동작) : 뒷걸음질
〈북〉

쇠를 막지않음을 신호로 넘김채로 간다. 벽구들은 멈춘다.

(벽구 동작) : 1보씩 앞걸음질한다. 징은 두마디에 1회씩 친다.

쇠를 막음을 신호로 뒷걸음질 한다.

쇠를 막지않음을 신호로 넘김채로 간다. 벽구들은 멈춘다.

(벽구 동작) : 1보씩 앞걸음질한다. 징은 두마디에 1회씩 친다.

♩ = 109

몇회 2회

♩ = 150

accel.

12. 양산 더드래

♩ = 113

12/8

♯

북

* 양산더드래를 몇회 더 반복한 다음 아래의 가락으로 진행한다.

약 6회

$\text{♩} = 113-115$

13. 짚지패가락

$\text{♩} = 45-55$

(조인식 징)

(박희식 징)

(박재희 북)

(상쇠가 쇠를 치지않고 춤을 두장단 추었다)

<복 예 >

15회 이상
(쇠를 놓혀서 막고 치기도 하면서
15마디이상을 더 계속 치며 춤춘다)

자진가락 22회 약 8회

passage ♩ = 100 ♩ = 110

종결가락

Musical notation for two staves. The first staff contains a sequence of notes: a half note with a flat, followed by eighth notes, and another half note with a flat. The second staff continues with similar notation, ending with a half note with a flat and a fermata.

다른 잭이들은 쉬고
북만연주 ♩. = 89-100

Musical notation for three staves. The first two staves show a rhythmic pattern of quarter notes with an "accel." marking. The third staff shows a similar pattern with a tempo marking of ♩ = 107.

최중근의 쇠가락 해설

최중근(1941.남. 호적엔 1942년생)은 향남면 백토2리에서 출생하여 46세까지 살다가 수원으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였다. 직장파업 때 두레예능자임이 알려져 경희대 농악선생이 초청하여 함께 놀았다. 또한 집안에 최영근이 행정고시에 합격되어 축하하러 향남면 길성리로 가서 노는데, 두레하는 학생들이 와서 보고는 함께 놀자고 하여 오산대학교도 인연을 맺었고, 17년전에 발안농고의 두레단도 창설하게 되었다.

백토2리는 예전에 33가구였다. 김해 김씨 3가구, 평창 이씨 4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수성 최씨였다. 수성 최씨가 마을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백토2리는 ‘한두골’이라 일컫는다. 높아야 200m 정도되는 산들이 삼태기처럼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지형이다. 두물 봉 봉우리엔 예전에 봉화불이 올랐다. 백토1리에서 썩 지나가면 백토2리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치게 되므로, 6.25사변 때도 인민군이 백토2리엔 안들어왔었다.

백토1리는 자연마을 ‘애내’ 와 ‘두물’ 이 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라 ‘뱃재’라고도 일컫는다. 각성반이 촌이되, 밀양 박씨가 그중 많다.

주변의 성곡리는 서릿골, 관리는 킷골, 화련리는 양서골, 요리는 요골이라 일컫는다. 땃골도 있다.

백토2리는 매년 음력 7월 2일에 현재까지도 **침제(井祭)**를 지낸다.⁶⁾

최중근은 고향에서 농사를 사람 구해서 지었다. 논 150평이 1마지기였다(밭안은 논 200평이 1마지기이다). 부자집은 30마지기 농사를 지었다. 마을의 이병식 씨가 향남초등학교 지을 땅을 내놓아 왜정때 마을 입구에 학교가 들어섰다.

6) 5.6년전에 KBS의 신(新)전국일주 프로그램에서 한두골 정제를 방영했다(최중근). 정제 제물로는 수소 한 마리를 미리 사다가 제주집에서 먹이며 기르다가 정제지내는 날 아침에 통째로 잡아 머리부분은 큰우물에 놓고 고기 부위는 작은 우물 넷에 갈라놓는다. 보호수인 큰 정자나무(수종은 느티나무, 수령은 220년, 소고 18m, 나무둘레 3.9m, 지정번호 경기-화성-43, 지정일자는 1982.10.15) 아래에 큰우물이 있다. 요즈음은 쇠머리와 고기를 사다가 올린다. 시루떡 위에 쌀을 한그릇 수북이 듬뿍 담고, 거기에 또 쌀을 밥그릇에 담아 거기에다 숟가락을 꽂고는 실타래를 숟가락에 감아놓는다. 술을 한잔 놓는다. 술을 받아 제주가 절을 하면, 술받는 제관이 우물의 세 군데다 따룬다. 과일은 있으나 없거나 상관이 없다. 정제를 지내려면, 일주일 전에 마을의 지관이 생기복덕을 보아 2명의 제관을 뽑는다. 마을의 최중운(살았으면 82세,남.8년 전에 작고)이 지관이었으나 지금은 최현근(44세,남.최중운이 백부임)이 생기복덕보는 일을 한다. 제관2명은 일주일 전부터 집에도 못가고, 마을의 사랑방(매우 컸으나,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자10년전에 헐렸다)에서 기거하며 근신했다. 음식 장만은 제주 집에서 한다.

정제 지내는 아침 조반 전에 동네사람들이 나와 우물 5개를 모두 물퍼내고 청소하고는 아침 11시경에 정제 지낸다. 수숫대 세 개를 세워 묶어놓고 거기다 창호지를 달아 놓으면, 정제 다 지낼 때까지 물을 퍼지 못한다. 일반 가정에선 가을에 쌀로 제비를 내지만, 제주집은 내지않는다.

이병식 네는 논이 많아 당나귀타고 다니면서 논을 둘러 보았다고 말들 한다. 샘이 많아 가뭄에도 물이 모자르지 않았었다.

백토2리분인 최종갑(살았으면 80세에 가까운 분이다. 60세경에 오산으로 이주하여 자 전저포 하다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8년전에 작고하였다)으로부터 쇠를 배웠다. 최종갑 은 쇠납이며 두레악기에 모두 능했다.

최중근은 학교를 다니다가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쇠치는 것엔 호 기심을 가지고 몰래 치기도 하자 종갑이 아저씨가 학교도 안다니고 그럴려면 걸립하는데 나 따라 다니라고 해서 따라 다니니 얻어 먹기도 잘하고 좋아서 그리하였다. 1년정도 따 라다니면서 쇠를 배웠는데, 잘못친다고 쇠로 이마를 때려 얻어맞곤 했다. 최종갑 생존시 에 최중근은 부쇠를 맡았다. 최중근에게 상쇠를 맡기기도 했다. 잽이들의 구성은 상쇠 1, 부쇠 1, 징 1, 북 2, 장고 2명이었으며 소고수는 9백구 이상을 두었다. 상쇠와 부쇠 및 백구들은 전립을 쓰고, 뒷잽이들은 모두 고깔을 썼다. 상모 꼬다리도 예전엔 대추나무로 집에서 깎았다. 상쇠에겐 '상공원님' 이라고 '님' 자를 붙여 불렀다.

당산벌림이나 가새벌림은 없고, 백구들 놀리는 여러 곳이 있었으며, 12발 상모돌리기도 있었다.

백토2리에 다른 걸립패가 들어온 건 아니고, 백토2리에서 다른 곳으로 걸립하러 나갔 다. 수원의 병점에서 이승만 대통령 생신기념 농악대회가 열렸었는데, 안성, 백토 등 7,8개 팀이 모였다. 백토팀은 고무줄 끼운 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그건 파자마라 바깥 출 입복으로 적당치않다하여 2등을 받았다. 상금이 없는 대신 걸립패증을 만들어 주어 마을 로 돌아오기까지 걸립을 해가면서 왔다. 최중근은 그당시 12세 정도였고 무동을 썼다. 무동을 3년간 탔다. 마을에서 놀 때는 무동을 안세우지만 걸립이나 **농악대회**⁷⁾ 나갈 땐 무 동을 1인만 세웠다.

백토2리 두레는 선생두레(명칭은 선생두레인지, 형님두레인지 모른다)였다. 농기에 설 립년도가 써 있었으나, 오래된 농기가 현재 없어진 상태이다. 백토2리에서는 논맬 때와 호미걸이(정제 전 또는 정제 후에 행한다. 음력6월에 이장조로 보리를 걷어 비용에 썼 다), 정제, 추석과 설날을 기해 농악을 놀았다. 줄다리기는 안했다. 농사철엔 이웃두레 들과 두레싸움을 하곤 했었다. 백토리 두레(백토 1,2리가 동일 동레이다)는 관리나 화리 현리 두레와 잘 마주쳤다. 추석날 밤에 **거북놀이**⁸⁾를 하였다. 설날 정초와 추석에 집돌이

7) 오산에서 주로 농악대들이 모여 놀았다. 지금처럼 한팀씩 나가 노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나가 놀되 다른 패의 가락을 이쪽 패가 따라가면 지는 것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이쪽이 더드래를 치다 가 저쪽의 자진가락에 휩쓸려가면 지게 된다.

8) 재담꾼이 거북이가 무슨 산에서 내려와 배가 고프니 밥좀 주시오 하면 떡이나 쌀, 술을 내왔다. 숫거북 한 마리와 새끼거북 한 마리를 수수잎으로 만들어 입고 놀았다.

두레를 할 때는 부엌과 장독대도 들렸다.

박희식(1938.남)은 향남면 송곡리 토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징, 부쇠, 북, 장고를 그 때 그 때 필요한 대로 맡았다. 송곡리는 중요무형무화재 발탈의 보유자였고 화성재인청 출신인 이동안의 고향이다.

박재희(1945.남)는 백토1리 토민이며 마을이장 직을 맡고 있다. 북 또는 부쇠를 쳤다.

강기만(1945.남)은 서울 돈암동에서 출생하여 36세경에 향남면 화리현리로 이주하였다. 현재, 향남두레 보존회장을 맡고 있다.

박춘희(1939.남.백토1리 토민)는 부쇠를, 조인식(1932.남.송곡리 토민)과 신흥수(1942.남.동호리 토민)는 징을, 최원심(1934.남.백토1리 토민)과 김건배(1938.백토2리 토민)는 벅구를 놀리며, 박찬희(1937.남.백토1리 토민)와 송기정(1942.남.관리 토민)은 북을 친다.

최중근은 쇠를 강은중처럼 잡는다. 쇠의 윗 가장자리를 타점한다.

백토리 12채의 순서는 ①길가락 ②시돌림 ③되돌림 ④자진가락 ⑤시회물수 ⑥상벅구 옆 ⑦상벅구 춤 ⑧상벅구 잡쇠 ⑨상부 받아치기 ⑩북상 ⑪양산도 더드래 ⑫짚지패이다.

마당놀이에서 ①길가락부터 ⑤시회물수까지가 제1부, ⑥상벅구 옆부터 ⑩북상까지가 제2부, ⑪양산도 더드래와 ⑫짚지패는 제3부를 구성한다.

제 1 부

시작굿(1)에서는 잣은 연타채를 3회 쳐서 막고는 자진가락으로 들어가 ‘달도밝고’ 로 맺는다.

길가락(2)에서는 4분의5박으로 넘김채와 일반적인 길가락 쇠 제시가락을 치고는 본가락을 변화가락으로만 8회 친다.

시돌림(3)에서는 4분의5박의 자진길가락을 5회 쳤다. 화성지방의 일반적인 경향처럼 징은 2타(5박중 제1,2박)한다. 시돌림이란 잽이들이 원진(圓陣)을 하는 방향을 일컬음이다.

되돌림(4)에서는 더드래가락을 치면서 원진의 방향을 되돌린다.

자진가락(5)에서는 앞서빼기를 쓰지않는다.

시회물수(6)란 물줍쇼가락을 일컫는다. 그 끝을 ‘달도밝고’ 로 마무리한다.

백토리의 마당놀이 제1부는 강은중의 길가락 3채에 해당한다.

제 2 부

상벽구옆(7)에서는 쇠를 치기전에 상쇠가 “좋다 - ” 하고 외치면 다른 잽이들이 “좋-소-” 하고 화답하고는 짹짹가락을 친다. 짹짹가락은 더드래 3마디(D+E+F)가 1패턴을 이룬다. D와 E는 서로 같은 가락이다. 즉, 3분박4박 장단인 더드래 4박중 제2,3박을 2분박으로 치는 것이 짹짹가락의 특징이다. 옷다리농악의 짹짹 장면에서는 D에서는 오른발을 한걸음 옆으로 내밀고 오른손 춤을 추고, E에서는 왼발을 한걸음 옆으로 내밀고 왼손 춤을 추며, F에서는 걸어나가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백토리에서의 녹화에서는 F에서도 한걸음만 내디뎠다. 상벽구 ‘옆’ 이란 명칭은 잽이들이 한개의 큰원을 만들고 시계반대방향(ACW)로 돌면서 한걸음 옆으로 내밀며 춤동작을 하는 특징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벽구춤(8)은 3분박4박의 느린 굿거리장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처음 2장단에서 매장단의 제 1,2박의 쇠를 눕혀서 막아치는 점과 제 3,4박에서는 쇠를 원위치로 세우고 치되 첫장단의 제 4박에서는 쇠채를 밑으로 뿌리며 치는 점이 독특하다. 처음 2장단에서 북은 제4박을 강하게 치며, 제 1,2,3박을 약하게 친다. 잽이들의 동작을 보면 제1,2,3박에선 정지해 있다가 제4박에 옆으로 한걸음 걷는다. 제 3마디에선 전반부에서(G) 정지했다가 후반부(H)에서 한걸음 옆으로 간다. 제 4마디부터는 반장단에 1보씩 시계반대방향(ACW)로 옆걸음질한다.

상벽구 잡쇠(9)도 더드래가락이지만 3분박4박 2마디중 그 첫마디의 후반부를 2분박으로 치기 때문에 전반부의 3분박에 이어 2분박이 나온다하여 ‘잡’ (雜)쇠라 이름한 것 같다.

상부 받아치기(10)에서는 상쇠가 내어주는 가락을 부쇠가 받아치기한다. 몇가락을 몇회씩 받아치기하다가 물줍쇼 가락으로 매듭지었다. 대전옷다리농악의 짹짹가락이 참고된다.⁹⁾

북상(11)의 첫행에서는 징을 치지 않고 쇠와 북,(장고)만 친다. 이때 쇠를 막고 친다. 벽구들은 일렬로 늘어선 다른잽이들 앞으로 나와있던 벽구들이 뒷걸음질 친다. 4분의 2박 제7마디에서는 그 제2박 끝을 쇠를 막지 않고 침을 신호로 넘김채로 들어가며 이후로는 쇠를 막지 않고 치고 징을 2마디에 1회씩 쳐 준다. 벽구들은 채상을 돌리면서 매 마디에 한걸음씩 앞으로 나간다. 다시 쇠를 막아치면 징은 치기를 중단하고, 벽구들은 뒷거름질 한다. 잽은 연타채로 제2부의 막을 내린다.

9) 이소라, [대전옷다리농악]1991, 대전직할시, 101쪽. 대전옷다리농악에서는 칠채가락으로 감았던 중앙진을 풀때 짹짹가락을 쓴다.

제 3 부

양산 더드래(12)와 짚지패(13)는 모두 3분박4박 장단곡이지만, 굵거리로도 일컫는 짚지패는 양산 더드래에 비해 배로 길다. 또한, 양산 더드래는 일반 더드래보다 약간 느린 느낌이 있다. (12)에서는 2분박을 섞어쓴다. 최중근의 짚지패는 쇠를 놓혀 막고 치기도 하고, 쇠를 부쇠에게 맡기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참 멋들어졌다.

자진가락을 치고 길가락을 응용한 일반형의 종결가락으로 끝맺음한다.

그리고는 다른 잭이들은 쉬고, 북만 점고가락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림을 고한다.

백토리의 쇠가락 12채에서는 자진가락의 엇어빠기를 쓰지않는다. 상벽구춤이 특징적이며 짚지패가락이 매우 멋들어졌다. 마지막을 북의 점고가락으로 막을 내림도 이채롭다.

4. 마도면 고모리 김경수의 쇠가락

〈화성두레 16〉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김경수의 쇠가락

1. 두레 논매러 갈 때

쇠 : 김경수(1935. 남. 토민)

장 : (♭)송재천(1941. 남.
우정면 토민)

채보 : 이소라 (06-10-22-2A)

♩. = 91~86

accel.
정도 맞게 언타한다.

♩. = 100~107

(A) (A)를 9회 더 반복

♩. = 130~120

(B) (B)를 1회

(C)

* (C)를 3회 더 반복

♩. = 136

(D) (D)를 9회 더 반복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on five staves. The first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33 and includes a 2-measure rest (2회) and a 6-measure rest (6회). The second staff has tempo markings of ♩ = 100 and ♩ = 109, and includes a 4-measure rest (4회). The third staff has tempo markings of ♩ = 100 and ♩ = 120, and includes a 2-measure rest (2회). The fourth staff has tempo markings of ♩ = 103 and ♩ = 120, and includes a 4-measure rest (4회). The fifth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05~109. The score includes performance instructions: "달도 밝고" (The moon is bright) appears twice, and "(E) 앞어빼기 (E)를 2회 더 반복" (Omit the E, repeat 2 more times) is written below the third staff.

2. 논맨 후 귀가길

$\text{♩} = 62$

$\text{♩} = 106-120$

물줍쇼

- 종결가락 -

The musical notation for the ending melody is presented in three staves. The first staff is in 5/4 time with a tempo marking of ♩ = 150. It features a sequence of notes with accents (>) and a fermata over the final note. The second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95 and shows a more complex rhythmic pattern with slurs and a fermata. The third staff continues the melody with dynamic markings like π and a final note with a fermata.

3. 길가락

♩ = 200
제시

본가락

4회
본가락을 4회 더 반복

♩ = 222 ♩ = 231

자진길가락 (♩) 3회

♩ = 133~125

더드래 4회

♩ = 111

달도 밝고

앞어배기 ♩ = 111

♩ = 100
달도 밝고

♩ = 150
종결

♩ = 105

4. 열두발 상모가락

- 김경수는 어릴 때 12발상모를 직접 돌렸다 -

♩. = 88

쇠 제시

본 가락

5. 무동 가락

♩. = 88~100

6. 벽구 놀릴 때

- 벽구들이 늘어서서 간격을 좁혔다 넓혔다 할 때 -

♩. = 68

* 쇠를 막고 치는 부분에선 벽구쟁이들이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채상을 돌린다.

7. 삼십육방 진법 가락

〈화성두레 17〉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김경수의 소고 사위

소고 : 김경수(1935. 남. 토민)
 쇠 : 차진남
 징 (♭) : 송재천
 채보 : 이소라 (06-10-22-1B
 06-10-22-2A)

1. 더드래

♩. = 105~107

쇠 제시

(소고는 제자리에 서서 준비태세를 취한다)

(소고)

(동작) 제자리에 서서 소고 1타 채상을 돌리지않고 고개만 오른쪽으로 향하며 소고 1타.

(소고A)

앞반장단에 채상을 시계방향(CW)으로 돌리며 소고 1타. 후 반장단에 시계반대방향(ACW)으로 채상을 돌리며 소고 1타.

(쇠B)

(소고동작) CW ACW

(쇠C)

(도리깨 상모) CW고개를 뒤로 제깎. ACW고개를 앞으로 내리침.

(쇠B) ; 소고는 채상을 뒤로 제꼈다 앞으로 내리친다.

(쇠C) ; 시계방향(CW)으로 채상을 돌렸다가, 시계반대방향(ACW)으로 되돌린다.

(쇠B) ; CW - ACW

(쇠C) ; CW 해서 고개를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내리친다.

*소고는 (소고A)식으로 쳐 나간다.

2. 자진 더드래

♩ = 120

12 (♩)
8

(소고동작) 고개를 뒤로 제깎. 고개를 앞으로 내리치며 도리깨질.

CW ACW

김경수의 쇠가락과 소고사위 해설

김경수(1935. 남. 마도면 고모리 토민)는 친형인 故김윤수(1927년출생)로부터 쇠를 배웠다. 김윤수는 장고며 북도 치셨고 해남도 부셨다. 고모리의 김윤수 상쇠 시절에 김경수는 부쇠를 담당했다.

고모리에서는 당산제를 지내지않았고, 줄다리기도 없었다. 농악은 논매기 때와 호미질이, 추석과 설명절에 동원되었다. 추석과 설명절엔 집돌이농악도 행한다. 김경수 상쇠는 북,장고,징도 치고, 어릴 때는 열두발상모도 돌렸다. 부쇠로는 이창선과 김연행이 학습하였다. 김윤수 상쇠시절에 장안면의 차진남이 고모리 쇠를 익힌 바 있어, 차진남 쇠와 고모리 쇠는 같다고 한다.

고모리엔 예전부터 무동을 세웠다. 띠로 다리무릎을 감아서 붙잡고는 남자아이와 여자 남자아이를 무동태웠다. 삼십육방 진법도 있었다. 명석말이할 때는 길가락(칠채)을 빠르게 몰아치며 감는다. 우정면과 같은 허수아비 잡색은 없었다. 고모리엔 카톨릭 신자가 많아, 고사덕담은 하지 않는다.

채보를 위해 연희된 김경수의 쇠가락은 길곳과 열두발상모가락, 무동가락, 벽구놀릴 때의 가락 및 삼십육방 진법가락이다.

길곳에 길가락(3)도 있지만, 두레논매리 가거나(1) 마을로 돌아올 때(2)는 더드래 계통을 즐겨 친다. (1)은 잦은 연타채로 시작하여 더드래로 들어가 ABCD 등 3분박적 조합을 계속 친 후, 자진가락으로 단락짓는다. 자진가락은 '달도밝고' - 엇어빼기 - '달도밝고' 으로 진행하여 '달도밝고' 를 단락 지으면서 맺는다. (2)의 더드래는 (1)에 비해 속도가 느린 고로(짚지패) 여유롭다. 자진가락으로 단락을 짓지만 (1)과는 달리, '달도밝고' 나 엇어빼기를 안쓰고 그대신 '물줍쇼' 가락(우물고사가락)으로 들어가 단락짓고는 길가락 일부가 들어있는 일반적 종결가락으로 끝맺음 한다.

(3)은 길가락 - 자진 길가락 - 더드래 - 자진가락('달도밝고' - 엇어빼기 - '달도밝고') - 일반적 종결가락으로 짜여있다. 열두발상모가락(4)은 8분의5박 2마디에 8분의9박 1마디가 결합된 복합장단이 1패턴(pattern)을 이룬다. 무동가락(5)은 열두발상모의 복합장단 세장단으로 구성되었다. 채보된 악보의 세 번째 행에서는 그 앞2행에 비해 가락이 간결하다.

벽구놀릴 때의 가락(6)은 벽구들이 두줄로 늘어서서 두줄의 간격을 좁히거나 늘일 때 쳐 준다. 더드래 가락에 속한다. 쇠를 막고 치는 지점에서는 벽구들이 진행을 멈추고 서서 채상만 돌린다음, 반대방향으로 행진할 태세를 취한다.

삼십육방 진법가락(7)은 벽구놀릴 때의 더드래가락에서 차용한 가락이다. 삼십육방이란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모방한 것으로, 가다가 갈라지고, 가다가 갈라지고 하여 여

첫 번을 갈라졌다가 다시 모인다고 한다. 고모리에서는 추석에 놀거나 호미걸이 때도 삼십육방 진법과 간격을 좁히거나 늘이는 벉구놀리기를 했었다.

김경수는 채보를 위해 소고 춤사위를 일부 선보였다. 연로한 관계로 여러 가지를 보여 주진 못했다. 이을 위한 쇠는 장안면의 차진남, 징은 우정면의 송재천이 맡았다. 쇠는 더드래와 자진더드래를 쳤다. 소고는 계속 (소고 A)가락을 쳐 나갔다. 동작에 대하여는 위의 채보 악보와 비디오 참조.

5. 매송면 원리 이창현의 쇠가락

〈화성두레 18〉

화성시 매송면
원리

점고

북 : 이창현
素 : 06-10-10-2A

♩ = 53 accel.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 = 60 accel.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 = 63

둥 두 둥 두 둥 둥 둥 둥

어느 마을 두레가 다른 마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먼저 북잡이가 나서서
“들어가고 좋으냐?” 는 뜻으로 점고를 울린다.

이에 대해 다른 마을도 점고를 울리면 “들어가고 좋다” 는 승락이 된다.

첫마디보다 둘째마디를 아주 조금 빠르게 쳤고,
둘째마디보다 셋째마디가 아주 조금 빠르게 쳐졌다.
셋째마디는 ‘둥두 둥두 둥 둥’ 으로 매듭지어도 좋다.

〈화성두레 19〉
화성시 매송면
원리

반점고

북 : 이창현
素 : 06-10-10-2A

♩ = 70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둥둥둥둥둥둥둥.....

♩ = 100

둥 둥 둥 둥 둥 둥

*어느 마을 두레가 다른 마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먼저 북잡이가 나서서 "들어가도 좋으냐?"는 뜻으로 점고를 올린다. 이에 대해 다른 마을도 반점고를 올리면 "들어오지말라"는 신호가 되므로 두레싸움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점고는 3마디로 구성되지만, 반점고는 2마디로 단락짓는다. 반점고는 점고 때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둘째마디는 더욱 빠르고 강하게 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낸다.

〈화성두레 20〉

화성시 매송면

짚지패 가락

쇠 : 이창현 (1930. 남. 평택군 포송면 출생
1972년경에 매송면 원평리 이주)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 (素06-10-10-2A)

♩ = 50~60

(A) 예시 (막음쇠)

(B)

(C-1)

(C-1)

(D)

(C-2)

(C-3)

(D) 뒤 반장단의 (제1박) (제2박) (제3박)

(C-4)

(B) 뒤 반장단의 (제1박) (제2박) (제3박)

(C-5)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제5박) (제6박)

(B)

이창현 판지패 쇠가락은 처음의 예시가락(A)를 포함하여 크게 네종류로 나누인다. (B)와 (D)는 뒤 반장단을 3박으로 쪼개었을 때, 그 제 2박을 (D)처럼 개개개로 치는가 또는(B)처럼 깨개로 치는가의 차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B)의 깨개중 '개' (♩)를(D)처럼 '개개' (♩♩)로 쪼개어 치는가의 차이이다.

(C)형을 (C-5)로 설명하면, 한창단을 6박으로 나누고 그 매 박을 다시 넷으로 쪼개되 '개개개'의 '개'는 '개'보다 두배로 길어진다. (C-5)에서는 제2,4,6박이 '개개개'이다. (C-1)의 제6박은 '개-개-'이며, (C-2)는 제4박과 제6박이 '개-개-'이다. (C-3)은(C-2)와 거의 비슷하되 제 6박 끝에 짧은 장식음이 들어가는 점만이 다르다. (C-4)는 박이 제 2,4,5 '개개개'이고 제 6박은 '개-개개'이다.

판지패 가락은 굿거리 가락으로도 불리운다. 징은 매장단의 시작음에 들어감이 보통이다. 8분의 12박은 (A)처럼 3분박4박으로도 쪼개지고, (C)처럼 2분박 6박으로도 쪼개진다. (B)와(D)는 앞 반장단을 3분박으로, 뒤 반장단을 2분박으로 쪼개었다.

<화성두레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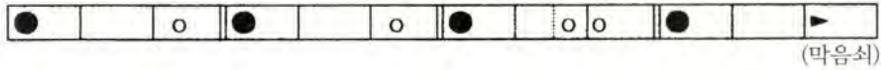
화성시 매송면

짚지패 쇠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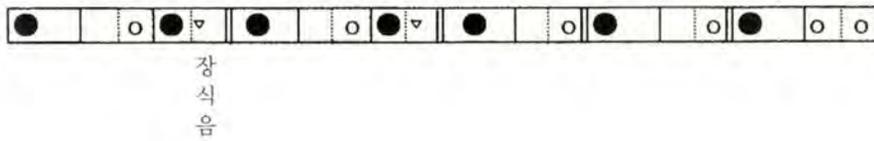
쇠 : 이창현(1930, 남)

채보 : 이소라(06-10-10-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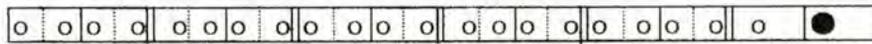
(A) 예시가락 12/8박 (3분박4박의 1박 = M, M 50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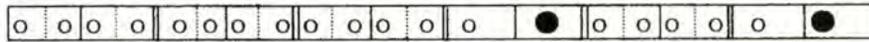
(C-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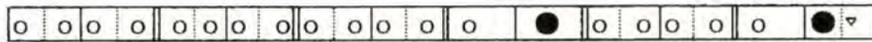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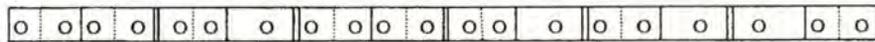
(C-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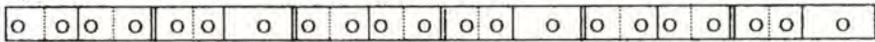
(C-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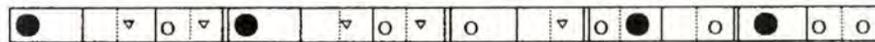
(C-4)



(C-5)



(D)



이창헌 짚지패 쇠가락 해설

2006년 10월 별도녹음시에 이창헌은 짚지패 쇠가락을 다음과 같이 엮었다.

A B (C-1) (C-1) D (C-2) (C-3) D (C-4) B (C-5) B

여기에서 A는 다른 짚이들에게 짚지패의 기본가락을 예시해 주는 가락이다. 3분박4박(12/8박) 1마디이며, 8분의12박 제일 끝박을 막음쇠로 침으로서 징을 비롯한 다른 짚이들이 일제히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징은 차진규가 맡았는데, 매 마디의 첫박에만 쳤다. 3분박4박에서 그 1박의 소요시간은 1초 또는 1초 남짓된다.

B와 D를 정간보(井間譜)에서 보면, 8분의12박에 해당하는 12칸이 3+3+2+2+2로 조합되어 있다. B에 비해 C유형들은 2+2+2+2+2+2로 구성된다. A가 3분박적 리듬인데 대해 B는 3분박에 2분박적 리듬이 결합되었고, C는 2분박적 리듬으로 짜여 있다.

(C-1)은 8분의12박에 해당하는 12칸중 제11,12칸만 1점씩 들어가고, 그 이외는 모두 매 칸을 2분하여 한칸에 2점씩 친다. (C-2)는 8분의12박에 해당하는 12칸 중 제 7,8칸과 제11,12칸만 1점씩 들어가고, 그 이외는 모두 매 칸을 2분하여 한칸에 2점씩 친다.

(C-3)는 (C-2)와 거의 같으나 제12칸 끝에 장식음이 들어간 점이 (C-2)와 다르다.

(C-4)는 8분의12박에 해당하는 12칸 중 제 4,8,10,11칸만 1점씩 들어가고, 그 이외는 모두 매칸을 2분하여 한칸에 2점씩 친다.

(C-5)는 8분의12박에 해당하는 12칸 중 제 4,8,12칸만 1점씩 들어가고, 그 이외는 모두 매 칸을 2분하여 한 칸에 2점씩 친다.

D는 B처럼 8분의12박에 해당하는 12칸이 3+3+2+2+2로 조합되어 있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D가 B리듬과 다른 명백한 차이는 제9칸에 있다. 즉, D에선 제 9칸을 2등분하여 약박과 강박으로 2점을 치는데 비해 B에선 강박으로 1점만 친다.

6. 매송면 송라리 이필강의 쇠가락

〈화성두레 22〉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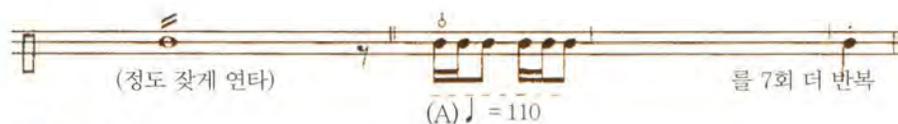
이필강 쇠가락

쇠 : 이필강 (1941. 남. 송라리 1 | 출생.
원리에서 성장하며 25세경
까지 거주. 26세경에 송라리
이주)

(♯)징 : 노영춘(1943. 남. 화성군 남양면
장전리출생초등학교까지
거주. 동두천-서울에서 지냄.

이소라 채보 (06-12-7B)

1. 초입



2. 길가락

예시 $\text{♩} = 170$

본가락

본가락

3. 자진 길가락

♩ = 200

(B)

(B-2) (B-2)를 2회 더 반복

4. 더드래

♩ = 133

(C)

(B) 를 5회 더 반복.

5. 자진가락

♩ = 120

앞어빠기 ♩ = 120

(D)를 14회 더 반복

6. 더드래

♩ = 133~140

(E-1)

(E-2)

(E-1), (E-2), (E-1), (E-2), (E-2), (E-2), (E-1), (E-2), (E-2), (E-2), (E-2)

(E-3)

(E-3)을 4회 더 계속

7. 자진가락

♩ = 110

(D-2)

(D)

(D-2)-D를
5회정도 더 반복

8. 느린 삼채

♩ = 60

(F)

(정도 연타함)

(F)를 10회 더 반복

p >

9. 물줍쇼 가락 ♩ = 110-100

물줍쇼 물줍쇼 사해 용왕 물줍쇼

10. 앞어빼기

♩ = 200

11. 맺음가락

♩ = 100

♩ = 375

♩ = 110

〈화성두레 23〉
화성시 매송면

жат은 가락 (뚫어라)

- 원리 줄다리기 -

♩ = 110 (쇄납의 실음은 단 3도 더 높음)

The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a four-part ensemble: Sae-nap (쇄납), Jing-buk (징북), Bang (방), and Jang-gu (장구).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ae-nap par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a slur over the first two measures and a fermata in the second measure. The Jing-buk part consists of a simple rhythmic accompaniment. The Bang part provides a steady accompaniment. The Jang-gu part includes lyrics and is divided into 'Chae-pyeon' (채편) and 'Bok-pyeon' (북편) sections. The lyrics are: <구음> 뚫어라 뚫어라, 흐렸 다 흐렸 다, 샘구녕만 뚫어라, 날긋있다 굿개장. A 'Slim' marking is present at the end of the first system.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musical score with three staves. The top staff shows a melodic line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second measure. The middle staff continues the accompaniment. The bottom staff shows a simple rhythmic pattern. This system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이필강의 쇠가락 해설

이필강(1941. 남. 여주 이씨)은 매송면 원리가 고향인 이학청(1916년경 출생-40여년전인 1960년대 사망. 남. 전주 이씨)의 쇠를 본 받았다.

이필강은 매송면 송라1리에서 태어났지만 원리에서 성장하였다. 조사(어린 일꾼)로서 원리의 농사꾼들을 따라다니며 쇠를 익혔다. 이필강이 50세가 넘어 역말농악과 교체한 적이 있지만 역말농악의 쇠를 배운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필강은 쇠잡는 모습이 엄지와 식지를 치뺀고 나머지 세손가락으로 쇠안을 막는 모습이 정남면 차병혁(1919-2000, 차진규의 부친)과 상통한다.

송라1리에서는 이필강이 1966년경에 원리에서 옮겨 살면서부터 정월 보름 회나무 제사에 농악을 동원한 것으로 이필강은 기억한다. 회나무 당산제에서는 더드레 가락에 인사굿을 덧붙이는 정도로 친다. 요즈음도 매년 정월 보름 오전 10시경에 회나무 당산제를 지낸다. 송라1리 속골마을의 은행나무가 지금은 제법 자란 고로 2년전부터 은행나무에서 속골 당산제를 지내며 이때 이필강이 쇠를 친다.¹⁰⁾

정리한 이필강의 쇠가락을 보면, '길가락 +자진 길가락 +더드레 +자진가락(앞어빠기 포함) +더드레 +자진가락 +느린 삼채 +물줍쇼 가락 +앞어빠기 +맺음가락' 으로 구성된다.

화성지방의 일반 쇠가락에 비하면 자진가락 중에서 '달도 밝고' 가락이 빠져있음을 볼 수 있다.

느린 삼채는 굿거리(잔지패가락)와 같은 속도의 삼채가락이나, 후자와는 달리 징을 때 박에 치고 있어 구분하여 일컬었음에 불과하다.

10) 매송면 송라리는 1리와 2리가 있으며, 1리의 자연마을로는 범실과 속골이 있다. 범실 당산제의 제물로는 돼지머리와 북어, 삼색과일을 올린다. 祭費는 상계(喪契)에서 나온 돈으로 충당하며 祭日의 며칠 전에 제관을 뽑는다.

7. 장안면 석포리 차진남의 쇠가락

〈화성두레 24〉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당산제 인사가락

쇠 : 차진남(1945. 남. 토민)
채보 : 이소라(06-10-10-2B)

* 자진더드래로 놀다가 끝마무리한 후, 절가락 친다.
갖은 연타채를 신호로 3회 절한다.

1. 자진더드래

♩. = 150



2. 자진더드래 마무리

♩ = 200



3. 인사가락

♩ = 240

(A)



(B)



(C) B가락 마무리



(D) 절가락



절(拜)

절(拜)



절(拜)

<화성두레 25>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당산제 인사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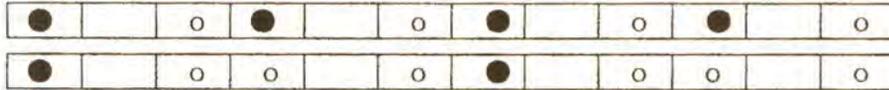
쇠 : 차진남(1945.남.토민)

채보 : 이소라(06-10-10-②A)

*자진가락으로 놀다가 끝마무리한 후, 절가락 친다.
갖은 연타채를 신호로 3회 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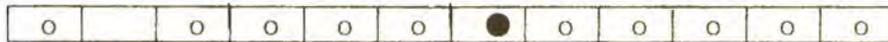
1. 자진가락

12/8박(3분의 4박, 1박 M.M 150)



2. 자진가락 마무리

6/4박(4분의 6박, 1박 M.M 200)



3. 인사가락

4.4/4박(4분의 6박, 1박 M.M 200)



(B) 4.4/4박(4분의 4박, 1박 M.M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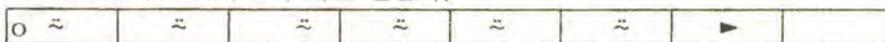


(C) B가락 마무리 4/4박 + 2/4박(1박 = M.M 240)



(D) 절가락 8/4박(4분의 8박, M.M 240)

*이를 3회 반복하면서 세번 절한다.



(갖은 연타채) (막음채)

<화성두레 26>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차진남의 쇠가락

쇠 : 차진남(1945, 남, 토민)
북 : 안영돈(1943, 남, 토민)
장(♭) : 차진규
채보 : 이소라(06-10-10-2B)

1. 더드래

♩ = 121-124

쇠 제시

♩ = 132

2. 길가락

♩ = 150



♩ = 214

자진길가락

♩ = 133

자진더드래

♩ = 123-120

앞어빼기 달도 밝고

♩ = 133-123

달도 밝고

$\text{♩} = 109 \sim 119$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of two staves each. The first system begins with a treble clef and a 12/8 time signature. The upper staff contains a melodic line with a series of eighth notes and quarter notes, marked with a 'p' (piano) dynamic. The lower staff contains a bass line with eighth notes and quarter notes, marked with a 'p' (piano) dynamic.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melodic and bass lines. The third system concludes the piece with a final cadence. The score is written in a traditional Korean styl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당산제 인사 때의 차진남 쇠가락 해설

* 당산제 인사 때의 차진남 쇠가락은 1. 자진 더드래 2. 자진더드래 마무리 3. 인사가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자진더드래는 길고 짧은 3분박(♩ + ♪)이 4개 모여 1마디를 이룬다. 즉, 3분박4박이 1마디를 이룬다. 3분박4박은 8분의12박(12/8박)으로도 표기된다.

인사가락으로 진입하기 위해 자진더드래를 매듭지을 때에는 길고 짧은 3분박(♩ + ♪) 1박 다음에 3개의 짧은 분박으로만 구성되는 1박(♪ + ♪ + ♪)을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침으로써 신호를 준다. 이어서 3개의 짧은 분박으로만 구성되는 1박을 2회 더 치나, 속도와 가락의 변화로 인해 '자진더드래 마무리 가락'은 4분의6박 2마디로 기보된다. 정간보(井間譜)에서 보면, 자진더드래 1마디는 12칸으로 '자진가락 마무리 가락'의 2마디와 같다. 그러나 속도는 자진더드래 1칸보다 '자진가락 마무리 가락'의 1칸이 배로 길어진다. 그리하여 8분의12박 1마디 대신에 4분의6박 2마디로 기보하였다.

* 인사가락은 (A) (B) (C) (D)의 4종류로 구분된다. 4종류 모두 그 1박의 속도는 M.M 240정도 된다. 1초는 M.M 60이고 그 배로 빠른 속도는 M.M 120이며, M.M 120보다 배로 빠른 속도가 M.M 240이다. 따라서 인사가락의 기본 1박은 1초의 4분의1정도의 빠르기임을 알 수 있다.

(A)는 4/4박 2마디로 이루어졌다. 제2마디는 매박에 1점씩 치는 또박 또박한 리듬이나 첫마디는 그 4박중 제1,3박을 다시 길고 짧은 3분박으로 세분함으로써 본격적인 인사가락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된다.

(B)에서는 4박 2마디중 매 마디의 제1박을 2분하여 (?)리듬으로 갈라친다.

(C)의 앞부분은 (B)의 1마디를 반복하여 치나, 이어 정간보 2칸에 1회만 침으로써 (B)류의 가락이 마무리되고 (D)로 들어감을 예고한다.

(D)와 같이 잦은 연타채를 울리면서 잽이들은 고개숙여 절을 하고 막음채에서 고개를 든다. 이렇게 세 번 절을 하고는 인사를 끝낸다.

2. 차진남의 더드래와 길가락 해설

차진남(1945출생.남)과 안영돈(1943.남)은 장안면 석포리 토민이다.

차진남은 더드래(1)에서 2분박을 섞어쓰지 않는다. (1)의 더드래는 자진가락으로 진행

하여 종결가락으로 매듭짓고 있다. 자진가락으로 들기 전에 3분박4박의 자진더드래 (악보에서 1박의 M.M이 145인 부분)를 9회 연주했으며, 반마디의 연결고리를 거쳐 2분박(악보의 8분의4박 부분)으로 진입한다. 그의 '달도밝고' 가락은 '메라' 형이다.

북은 8분의12박중 제9박을 세게 침으로써 어깨춤이 절로 나게 한다.

(2)의 길가락에선 4분의5박 3마디에 걸친 쇠의 제시에 이어 본가락이 시작된다. 녹음에선 길가락의 본가락을 8회 연주하였는 바, 제8회 째는 끝부분의 4분의5박 부분을 악보에서와 같이 세게 쳐서 자진길가락으로 들어감을 신호했다. 자진길가락을 연주한 뒤에는 자진더드래 - 자진가락(앞어빠기, 달도밝고)을 거쳐 종결가락으로 매듭짓는다.

8. 서신면 광평리 한상일의 쇠가락

〈화성두레 27〉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

한상일의 쇠가락

쇠 : 한상일(1936.남.토민)·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06-11-19)

1. - 드레 도가집 앞에서 깃대를 걸쳐놓고 치는 곳 -

♩ = 120

징도 갖게 연타
accel.

5회

달도밝고

2. - 드레 도가 집에서 집돌이할 댁까지 가는 길곳 -

♩ = 115

더드레

12/8

(A) (B)

♩ = 120

(A) (B) (A) (C) (ACABACABBBB)

♩ = 134

5회

고개속여 장단변화를 예고한다.

자진가락 ♩ = 97 ♩ = 103 5회

달도 밝고 4회 7회 앞어빼기

♩ = 113-121

3. - 걸립허락받은 후 인사굿과 우물굿 -

♩ = 106-97

달도 밝고 5회 ('달도밝고'를 5회 더 반복)

♩ = 115-133 정도 쇠를 따라 갖게 연타 拜(잡이들이 절한다) 拜

♩ = 111 - 127

터드래

3회

3회

♩ = 142

3회

자진가락

♩ = 91

♩ = 103

5회

달도밝고

♩ = 120

7회

7회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뚫어라

Three staves of musical notation. The first two staves contain two measures each, with a repeat sign at the end of each measure. The third staff contains two measures, with a repeat sign at the end of the second measure.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and accidentals.

4. 마당놀이

Musical notation for '마당놀이'. The piece is titled '길가락 예고' (Gillgallak Yegyo) and has a tempo marking of $\text{♩} = 177$. The notation is on a single staff with a 5/8 time signature. It consists of a single line of music with various rhythmic values and accidentals.

길가락

길가락 1회 반복

변형 1

변형 2

* 변형 1을 2회 연주하되, 제2회째의 끝은 다음과 같이 막음채로 친다.

자진길가락, $\text{♩} = 218$

7회

♩ = 130

더드래 8회

자진가락 ♩ = 97 10회 passage

달도 밝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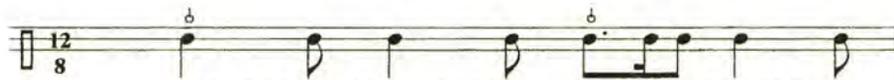
앞어빼기 8회 달도 밝고

3회

이하, 징은 잣게 연타.

〈찍찌기〉 정,쇠 : 한상일

♩. = 120



(잡이들동작) 오른발 한걸음 진행 왼발 한걸음 진행
(채상) 채상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채상을 왼쪽으로 돌린다.



(잡이들동작) 오른발을 한걸음 내딛고는 발모아 정지한다.

(채상) 준비 턱을 치켜들고 뒤로 제킨다. 턱을 내려 도리깨질



(잡이들동작) 오른발을 한걸음 내딛고는 발모아 정지한다.

(채상) 준비 턱을 치켜들고 뒤로 제킨다. 턱을 내려 도리깨질

〈짚지패〉

♩. = 67



* (D)(E)(F)(G)를 섞어 한참을 논다.

더드래

♩ = 120

♩ = 136

♩ = 167

♩ = 103

♩ = 100

10회

♩ = 113

4회

♩ = 115

8회

달도 밝고

앞어빼기

달도 밝고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seven staves. The first staff is titled '더드래' and contains a simple melodic line. The second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20 and a 12/8 time signature, followed by a section with ♩ = 136. The third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67. The fourth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03 and a 2/4 time signature, with a section of 10 repetitions (10회) marked with ♩ = 100. The fifth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13 and a section of 4 repetitions (4회). The sixth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15 and a section of 8 repetitions (8회). The lyrics '달도 밝고' are written in orange below the fourth and sixth staves. The seventh staff is a simple melodic line.

한상일의 쇠가락 해설

한상일(1936.남)은 서신면 광평리 토민이다. 광평리에서 계속 농사지으며 살아왔다. 광평리와 이웃한 장외리 사이엔 내(川)가 있는데, 광평리 두레패가 장외리 쪽에 있는 농지를 갈 때는 ‘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세로로 쓴 농기를 앞세우고 점고를 했었다. 광평리에서는 초별김은 호미로, 두별과 세별은 손으로 맨다. 모심을 때는 별도로 소리하지 않았다.

한상일은 12살부터 어른들 쫓아다니며 모춤도 주워들이고, 박을 반으로 깨뜨려 상모 대신 쓰고는 어른들 흉내를 내곤 했었다. 광평리엔 총 80가구중 양성 이씨가 50호, 청주 한씨가 30호 되었다. 광평리 토민으로 20세 년상인 이춘화(양성 이씨)의 쇠를 배웠다. 광평리 두레농악은 상쇠,부쇠,징,북,장고 및 6벽구로 구성된다.

마을엔 좌상님과 영좌님이 계셨다. 영좌님 댁에다 드레도가를 차린다. 그분들의 승인을 얻어 드레를 끌어낸다. 농기 꾸미는 일은 서낭당 공터에서 작업했다. 썰털 밑창에는 태극기를 달았다. 제작된 농기는 드레도가집 대문 앞에다 세워 놓는다.

칠월 우물제는 지내지 않았다. 정월엔 집들이 두레를 했다. 논 맬 때에 두레가 나섰고, 호미걸이와 추석에 마당놀이를 벌였다. 뒷산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풍물은 안치고 노인들이 음력 3월에 날을 잡아 새벽에 당제사를 올렸다. 당제 전날 소를 잡아 쇠머리는 제상에 올리고 고기는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먹었다.

정월 집들이 두레 놀 때에 농기를 어느집 대문 앞에 세워두면 마당쇠가 집안으로 들어가 주인께 “지신뵈으러 왔는데, 이를 받아 주시겠소?” 하고 타진한다. 주인이 승낙할 의사가 있으면 대주마님이 큰 주전자 하나하고 잔하나 얹은 술상을 차려 내온다. 깃대 걸쳐놓은 대문 쪽에 술상을 내려놓고는 짹이들을 대접한다. 술 한잔씩을 얻어마시고는, 대부분 우물이 안마당에 있기 때문에 안마당 우물로 가서 우물굿을 하고나서 마당굿을 친다.

(1)은 드레도가집 앞에 깃대를 걸쳐놓고 치는 곳이다. 첫 행의 잣은 연타는 짹이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이고 제 3행의 연타 3회는 인사장면에 알맞다. 그 사이는 자진가락으로 들어 ‘달도밝고 별도밝고’ 가락을 7회정도 친다.

(2)는 드레도가집에서 집들이 할 때까지 가면서 치는 길굿이다. 3분박4박의 더드레가락을 주로 쓴다. 한상일은 더드레에 2분박을 섞어쓰지 않는다. (C)부분은 1박의 속도가 M.M 120이다. 이는 더드레 반장단에 1초가 소요되는 빠르기이다. 첫 행은 M.M 115인 고로 (C)보다 약간 느리게 시작되었음을 표하고, 제 4행은 M.M 134이므로 (C)보다 약간 빨라짐을 표시한다. 즉, 동일 기준이라면 M.M 숫자가 클수록 속도는 더 빠르다.

한상일은 가락의 변화를 예고할 때에 고개를 숙여 표시한다. (2)에서는 더드래를 자진 가락으로 맺고 있다. 자진가락 안에서 달도밧고 가락과 얹어빠기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다.

(3)은 주인이 걸립 허가를 인사를 하고 더드래로 집안의 우물로 들어가 우물고사를 드리는 장면이다.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뚫어라” 라고 상쇠를 따라 외치면서 8회정도 우물고사가락을 치고는 더드래로 맺는다.

(4)는 마당놀이 장면이다. 한상일은 마당놀이 1부는 명석말이, 2부는 잽이들이 전진 후진하거나 서서 고사리 꺾으며 노는 장면, 3부는 원진(圓陣)을 하며 꺾찌기¹¹⁾와 짚지패가 락을 추고 열두발 상모를 돌리며 마치는 것으로 나눈다. 광평리에서는 무동은 세우지 않았다. 마을에 전문 걸립패(아마도 남사당 걸립)가 들어올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받아주질 않아 한상일은 좋은 구경꺼리를 놓쳤다고 한다.

채보된 (4)의 첫행은 상쇠가 길가락을 예고하는 전형적인 가락이다. 제 2,3행은 길가락의 본가락이다. 잽이들은 시계반대방향(ACW : 한상일은 이를 ‘맷돌질하는 방향’이라 일컬었다)으로 명석말이를 한다. 변형1과 변형2로 길가락의 변형가락을 구사한 후, 간단히 막음채로 단락짓고는 4분의5박 1마디 씩인 자진길가락으로 들어간다. 잽이들은 좀더 발걸음을 재촉하며 몰아 돈다. 자진가락으로 매듭짓고는 더드래로 풀어나간다.

마당놀이 2부에선 잽이들을 일렬로 세우고 상쇠가 그 앞에 서서는 채보 악보의 <전진> 제1행에서처럼 일채가락을 쳐서 잽이들을 6,7보 걸어나오게 한다. 자진가락으로 놀다가 잦은 연타채를 침을 신호로 뒤로 물러선다. 이러기를 3회 한다. 그리고는 더드래가락을 치면서 고사리꺾는 식(앉지는 않는다)으로 잽이의 사이 사이를 빠져나간다.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번엔 쌍줄(소고잽이 한줄과 다른 잽이들 한줄)로 들어와서 미찌기¹²⁾한다

마당놀이 3부에선 원진(圓陣)을 하며 꺾찌기 춤 등을 춘다. 꺾찌기는 더드래 3마디(ABB)로 구성되며 (B)마디는 중간에 2분박이 섞여 있다. 느린 3분박4박 리듬인 짚지패가락을 치면 소고잽이(벽구)들이 안으로 들어가 작은 원을 만들고 놀고, 흥이 있는 구경꾼들도 합세하여 어울려 춤을 춘다. 채보악보에서처럼 자진가락으로 단락을 짓고는 더드래가락에 얹어 열두발상모를 놀린다. 자진가락으로 맺고는 퇴장한다.

집돌이에서의 우물굿 연주를 제외하곤 한상일은 자진가락에다 우물고사가락을 넣지 않는 경향이다.

11) 한상일은 이를 ‘무동 삼채’라 이름하였으나, 일반적 명칭은 ‘꺾찌기’이다.

12) 예를 들면, 사물이 모두 연주하면 앞으로 나가고, 쇠와 징은 쉬고 북과 장고만 울리면 뒤로 물러나는 식으로 한다.

9. 우정면 호곡리 송재천의 쇠가락

〈화성두레 28〉

화성시 우정면
호곡3리

송재천의 쇠가락

쇠 : 송재천(1941.남.토민)
징(♭) : 차진규
채보 : 이소라(06-10-22-1A)

1. 길곳

두레 눈을 베러 나갈 때

♩ = 171

정도 쇠를 따라 갖게 연타. ☺

♩ = 102-120

쇠를 치켜들어
장단변화됨을 예고.

15회

(C)

자진길가락을 15회 더 반복한다.
 더드래로의 변환은 (C)의 동타가
 조금 느리게 (D)의 길고 짧은 리듬으로
 바뀜으로써 알아채게 된다.

♩ = 107~130

더드래

(D)

2회

쇠를 치켜들어 자진가락
 으로 들을 예고한다.

♩ = 120

5회

달도 밝고

♩ = 150

종결

2. 논매고나서 귀가길

♩. = 90~100

양산 더드래

12/8

(b)

(c)

(E)

(E)

(3)

(F)

(E)

3. 양산 더드래에서 맺는가락까지

$\text{♩} = 90$ * 2회 연주중 제2회 것을 채보.
최 제시

양산 더드래

약하게 약하게

♩. = 133

자진더드래

3회

♩. = 158 ♩. = 133

2회

쇠를 지켜든다.

♩. = 126

5회

달도 밝고

4. 우물 굿

♩ = 100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뚫어라

5. 춤가락(찍찌기)

♩ = 100

찍찌기 찍찌기 찍찌기 찍찌기

송재천의 쇠가락 해설

우정읍 호곡리(虎谷里)는 1,2,3리가 있으며, 1리는 범아지 마을, 2리는 안디미, 3리는 산 봉우리 안에서 산다고 하여 '봉골'로 불리운다. 이들 중에서 봉골두레가 형님두레였다. 봉골을 제외하곤 각성밭이 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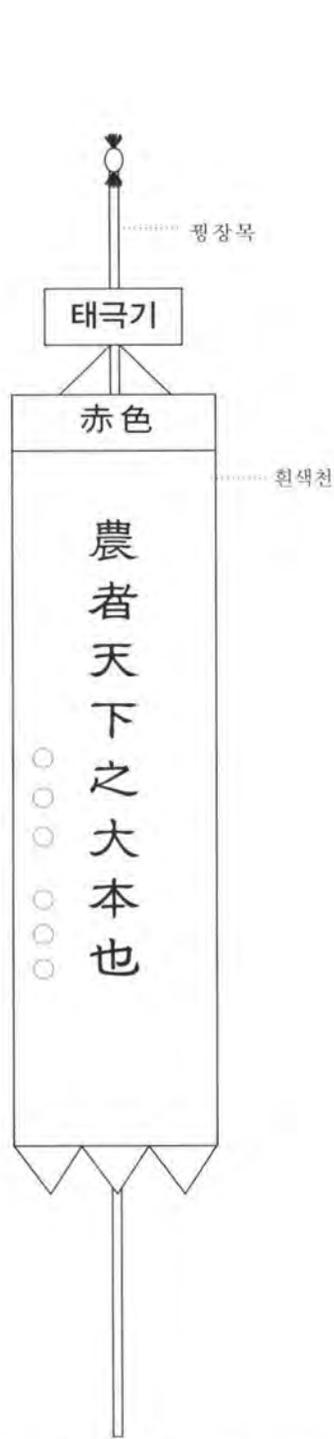
송재천(1947.남)은 봉골에 3대째 거주하는 토민이다. 봉골엔 60가구중 은진 송씨가 55가구 산다. 마을의 상쇠는 송양수(1924년경 출생)였고, 부쇠는 송재천의 작은 아버지 되시는 송현기(송양수와 동갑.봉골토민)였는데, 이들이 쇠를 직접 가르치진 않았으나, 송재천은 그들의 쇠가락을 듣고 배웠다.

봉골에서는 논매기(애벌,두벌,세벌) 때와 백중무렵의 호미걸이 때 및 추석과 설명절을 기해 두레풍장을 올렸다. 줄다리기는 안했다. 화수리나 원안리에서도 줄다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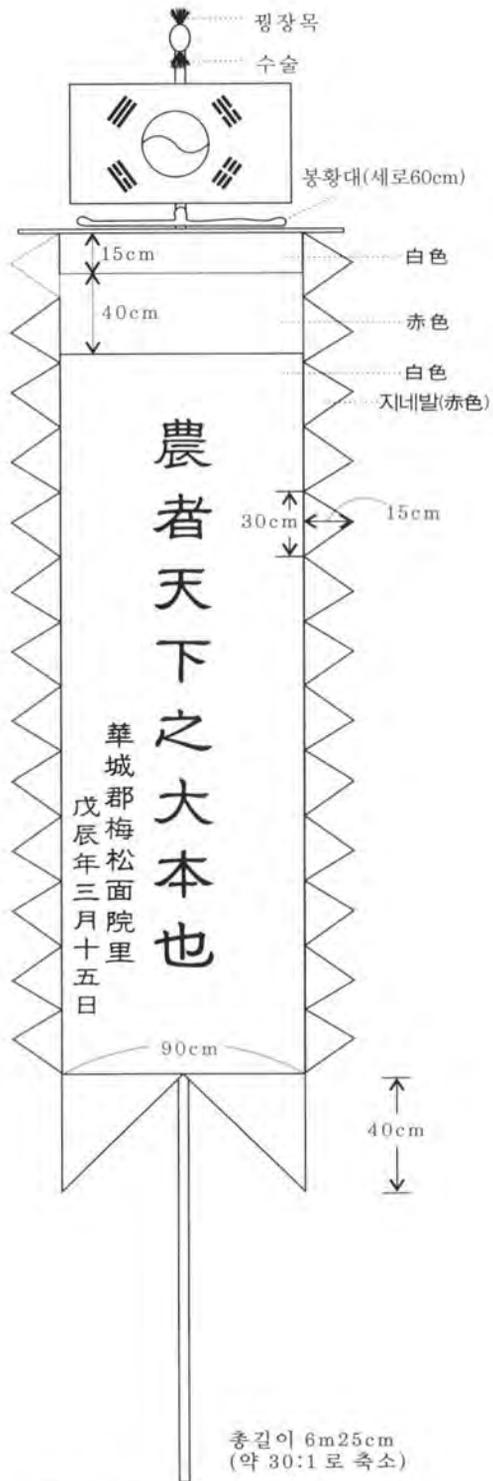
두레논매러 갈 때는 일차림 옷에 우장 삿갓을 쓰고 흰색바탕 천에 '농자천하지대본야'라고 세로로 쓴 **농기**(〈도 2〉 참조)를 앞세우고 소고쟁이 - 상쇠 - 부쇠 - 징 - 장구 - 북 - 농군들 순으로 열을 지어 논으로 나갔다. 송재천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른들이 두레논매러 가던 모습을 기억한다. 두레패들이 논에 도착하면 한바탕 놓고선 논안으로 들어갔다. 호곡1,2리 뿐만아니라 화수리(여산 송씨와 김씨의 2대성이 거주)와 원안리(각성밭이) 등, 마을마다 두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두레들끼리 노느라 논도 안매는 경우도 있었다.

송재천은 18세부터 부쇠를 쳤다. 이 때 상쇠는 동갑내기인 송현진(현재 수원 거주)이 맡았다. 송재천은 재롱부릴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 한다. 그당시 어른들은 생존해 계셨지만, 다른 쟁이들도 모두 젊은이들로 구성하였다. 요즈음은 백중 때 놀지않지만, 송재천은 18세부터 논일을 했으므로 호미걸이에도 참석하였다.

120 호곡3리엔 농기만 있고 영기는 없었다. 〈도 1〉의 원리 농기와는 달리 옆에는 지네밭을 달지 않았으며(장안면 소포리 농기엔 옆에다 지네밭을 달았다 ; 차진남 대담) 밑에다 적,청,황색의 지네밭을 3개 달았다. 원리 농기엔 밑으로 지네밭을 2개 단다. 농기는 긴 줄을 세게 달아 고정시킨다.



〈도2〉 우정면 호곡3리 농기



〈도1〉 매송면 院里農기
(1998년도에 새로 만들)

무동 세우는 것은 없었다. 추석날 아침에 차례지내고 점심먹고나서 놀았는데, 한사람이 **허수아비** 격으로 수숫대 모자와 옷을 걸치고* 놀았다.

호곡3리 두레패 중엔 쇠납 부는 사람이 없었으며, 송재천이 쇠납 부는 것을 조금 배우다가 중단하였다. 송재천의 쇠가락으로는 두레논매러 갈 때의 길긋(1)과 논매고 나서 귀가길의 양산 더드래(2), 양산 더드래에서 맺는가락까지(3), 우물긋(4) 및 마당놀이에서 짹이들이 ‘엉덩이 춤추는 가락’ (5)을 녹음하였다. 송재천은 왼손잡이이며, ‘달도밖고’ 가락은 ‘메라’ 로 친다. 가락을 변경할 때는 직전에 쇠잡은 손을 지켜들어 신호한다. 송재천은 점고가락을 세번 반 또는 두번 반을 치며, 받아주질 않으면 한번 반을 치고는 싸움을 벌린다.

길긋(1)에선 처음에 짚은 연타채로 주위를 환기시키고는 4박장단을 잠시 치다가 쇠잡은 손을 지켜들어 길가락으로 들어감을 신호한다. 길가락 제시가락은 일반형이다. 녹음에선 길가락의 본가락을 5회 쳤는데, 채보 악보상에서 볼 수 있는 제1회 짹의 (A)보다는 제2회 짹의 (B)가 표준형이다. 제5회짹의 끝무렵에 쇠잡은 손을 지켜들어 자진길가락으로 들어감을 신호하고는 4분의5박 1마디 짝인 자진길가락을 친다. 징은 1타하기도 하고 2타하기도 하지만 화성지방에선 후자를 더 선호한다. 더드래를 경유하여 자진가락으로 갔다가 길가락 응용가락으로 종결한다. 자진 길가락에서 더드래로 들 때는 (C)와 같은 동음 2타 자리에 조금 느린 속도로 길고 짧은 리듬의 (D)를 침으로써 짹이들이 더드래로 들을 눈치채게 된다. 자진가락에선 엇어빠기 장단이나 물줍쇼 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논다매고 마을로 돌아올 때는 양산 더드래(2)를 친다. 길긋(1)에서 자진 길가락 - 더드래 - 자진가락 부분의 더드래보다 약간 더 느리다. 송재천은 양산더드래(2)에서 이따금 2분박(E)가락을 섞어나 휴지부(F)를 넣어 더욱 다채롭게 가락을 구사한다.

우물긋(4)은 추석이나 설명절을 기해 집들이 농악을 할 때 우물에서 치는 가락이다. 집들이에서는 마당긋 - 우물 - 부역을 거쳐 나간다. 부역에서 상쇠가 외치는 소리는 없으며, 농악만 친다.

춤가락(5)에 대해 송재천은 마당놀이에서 짹이들이 ‘엉덩이 춤추는 가락’ 이라 하였는바, 대전 옷다리농악 등의 짹짜기 춤가락에 해당한다. 짹짜기는 3분박4박 3마디로 구성되며, 제1마디는 단순 더드래가락이지만 제 2,3마디는 각각 중간에 2분박을 섞고 있다. 동작으론 짹이들이 큰 원을 그리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진(圓陣)을 하다가 제2,3마디에서는 제자리에 정지하되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손짓으로 리듬을 타는 형태를 취한다. 제2,3마디가 서로 쌍둥이 가락인 걸 보면 좌우로 나누어 제 2마디에서는 오른손 동작을, 제3마디에서는 왼손동작을 하기에 알맞다.

111 추석날에만 허수아비 잡색이 등장한다는 것으로 보아, 거북놀이의 영향으로 보인다. 정남면 괴량리엔 거북놀이가 있었다(차진규)고 한다.

10. 동탄면 장순복의 쇠가락

〈화성두레 29〉

화성시 동탄면
신리

장순복의 쇠가락

1. 길가락 한바탕

쇠 : 장순복(1934, 남, 토민)
정(♭) : 최기홍(1923, 남,
동탄면 방교3리 토민)
채보 : 이소라(06-10-29A)

♩ = 150

accel.

정도 맞게 연타한다.

♩ = 100

(A) (A)를 1회반복

2/8 4/8 14회
 B : passage 앞어빼기 (C : 단락지음)

♩ = 103
 달도 밝고 ('달도밝고'를 11회 더 반복)

(단락지음) accel. π

passage ♩ = 168

길가락 예시 ♩ = 187

본가락

Musical score details: The score consists of seven staves. The first staff is in 2/8 time, followed by a 4/8 section. It includes a 'B : passage' section and a section labeled '앞어빼기' (14회) with a tempo of ♩ = 103. The second staff continues with '달도 밝고' and a note that the phrase is repeated 11 more times. The third staff features an 'accel.' marking and a fermata. The fourth staff is in 5/8 time with a tempo of ♩ = 168. The fifth staff is in 4/8 time with a tempo of ♩ = 187. The sixth and seventh staves are in 6/8 and 5/8 time signatures respectively, with the label '본가락' (Main Melody).

(D)

(E)

(E) (D) (E)

♩ = 176
자진 길가락

19회

♩ = 150 ~ 133
(쇠를 치켜들)

♩ = 133
더드레

14회

♩ = 113

♩ = 113
자진가락

♩ = 100

♩ = 100

11회

달도 밝고 달도 밝고

♩ = 92 ♩ = 115 ♩ = 120

앞어깨기 23회

♩ = 62 14회

2. 더드래 한바탕

♩ = 120 2회

(F)

16회

(G) (H) (F)(G)(H)의 조합을 16회 반복

♩ = 107 12회

9회

- 자진가락 집업 - ♩ = 107

♩ = 120

♩ = 109

물줍쇼 달도 밝고 17회

♩ = 100

앞어빼기 21회

달도 밝고 11회

♩ = 75

2/8 12/8

Detailed description: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traditional Korean two-reed instrument piece.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09 and lyrics '물줍쇼' and '달도 밝고' with a repeat sign and '17회'. The second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00 and lyrics '앞어빼기' with a repeat sign and '21회'. The third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100 and lyrics '달도 밝고' with a repeat sign and '11회'. The fourth staff has a tempo marking of ♩ = 75 and a time signature change from 2/8 to 12/8. The music is written in a single melodic line on a five-line staff.

3. 논맨 후 귀가길

♩. = 125

양산더드래

(1步) (1步) (1步) (1步) / Sim (K)

11회 이상

* 몇 마디 더 연주.

4. 우물굿

♩ = 100

뚫어라 뚫어라 샘구 냉만 뚫어라
물주쇼 물주쇼 서낭 님여 물주쇼

5. 행진곡 가락

♩ = 115 - 100

3회

(1步) (1步) (1步) (1步) / Sim.

장순복의 쇠가락 해설

장순복(1934.남.덕수 장씨)은 동탄면 신리에서 7대째 거주하고 있는 토민이다. 7대조께서는 평택군 서탄에서 이곳으로 오셨다가 정착하셨다. 서탄에 친척들이 많이 살았었다. 신리에는 현재 45가구가 거주하며 그 중에서 3가구가 덕수 장씨이다.

신리에선 당산제를 안지냈다. 논맬 때와 7월 백중계의 호미걸이, 추석, 설날 및 꽃놀이 때에 농악이 동원되었다. 정월 대보름엔 줄다리기를 했다. 마을 안에서 남녀로 나누어 줄 하나를 두고 당겼다. 남자가 이기면 풍년된다고 했다.

어려서는 마을 어른들 치시는 것 보고 쇠를 익혔다. 부친인 장상진(1914-1986)은 신리마을 상쇠였으며, 남사당과 활동한 바 있고 호적을 분 것으로 장순복은 생각한다. 장순복은 장상진의 장자이다. 16세부터 신리마을 상쇠를 맡았으며, 걸립을 쫓아다녔다. 걸립 다닐 때의 상쇠는 타동네 분들이었고 이름은 모르나 용인 출신의 상쇠도 있었다. 각 마을에 걸립을 하여 쌀같은 것을 모아 공동 기금에 썼었다. 동탄면 자체에서도 걸립하여 면의 기금으로 쓰곤 했다. 오산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걸립도 해 준 바 있다.

신리에서 두레할 때, 장순복이 상쇠를 하면 부친은 호적을 붙였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두레가 있었던 고로 농사철엔 두레싸움이 잦았다. 장순복은 25세경에 상쇠를 맡아 논으로 가서 논매기를 한 적이 있다.

남사당들은 무동을 세웠으나, 신리마을에서는 무동을 세우지 않았다. 안성의 남사당패들은 이승만 대통령시절에 생신축하같은 무슨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신리를 포함해 여러 마을을 거쳐 안성으로 돌아간 바 있다. 장순복은 남사당패에 들지않았다.

최기홍(1923.남.동탄면 방교3리 토민. 전주최씨)은 증조부께서 태안에서 방교3리로 이주하신 이후로 4대째 거주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학원에서 사물놀이를 배워 활동한 바 있다. 박성신 상쇠시절에 작은 아버지인 최태열(1895년생인 부친의 둘째 동생인 고로 1900년경 출생)은 부쇠를 쳤다. 박성신은 최태열과 동년배이거나 아니면 몇 살 더 많고, 부친보다는 나이가 적다. 박성신의 고향도 동탄인데, 젊었을 때 서울서 살다가 다시 입향하였다. 박성신의 자제 중 한 아들만 동탄에 살았으나, 지금은 작고하였다.

최기홍은 박성신과 최태열의 쇠를 그냥 듣고 배운 정도이고, 나이 차이가 많아 같이 활동하지는 않았다.

방교3리에서는 논매기철과 추석, 설날 및 봄에 꽃놀이갈 때 등에 농악을 동원하였다. 정월 대보름엔 줄다리기를 했다. 모자리 해농고 모심기 전(진달래꽃 필 무렵)에 꽃놀이갈 때는 굿거리 치면서 베로 만든 고깔 쓰고 왕배산(표고 50m정도되는 야산)으로 올라가 음식장만한 것 먹으면서 두레치고 논다. 최기홍은 10세 미만 때에 꽃놀이를 따라 다녔다.

신라와 방교3리에는 팔자진 같은 진법놀이가 없었다. 열두발상모는 있었다. 상모놀이가 없으면 두레놀이가 쫓지빠진 새 같았다.

장순복의 쇠가락으론 길가락 한바탕(1)과 더드래 한바탕(2), 논맨 후 귀가길의 양산 더드래(3), 우물굿 고사(4), 행진곡 가락(5) 및 꽃놀이가락을 실었다.

길가락 한바탕(1)은 잦은 연타채 - 자진가락(엮어빼기, 달도밧고) - 길가락 - 자진길가락 - 더드래 - 자진가락(달도밧고, 엮어빼기)으로 구성된다. 연이어서 마당놀이에서의 더드래 한바탕(2)이 연주되었다. (2)에서는 2분박 혼합형을 쓰지 않는다. 맷을 때는 자진가락 진입가락에 이어 물줍쇼 - 달도밧고 - 엮어빼기 - 달도밧고 - 단락짓기로 진행한다.

논맨 후 귀가길의 양산 더드래(3)에서도 2분박 혼합형이 출현하지 않는다. (1)에서의 더드래보다 약간 느리게 연주된다. (J)처럼 3분박4박의 매박에 한걸음씩 내디딘다.

집돌이 두레에서는 우물에선 하는 말이 있으나(4), 부엌에서는 말없이 쇠만 치고 나왔다. 마루에서는 고사반을 한다.

행진곡 가락(5)에서는 4분의4박의 매박에 한걸음씩 내디딘다. 꽃놀이가락에 대하여는 차진규 교습가락 편에 게재하였다. 3분박4박의 굿거리 장단이며, 1박의 소요시간은 1초이다. 양산더드래보다 더 느리다. 징은 최기홍이 맡았는데, 4박중 제1,2,3박 시작에 친다. 쇠는 8분의12박중 제1,4박과 더불어 제11박을 강하게 친다.

11. 양감면 용소리 이문우의 쇠가락

〈화성두레 30〉

화성시 양감면
용소4리

양감면 이문우 전승의 쇠가락

쇠 : 장순복(1934. 남. 토민)

징(♭) : 차진규 등

채보 : 이소라(07-1-9A)

1. 시작굿

* 농군들이 술마시고 놀때면, 그냥 신나는 가락으로 마구 쳤다.

♩ = 150

2-1 길굿 - 터드래

♩ = 120

2-2. 길가락

♩. = 113

(길가락을 3회 더 반복)

3. 자진 길가락

♩ = 222

(C)를 여러번 반복

4. 더드래

♩. = 130

Musical score for five staves.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rhythmic values and rests. The first staff has a whole note with a fermata, followed by quarter notes. The second and third staves have eighth and sixteenth note patterns. The fourth and fifth staves have quarter and eighth note patterns.

5. 자진가락

♩ = 214

3/4 2/4 10여회

달도밝고

♩ = 214

(앞어빠기) 18여회 반복 Passage

♩ = 240

달도밝고

Detailed description: This section contains three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is in 3/4 time, tempo 214, and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10여회' (10 repetitions). The second staff is in 4/8 time, tempo 214, and includes the instruction '(앞어빠기)' (front part fast), '18여회 반복' (18 repetitions), and 'Passage'. The third staff is in 4/8 time, tempo 240, and ends with a double bar line and '달도밝고' (the moon is bright).

이문우의 쇠가락 해설

이문우(1933. 남. 양감면 용소4리 토민)는 용소마을의 상쇠였으며, 지금은 양감면 노인 회원들과 어울려 놀 때에 가끔 쇠를 치는 일이 있다.

용소4리에서는 주로 두레논매러 두령걸이 때나 호미씻이 때에 농악을 쳤다. 이웃마을 두레와 두레싸움도 했었다. 단동고리 무동을 세웠다. 남자 아이와 여장 남자아이를 무동 태운다.

용소4리나 요당1리(유강수 ; 1930. 남. 토민)에서는 당제를 지내지 않았고, 줄다리기도 안했다.

이문우의 기본적 쇠가락을 1. 시작굿 2.3. 길굿 4. 더드래 5. 자진가락으로 정리하였다.

시작굿은 잣은 연타채와 불규칙한 리듬으로 이루어진 초입가락에 이어 달도밝고 가락을 4회 친 다음 일단락 했다가 다시 달도밝고 가락으로 돌아가 맺는다.

길굿가락으로는 더드래가락(2-1)을 쓰기도 하고 길가락(2-2)을 치기도 한다. 더드래가락으로 길을 걷는다면, 1초에 두걸음을 걷게 된다. 따라서 1마디 안에 징 2회가 적합하다. 길가락(2-2)은 제시없이 바로 본가락으로 들어가 몇회 반복하다가 맺을 때는 그 끝 박을 째고(♪) 길게(↓) 갈라치지 않고 1타(↓.)하는 것으로 단락하고 자진길가락(3)으로 들을 신호한다. 더드래(4)에서는 한껏 흥을 돋운다. 자진가락(5)으로의 연결채는 4분의 3박이 아닌 4분의 2박으로 쳐도 좋을 것 같다. 달도밝고 가락을 한참 치다가 엇어빠기가 락으로 돌린다. 다시 달도밝고 가락을 잠시 치고는 잣은 연타채로 맺는다.

한바탕 놀 때는 신이 나게 잣은 속도로 마구 쳤었다.

12. 송산면 천등리 이창학의 쇠가락

〈화성두레 31〉

화성시 송산면
천등2리

송산면 이창학 쇠가락

쇠 : 이창학(1942. 남. 토민)
징(♭) : 이관형(1945. 남. 토민)
채보 : 이소라(07-1-9B)

-한바탕 놀 때-

1. 시작 곳

1-1 인사

♩ = 150

1-2 자진가락

♩ = 110

2. 판굿

2-1 더드래

♩. = 125

5회 정도

4회

<연결채>

♩. = 194

2-2 자진가락

<앞어빼기> ♩ = 200

11회 정도

<달도봐고> ♩ = 214

5회

〈화성두레 32〉

화성시 송산면
천흥2리

송산면길굿

쇠 : 이창학(1942. 남. 토민)
징(○) : 이관형(1945. 남. 토민)
채보 : 이소라(07-1-9B)

1. 논매러 갈 때

1-1 길가락

♩ = 200

여러번 반복

1-2 자진 길가락

♩ = 206

6회 더 반복

1-3 연결 부분

♩ = 133

9회

1-4 자진 가락

♩ = 190

(A+B)를 5회 반복 (B) 5회 반복

(A) <앞어빼기> (B)

♩ = 240

♩ = 204

달도 밝고

이창학의 쇠가락 해설

이창학(1942.남. 송산면 천등2리 토민. 전주 이씨)은 천등2리 토민인 故 이춘산(1918년경 출생. 남)으로부터 쇠를 어깨넘어로 배웠다. 천등2리는 각성받이 촌이다. 징 째이를 한 이관형(1945.남.토민)은 현재 천등2리 이장(里長)이다.

천등2리에서는 두레논맬 때와 7월 백중무렵의 호미걸이, 설날과 추석 및 회갑연이 있을 때 등에 마을 농악이 동원되었다. 설날을 기하여 우물굿도 했다. 줄다리거나 꽃놀이는 하지 않았다.

단동고리로 남자아이와 여장 남자아이 무동을 세웠으나, 다른 잡색은 없었다. 소고수는 7인 또는 8인 되었다.

명석말이와 12발상모놀이는 있었다. 째이들이 네줄로 서서 좌우로 왔다갔다 했으나, 앞뒤로도 움직였는 지는 불분명하다. 사통백이나 양산더드래라는 말은 없었다고 한다. 째지패가락이라는 말은 있었다. 예전에 벽구 놀리는 가락이 있었으나, 이창학은 이를 배우지 못했다.

길갈 때는 주로 길가락을 쳤다. 행진곡가락은 화성두레 대회같은 공연을 나가면서 친다.

천등2리 이창학 전승의 쇠가락을 시작곳과 판곳으로 나누어 보면, 전자는 인사 내지 시작을 알리는 잣은 연타채와 자진가락으로 구성된다. 자진가락(1-2)은 (A)와 같은 2분박에 이어 엮어빼기(C)로 진행했다가 '달도밝고' 가락을 치고는 매듭짓는다. (A)와 엮어빼기(C) 사이엔 연결채인 (B)를 두고, 엮어빼기가락에서 '달도밝고' 가락으로 진입할 때는 처음에 (D)를 쳐 엮어빼기가락에서 다른 가락으로 진행됨을 예고하고 (E)에서는 '달도밝고' 가락을 기늴할 수 있도록하여 가락의 진행이 부드럽다.

판곳은 더드래(2-1)와 자진가락(2-2)으로 이루어진다. (2-1)에서는 2분박을 섞어 쓰지 않고 3분박으로만 더드래를 구사하였다. 단순 4박의 연결채 끝박을 막아 침으로써 더드래를 막음하고 엮어빼기와 '달도밝고' 로 자진가락(2-2)을 간단히 끝내었다.

자진가락 안에 우물고사가락이 안보인다. 자진가락치면서 우물고사가락을 넣지않았다고 한다.

13. 비봉면 정희창과 서신면 광평리 한상구의 쇠가락

1. 비봉면 정희창의 쇠가락

정희창은 1927년도에 시흥시 수암면 성포리(현재는 안산시 수암면 성포리)에서 출생하였으며, 30년전에 화성군 비봉면 양노3리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른다. 자손이 귀한 집안이라 어려서 무속인 이영애에게 입적되어 성장하였다. 정희창의 생모는 서울서 포목상을 크게 하셨다.

정희창이 성포리 이장을 지낼 당시 성포리는 50호가 살았으며, 매년 날을 택일하여 정월 초순부터 보름간 도당제를 지냈다. 예전엔 성포리에도 조깃배가 들어왔으며, 그의 부친이 조깃배들의 뒷돈을 대주기도 하였다 한다.

정희창은 현재 경기도 일원 경신회의 지부장직을 맡아있고 그의 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 당굿의 예능보유자인 오수복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조순웅이다.

정희창은 수원에 사는 무속인 이용우로부터 경기도당굿의 쇠를 배웠다. 도당굿을 하기 위해 도당으로 올라갈 때는 삼현장단을 친다. 그의 장고 삼현가락은 4박 1마디인 (덩-궁-덕-더러러)이다. 1박을 M.M 73의 속도(M.M 60이 1초의 빠르기이므로 1초보다 조금 적게 소요된다)로 연주하였다.

그는 길굿을 길가락 - 자진 길가락 - 더드래 - 자진가락(엎어빠기, 달도밝고) - 일반적 종결가락으로 치고 있어, 화성두레의 기본적 길굿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달도밝고' 가락이 유창하게 연주되질 않았다.

경기도당굿 가락을 위해서는 그와 부인 조순웅의 예능과 지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서신면 광평리 한상구의 쇠가락

한상구는 1943년생이며 광평리 토민이다. 30살까지 두레논을 땀었다.

광평리 두레의 소고수는 8인이 있었다. 멍석말이며 소고절굿대 놀이형태도 있었고, 열두발상모도 돌렸다.

퇴장 때의 행진곡가락은 뒤에 나온 것으로 광평리 두레에서도 사용하였다.

광평리 쇠가락에 대하여는 제10장 광평리 한상일의 쇠가락을 참고할 것

14. 신외동 안병선의 쇠가락

〈화성두레 33〉

화성시 신외동

안병선 쇠가락

쇠 : 안병선(1944. 남. 서울 만리동 출생
1950년 남양면 신외리로
피난와서 정착)

징(♩) : 양복진(1958. 여. 남양동 두레에서
10년간 연마)

북 : 이광자(1962. 여. 남양동 두레에서
10년간 연마)

채보 : 이소라(07-1-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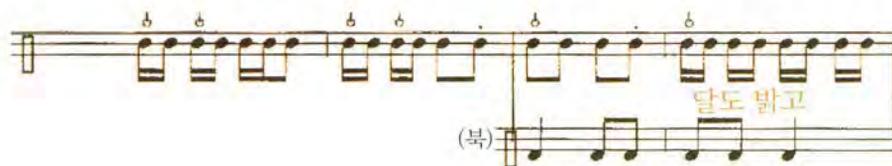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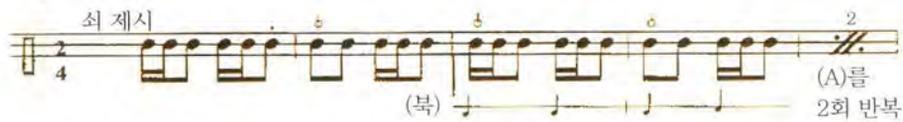
* 신외2리 토민인 신현주(80세),
신원철(80세)의 쇠가락을 전승.

1. 시작 곳

♩. = 100



♩ = 110



♩ = 85

달도 밝고 별도 밝고 (C)를 5회

(C)

〈복〉

Detailed description: This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I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eighth-note patterns and rests. Above the staff, there are circled numbers 5 and 9, and a circled 'C'. The text '달도 밝고 별도 밝고 (C)를 5회' is written below the staff. The bottom staff is a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featuring a rhythmic accompaniment of eighth notes. It starts with the symbol '〈복〉' and has a circled 'C' above it. Both staves end with a double bar line and repeat dots.

2. -터주가리굿 등에서 한바탕 놀 때-

♩ = 120

쇠 제시

〈복〉

Detailed description: This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and a 12/8 time signature. I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eighth-note patterns. Above the staff, there is a circled '12' and a circled '8'. The text '쇠 제시' is written above the staff. The bottom staff is a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featuring a rhythmic accompaniment of eighth notes. It starts with the symbol '〈복〉'. Both staves end with a double bar line and repeat dots.

복

(D) 2회

(E) 3회

♩ = 110

2/4

복

물줍소 (F)를 1회

(F)

(북) /Sim.

(북)

달도 밝고 (C) 6회 더반복

(C)

♩. = 80~75

(북)

Detailed description: The score consists of five systems of music. The first system has a vocal line with lyrics '물줍소' and a note '(F)를 1회'. Below it is a bass line with '(북)' and a 'Sim.' instruction. The second system is a vocal line with '(북)' below. The third system is a vocal line with '(북)' below. The fourth system has a vocal line with lyrics '달도 밝고' and '(C) 6회 더반복'. The fifth system has a tempo marking '♩. = 80~75' and '(북)' below.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화성두레 34〉
화성시

남양동 길굿

쇠 : 안병선(1947. 남)
징(♭) : 양복진(1958. 여)
북 : 이광자(1962. 여)
채보 : 이소라(07-1-5A)

1. 더드래

쇠 제시 ♩ = 120 ~ 110

(A)를
여러번 반복

2-1 길가락

♩ = 110

최 제시

〈북〉

(B)

3

(B)를 3회 더 반복

2-2 자진 길가락

♩ = 110

10/8

♩ = 110

4

(C)를 4회

〈복〉

(C)

2-3 더드래

♩ = 120 ~ 135

12/8

♩ = 120 ~ 135

5

(E)를 5회

(D)

〈복〉

(E)

〈화성두레 35〉
화성시 신외동

신외리 우물굿

쇠 : 안병선(1947.남)
징(♭) : 양복진
북 : 이광자
채보 : 이소라(07-1-5A)

— 우물 앞에서 —

쇠 제시 ♩ = 100 ~ 110

상쇠 외침 :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뚫어"

다른 잭이들 복장 : "뚫어라 뚫어라 샘구녕 뚫어"

〈화성두레 36〉
화성시 신외동

안병선 짚지패 가락

쇠 : 안병선
징(♭) : 양복진
북 : 이광자
채보 : 이소라(07-1-5A)

♩. = 60 - 65

쇠 제시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on fiv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shows the 'Soe' (쇠) part with a 12/8 time signature. The second system includes the 'Buk' (북) part, indicated by a bracketed '북' symbol. The score features various rhythmic patterns, including eighth and sixteenth notes, and rests. The notation is in a traditional Korean styl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and a common time signature of 12/8. The piec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and repeat signs.

〈화성두레 37〉
화성시 신외동

고사 덕담

창 : 안병선(1947.남.서울 만리동 출생,
1950년에 남양면 신외2리로 피난)
채보 : 이소라(06-12-3B)

* 신외1리 토민인故박장원(1917년경출생) 으로부터 전승.

♩. = 120 ~ 100

구 구 리 구 구 리 국 담 이 라 니
 범 윤 전 시 화 연 풍 돌 아 들 때
 이 씨 한 양 에 등 국 시 삼 각 산 기 봉 하 고
 봉 황 이 생 겠 구 나

봉황앞에 대결짓고, 대결앞에는 연못이요
 연못 가운데 대접같은 금붕어가, 금설금설 잘두 논다.
 그건 그렇다 하려니와 / (쇠 K)

여기 이 집터 지으실 적에, 어디서 지사님 모셨더니
 경기도에 일등 지사님 모셔다가 한양에 올라 세를 놓고 동글 벽신 내려오니

삼각산 기봉하여 이 집터를 잡었으니 주추 한번 놓아보세 / (K)

주추 한번 놓기전에 지경 한번 추켜들고 웃동네 선머심, 아랫동네 선머심들
 꾸역꾸역 모여들어, 지경들을 추켜들며

예 야라 지경이요, 지경 지경 하였더니 무슨 지경 하였더니 / (K)

집을 짓는 지경이요, 먼데 사람 듣기 좋고
 가깝데 사람 보기 좋게, 지경들을 들고 나니 에 해라 지경이요 / (K)

지경 돌을 다하구서, 주추를 한번 놔아 보세
 세모졌다 마늘 주추, 동굴동굴에 호박 주추
 경신 갑자 이마주추, 주추 돌을 들구 난데 / (K)

윗동네 선머심들, 아랫동네 선머심들 한데 모여
 지경 돌을 들쳐 놓고 주추 까장 놓았으니, 상량대를 올려 보세 / (K)

상량을 올릴 적에 어느 지관 다 모였소 윗동네들 모였구나
 아랫동네 모였구나 상량을 올리구 나서 금맥 한번 봐 보니 / (K)

네쪽자리 시루에다가, 떡을 한 시루 해다 놓고
 명주실이 천필이요, 옥양목이 만필이요

등구 저지 올려 가며 상량대 올려 놓고
 목수 대여 허는 말에 금시 공명 이를 세라 / (K)

상량을 다 올리구서, 부엌 살림을 들여다 보세 부엌 살림을 들여다 보니,
 동술이 세개요 동술시 세개로다 웅술시 세개로다
 삼삼은 구, 아홉개를 걸어놓구 근들 아니 좋을 소냐 / (K)

창랑속 열어보니 숫가락이 천단이요 젓가락이 만단이요
 살짐같은 근심에다 근들 아니 좋을 소냐 / (K)

상량대를 다 올리구서 부엌 살림까지 보았으니
 이집 가중에 들어 농사 한 번 지어보세
 웃 동네 머슴들아 아랫동네 머슴들아

꾸불꾸불 모여들어 이 집에 농사 질제
 꼬부랑 호미를 걸며 메고 슬금슬금 기어 들어가니 근들 아니나 좋을 소냐 / (K)

봉꼬부랑 호밀 걸머메구 슬금슬금 기어들어가니
반달같은 논배미에 둥글둥글 굴러나와
어화라 상사디야 상사디야 찾아갈
물론을 다 메고나서 추수를 한번 해보세 (K)

추수를 할려구 할 적에는 상머슴들 모여들어
꾸부렁 허리에 낫을 걸머메고 반달같은 논배미로.
황금같은 논배미에 슬금슬금 기여 들어가니
근들 아니가 좋을소냐

추수를 다 해놓고서 금명같이 이룰적에
순식산에 모여서 동네사람 모여놓고
추수 한번 다 했으니 건들하게 놀아보자

〈할하는 투로〉 여봐라 방자야-

예-

그러 안에 들어가 이르렀다

예-

들어갈때 빈 식기 들어 가터래두

오복이 가득차게 들어간다고 여쭙고,

그저 안양반 인심이 좋아야

바깥 양반 출입이 넓다고 여쭙라-

예-



♩ = 120

축원이 갑니다
 덕담 가오

(최)

진 수진명 이택 가충문전 축원고 사덕담
 지성 정 성으로 열 뜬 길 량

(최)

남의덕 가중 남의덕 동축
 이러쿵 저러쿵 할지라도

진수진명 이택가중을 드시려거든
 일년삼백육십오일 가는자손에 만귀요

영실을 거머잡아 근들이 좋을소냐~/(K)

안병선의 쇠가락 해설

안병선(1947.남)은 서울 만리동에서 출생하였다. 4살에 사변을 만나 화성군 남양면 신외2리로 부모를 따라 피난나왔다가 여태까지 살고 있다.

안병선 쇠의 계보는 신외2리 토민인 신현주(80세.남)와 신원철(80세.남)이다. 이들이 상쇠를 할 당시 안병선은 부쇠를 하였다. 지금은 남양동 두레에서 상쇠를 맡고 있다.

신외2리에서는 터주가리 당제를 2005년도까지 매년 가을에 지내왔다. 최근의 당주는 신오철 씨였다. 가을 추수 후에, 동네에서 5분정도 산쪽으로 걸어가는 곳에 서 있는 몇백년된 느티나무 아래에다 모신 향아리에 햇벼를 넣고는 이영을 입힌다. 터주가리 당제 때에는 마을의 두레단이 동원되며, 동네 우물굿도 하고 집돌이 두레도 벌린다. 그밖에 논매러갈 때와 호미질이 때에 두레를 논다. 추석엔 별로 두레를 놀지 않았다. 줄다리기를 하는 건 보지 못했다(안병선). 정초엔 개별적으로 터주가리에 가서 빈다.

진법 : 명석말이(칠채), 명석을 풀 때는 자진길가락(육채)

명석말기가 끝나면 소고를 놀린다. 벉구들이 놀고나면 잽이들이 원진한다. 자진가락치면 벉구들이 안으로 들어가 작은 원을 만드는 고로 곁원을 이루고 시계 반대방향(ACW)으로 돈다. - 벉구들이 큰원의 뒤로 나와 한바퀴 돈다, 고사리꿇기, 가새치기, 소고 절굿대놀이, 단동고리, 12발상모도 있었다.

잡색 : 무동(사미는 없었다/ 여장남자아이, 남자아이),

각설이(중반에 나온 것 같다-안병선) *포수,양반,각시는 없었다.

터주가리 당제에서 한바탕 놀고나면 마을우물굿 한 다음 집돌이 한다. 집돌이에선 우물굿 끝나고 나면 덕담하며, 한바퀴 놀고 나온다.

구구리 구구리 국담 : 그 집을 높여 하는 말

둥구저지 올라가며 : 상량대에 명주실을 감아서 올림을 말한다.

웅술 : 조그마한 술

창랑 : 부엌 찬장

15) [화성시사]제2권(坤), 2005, 419쪽의 사진 참조.

15. 정남면 쾌랑리 차진규의 쇠가락 교습

〈화성두레 38〉

화성시 정남면 차진규의 기본가락 교습

연주, 구음 : 차진규(1948. 남
정남면 쾌랑리 토민)
채보 : 이소라(07-1-9B)

1. 길가락(칠채)

1-1 쇠, 징()

(A)

갱그라 갱 갱그라 갱 갱그라 갱그라 갱그라 갱

갱 그라 갱 갱 갱그라 갱 그라 갱

(B)

갱그라 갱이 갱그라 갱이 갱그라 갱그라 갱그라 갱이

갱 그라 갱이 갱이 갱그라 갱 개 갱

(C)

갱그라 갱 갱그라 갱 갱그라 갱그라 갱그라 갱

갱그라 갱 갱 갱그라 갱 객

*상쇠의 쇠잡는 막음쇠의 방법에 따라 갱그라갱, 갱메라갱, 겐지가갱이 된다.

1-2. 장고, 북

장고 길가락 기초

(채편) 5/8 (궁편) 5/8 || 6/8 || 5/8

덩 더덩 덩 더덩 덩 더덩 더 덩 더덩

덩 더 덩 덩 덩 더 덩 더덩

변형 A

덩 따궁 덩 따궁 덩 따궁 따구덩 따궁

덩 따 궁 덩 덩 따 궁 딱궁

변형 B

(기)덩 기다궁 덩 기다궁 덩 기다궁 다구 덩 기다궁

덩 기다 궁 덩 덩 기다 궁 딱궁

변형C

(기)텅 기 다 궁 이 텅 기 다 궁 이 텅 기 다 궁 다 구 텅 기 다 궁 이
(텅) (텅) (텅)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텅 기 다 궁 이 궁 이 궁 기 다 궁 딱 궁
(텅) (텅) (텅) (텅)

둥 두 둥 둥 둥 두 둥 두 둥

-자진길가락으로 넘길때 <북>의 길가락-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둥 두 둥 뽕

3. 자진 더드래

12/8

갱 기갱 기객 개갱 기 갱 기갱 키객 개갱그라

<장고>

텅 다 궁다다텅 기다궁 다다 텅기다궁 다다텅기다 궁다다
(터) (터) (터) (터)

<북>

둥 두둥 두둥 뚜둥 두 둥 두둥 두둥 뚱

(채상의 방향 전환점) (넘김채에 쓴다)

*제3마디 이하의 쇠가락 예는 다음과 같다.

징 쇠

갱그라 갱그라 갱그라 갱그라

4. 자진가락(휘모리)

*그라갱의 연주법: '그라'에서는 뒷손을 살짝막고, 갱에서는연다.
'그라'는 약에서도 더 약(弱)이다

2/4

그라갱 그라갱 그라갱 그라갱 그라갱 그라갱 그라그라 그라갱
(뚱어라 뚱어라 샘구녕만 뚱어라)

<장고>

(기)텅 (기)텅 궁다궁 궁따궁 궁다궁 궁따궁

<북>

둥 두 둥두 둥두 둥두 둥 두 둥두 둥두

- 앞어빠기 -

몇회반복

갱 그라 음 개갱 그라 개개 음 개갱
텅기 다다 쿵다쿵 텅 다다 쿵다쿵
(쿵 : 궁굴대로 채편을 침)
둥 두 둥 두 둥 두 둥 두

- 앞어빠기에서 넘어가는 쇠가락 형 -

그랑 그랑 개 객 그랑 개 개 객 갱 그라 개 객

- 달도밝고 -

몇회반복

달도 밝고 별도 밝고
(장고) 터따쿵다터따쿵다 따따 궁 따따궁
<복> 둥 두 둥 두

아래장단 \flat

개 갱 이 개 갱 이 갱 그라 개 갱
 (경 기 도 땅 에 는 바 탕 이 좋 다)

<북>

똥 두 둥 두 둥 똥

장고(채편)
 (궁편)

뎡 기 다 궁 다 다 뎡 기 다 궁 따
 (합 지 재 국 지 재 합 지 재 국 자)

2.

* 메라;쇠를 잡은 왼손으로 쇠의 안쪽을 60~70% 막은 상태의 구음

$\frac{12}{8}$ \flat

갱 기 갱 기 갱 메라 개 갱 갱 갱 갱 메라 개 갱

\flat \flat

갱 메라 개 갱 갱 메라 개 갱 갱 메라 개 갱 이 갱 메라 개 갱

\flat \fl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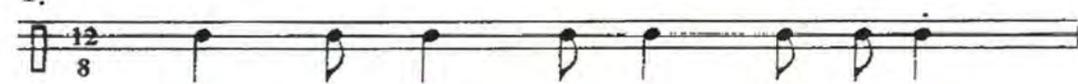
개 갱 이 개 갱 이 갱 메라 개 갱 갱 메라 갱 메라 갱 메라 개 갱

〈화성두레 40〉
화성시 정남면

차진규의 굿거리 교습(쇠가락)

쇠 : 차진규(1948. 남. 정남면
괘랑리 토민)
구음 : 차진규
素06-10-10-2B)

♩ = 44 ~ 52

1. 
 갱 개 갱 개 객 갱
 텐 브 텐 브 텐 브 국 자

2. 
 갱 그라 객 갱
 텐 브라 텐 브라 국 자

3. 
 갱 그라 갱 그라 객 갱
 텐 부라 텅 텐 부라 텅 국 자

4. 
 갱 그라 갱이 객 갱
 텐 부라 텅이 텐 부라 텅이 국 자

5. 
 갱이그라갱이 객 갱
 텅이부라텅이 텅이부라텅이 국 자

* 차진규의 굿거리 교습용 쇠가락은 다섯 종류이지만
 모두 8분의12박 1마디를 3분박 4박으로 쪼갠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창현 판지패 쇠가락에서의 2분박 리듬을 즐겨 쓰는 것과 대조된다.

<화성두레 41>
화성시 정남면

차진규의 굿거리 교습(장고가락)

장고 : 차진규(1948. 남. 정남면
괘랑리 토민)
素06-11-14(차진규 구음 참조)

1. (채편) 12/8 (궁편)

(기)뎡 다(기)뎡 다(기)뎡 다 궁 따

2.

(기)뎡 기딱(기)뎡 기딱(기)뎡 기딱 궁 따

3.

(기)뎡 다다다 뎡 다다다 뎡 다다다 궁 따

4.

(기)뎡 다다다다 뎡 다다다다 뎡 다다다다궁 따

5.

뎡기다다다다 뎡기다다다다뎡기다다다다궁 따

* 굿거리 교습용 쇠가락에서처럼 8분의12박 1마디를 3분박 4박 1마디로 연주했다.
궁편은 마찬가지로, 채편은 점점 잘게 쪼개어 나간다

〈화성두레 42〉
화성시 정남면

차진규의 굿거리 교습(북가락)

장고 : 차진규(1948.남. 정남면
괘랑리 토민)
구름 : 차진규
素06-11-14

12
8

2.

3.

4.

5.

6.

둥 둥 둥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제1박) (제2박) (제3박) (제4박)

* 여섯 종류의 북가락 가운데 3~6은 3분박4박 중 '둥 두둥'리듬을 어느박에 두느냐에 따른 분별이다. 3은 제 3박에, 4는 제 2,3박에, 5는 제 1,2,3박에, 6은 제 1,3박에 둔다.
1가락을 제외하곤 제 4박은 '두둥'으로 고정되는 바, 두둥-의 '둥-'을 강하게 친다.

* 2엔 '둥 두둥'리듬이 만나온다. 그 제 1,2,3박은 길고 짧은 '둥-두'로 치다가, 제 4박은 짧고 긴 '두둥-'리듬으로 단락짓는다.

* 1에선 8분의 12박을 3-3-2-4박으로 배정한다.

〈화성두레 43〉
화성시 정남면

꽃놀이 가락

1. 쇠 : 장순복(1934, 남. 동탄면 신리 토민)
 징 : (♩) : 최기홍(1923, 남. 동탄면방교3리 토민)
2. 채보 : 이소라(06-10-29A)

1.

♩ = 60

2-1 쇠, 징

2-2 장고, 북

채편 12
8 궁편

(1) 덩 따따 쿵 따따 덩 따따 쿵 따

북(1) 둥 둥 둥 둥

(2) 덩 기 따따 쿵 기 따따 덩 기 따따 쿵 따

(2) 두 두 둥 두 두 둥 둥 둥

(3) 기 덩 기 덩 덩 덩

(3) 둥 두 둥 둥 둥

(4) 더더 덩 더더 덩 덩 덩
(4) 둥 두 둥 두 옥 둥 둥

This exercise consists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contains a melody with notes and rests, and the lower staff contains a corresponding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5) 기덩 기 따 따 덩 기 따 따
(5) 둥 둥 두 둥 둥 둥

This exercise consists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contains a melody with notes and rests, and the lower staff contains a corresponding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6) 기덩 기 따 따 구궁 따 구궁 따

This exercise consists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contains a melody with notes and rests, and the lower staff contains a corresponding accompaniment.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re are four-measure brackets above and below the final part of the melody and accompaniment.

(C) 8분의 5박 2마디

갱 그라 갱 이 갱 그라 갱 이

(8분의 6박) + (8분의 5박)

갱 그라 갱 그라 갱 그라 갱 이

8분의 5박 3마디

갱 그라 갱 이 갱 이 갱 그라 갱 그라 갱 이

- 자진 길가락으로 넘길 때의 <쇠> 길가락

갱 그라 갱 갱 그라 갱

(8분의 6박) + (8분의 5박)

갱 그라 갱 그라 갱 그라 갱

8분의 5박 3마디

갱 그라 갱 갱 갱 그라 갱 객

* 상쇠의 쇠잡는 방법 등에 따라 '갱그라갱' 은 '갠지자갠이나 '갱메라갱' 이 된다.

1-2 장고, 북

장고 - ● 텅 / ◎ 더 / ● 궁 / ◎ 쿵 / ● 구 / ○ 따 / ♣ 딱 / ◊ 다 / ◊ 기 / 이
 북 - ◆ 둥 / ◇ 두 / ◆ 풍 / ▶ 뚜

길가락 기본가락

(장고) 8분의 5박 2마디

●		◎	●		●		◎	●	
텅		더	텅		텅		더	텅	
(북)	>					>			
◆		◇	◆		◆		◇	◆	
둥		두	둥		둥		두	둥	

(8분의 6박) + (8분의 5박)

●		◎	●		◎	●		◎	●	
텅		더	텅		더	텅		더	텅	
										>
◆		◇	◆		◇	◆		◇	◆	
둥		두	둥		두	둥		두	둥	

8분의 5박 3마디

●		◎	●		●		◎	●		◎	●	
텅		더	텅		텅		더	텅		더	텅	
												>
◆		◇	◆		◆		◇	◆		◇	◆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변형 A

8분의 5박 2마디

●		○	●			●		○	●	
덩		따	궁			덩		따	궁	

(8분의 6박) + (8분의 5박)

●		○	●	○	●		●		○	●	
덩		따	궁	따	구	덩		따	궁		

8분의 5박 3마디

●		○	●			●		○	●	⊕	●	
덩		따	궁			덩		덩	따	궁	딱	궁

변형 B

8분의 5박 2마디

●	.	○	●			●	.	○	●	
덩		기	다	궁		덩		기	다	궁

(8분의 6박) + (8분의 5박)

●	.	○	●	○	●		●	.	○	●	
덩		기	다	궁	다	구	덩		기	다	궁

8분의 5박 3마디

●	.	○	●			●		○	●	⊕	●		
덩		기	다	궁		덩		덩	기	다	궁	딱	궁

(1)

●	.	○	●			●		○	●	⊕	●			
덩		기	다	궁		덩		덩	기	다	덩	기	다	궁

(2)

●	.	○	●			●		○	●	⊕	●			
덩		기	다	궁		덩		덩	기	다	덩	기	다	궁

변형 C

8분의 5박 2마디

덩 기 다 궁 이 덩 기 다 궁 이

(8분의 6박) + (8분의 5박)

덩 기 다 궁 다 구 덩 기 다 궁 이

8분의 5박 3마디

(1) 덩 기 다 궁 이 덩 이 덩 기 다 궁 딱 궁

(2) 덩 기 다 궁 이 덩 이 덩 기 다 덩 기 다 궁

변형 D

8분의 5박 2마디

(기) 덩 기 따 궁 덩 기 따 궁

(8분의 6박) + (8분의 5박)

덩 기 따 궁 다 구 덩 기 따 궁

8분의 5박 3마디

(1) 덩 기 따 궁 덩 덩 기 따 궁 딱 궁

(2) 덩 기 따 궁 덩 덩 기 따 덩 기 따 궁

변형 E

8분의 5박 2마디

덩		기	터	덩		덩		기	터	덩		

(8분의6박) + (8분의 5박)

덩		기	터	덩		기	터	덩		기	터	덩

8분의5박 3마디

(1)

덩		기	터	덩		덩		덩		기	터	덩	터

(2)

덩		기	터	덩		덩		덩		기	터	덩	기

변형 F

8분의 5박 2마디

덩		기	터	덩		이		덩		기	터	덩

(8분의6박) + (8분의 5박)

덩		기	터	덩		이	터	덩		기	터	덩	이

8분의5박 3마디

덩		기	터	덩		이		덩		기	터	덩	기

3. 자진더드래 가락

8분의 12박

(장고)

(북)

8분의 12박

(장고)

(북)

* 제 3마디 이하의 쇠가락에는 다음과 같다

몇 회 반복

4. 자진가락(휘모리)

* '그라 갱' 의 연주법 : '그라' 에서는 뒷손을 살짝 막고 '갱' 에서는 연다.
 '그라' 는 약에서도 더 약(弱)이다.

4분의 2박

◦	◦	●	◦
그	라	갱	
◦	◦	●	
그	라	갱	
◦	◦	●	
그	라	갱	
◦	◦	●	
그	라	갱	

(장고) 2회

●	○	●	○
기	덩	궁	다
●	○	●	○
기	덩	궁	다
●	○	●	○
기	덩	궁	다
●	○	●	○
기	덩	궁	다

(북) > > > >

◆	◇	◆	◇
둥	두	둥	두
◆	◇	◆	◇
둥	두	둥	두

4분의 2박

◦	(◦)	◦	(◦)
그	라	갱	
◦	◦	●	
그	라	갱	
◦	◦	●	
그	라	갱	
◦	◦	●	
그	라	갱	

(뚝 어 라 뚝 어 라 샘 구 녕 만 뚝 어 라)

(장고) 몇 회 반복

●	○	●	○
궁	따	궁	
●	○	●	○
궁	따	궁	
●	○	●	○
궁	따	궁	
●	○	●	○
궁	따	궁	

(북) 몇 회 반복

> > > >

◆	◇	◆	◇
둥	두	둥	두
◆	◇	◆	◇
둥	두	둥	두

<화성두레교습교본>

더드래 가락

1. 화성땅에는 효자가 많고

*(그라, 매라, 지가)로도 할 수 있다.

8분의 12박
신호장단

◦

●		◦	▶	◦		●		◦	◦	◦	●	
갱		기	객	개		갱		그	라	개	갱	

◦

●		◦	◦	◦	●		●		◦	◦	◦	●	
갱		그	라	개	갱		갱		그	라	개	갱	

윗 장단

◦

●		◦	●	◦	◦	●		◦	◦	◦	●	
갱		기	개	갱	이	갱		그	라	개	갱	
(화		성	땅	에	는	효		자	가	많	고)	

(복)

>

◆		◇	◆		◇	◆		◆				
똥		두	똥		두	똥		똥				

(장고)

●		◦	●	◦	◦	●	◦	◦	●	◦	
---	--	---	---	---	---	---	---	---	---	---	--

- (A) 똥 다 궁 다 다 똥 기 다 궁 다
(합 새 국 새 새 합 지 새 국 새 -)

●		◦	●	◦	◎	●	◦	◦	●	○	
---	--	---	---	---	---	---	---	---	---	---	--

- (B) 똥 다 궁 다 터 똥 기 다 궁 따

●	◦	◦	●	◦	◎	●	◦	◦	●	○	
---	---	---	---	---	---	---	---	---	---	---	--

- (C) 똥 기 다 궁 다 터 똥 기 다 궁 따

*(B, C)는 연결가락

아래장단

♩

○	●	◦	○	●	◦		●		○	○	○	●	
개	갱	이	개	갱	이		갱		그	라	개	갱	
(경기도 땅에는 바 탕이 좋다)													

(북)

◆			◇	◆		◇	◆			◆			
똥			두	똥		두	똥			똥			

(장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텅 다 다 궁 다 다 텅 다 다 궁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텅 다 궁 다 더 텅 키 다 궁 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텅 키 다 궁 다 더 텅 키 다 궁 다 다
(합 지 재 국 재 지 합 지 재 국 재 -)

*(B, C)는 연결가락

변형장단

* 매라 : 쇠를 잡은 왼손으로 쇠의 안쪽을 60~70% 막은 상태의 구음
 *(그라, 매라, 지가)로도 할 수 있다.

8분의 12박

신호

(1)	●		.	▶	○	●	○	○	○	●				
	갱				기	객	개	갱	그	라	개	갱		
(2)	●		.	○	●	○	●	○	○	○	●			
	갱				기	개	객	이	갱	그	라	개	갱	
(3)	○	●	○	○	●	○	●	○	○	○	●			
	개	갱	이	개	갱	이	갱	그	라	개	갱			
(4)	●		○	○	○	●		●	○	○	○	●		
	갱				그	라	개	갱	갱	그	라	개	갱	
(5)	●		○	○	●	○	○	●	○	○	○	●		
	갱				그	라	갱	그	라	갱	그	라	개	갱
(6)	●		○	○	▶	○		●	○	○	○	●		
	갱				그	라	객	개	갱	그	라	개	갱	
(7)	●		○	○	○	●	○	●	○	○	○	●		
	갱				그	라	개	갱	이	갱	그	라	개	갱
(8)	●		▶			●		●	○	○	○	●		
	갱				객	갱	갱	그	라	개	갱			
(9)	●					●		●	○	○	○	●		
	갱					갱	갱	그	라	개	갱			
(10)	●		○	○	○	●	○	●		●		○		
	갱				그	라	개	갱	이	갱	갱	개		
(11)	●		○	○	○	●	○	○	●		○	●		
	갱				그	라	개	갱	이	개	갱	개	갱	
(12)	●							●	○	○	○	●		
	갱							갱	그	라	개	갱		
(6)	●		○	○	○	●	○	○	●		▶			
	갱				그	라	개	갱	이	개	갱	객		

2. 자진더드레가락

8분의 12박

(장고)

(북)

(채상의 반환 전환점)

8분의 12박

(장고)

(북)

(넘김체에 쓴다)

· 제 3마디 이하의 쇠가락에는 다음과 같다

몇 회 반복

<화성두레교습교본>

굿거리 (쇠가락)

북 : 차진규(1948.남.정남면 괴랑리 토민)
구름 : 차진규 (06-10-10-2B)

1.

<

●	○	●	○	●	○	▶	○	
깡	개	깡	개	깡	개	객	개	

2.

<

●	○	○	●	○	○	●	○	○	▶	○	
깡	그	라	깡	그	라	깡	그	라	객	개	
덴	부	라	덴	부	라	덴	부	라	국	자	

3.

<

●	○	○	●	●	○	○	●	●	○	○	●	▶	○	
덴	부	라	덴	덴	부	라	덴	덴	부	라	덴	국	자	

4.

<

●	○	○	●	○	○	●	○	○	●	○	○	●	○	○	▶	○	
덴	부	라	덴	이	덴	부	라	덴	이	덴	부	라	덴	이	국	자	

5.

<

●	○	○	○	●	○	○	○	●	○	○	○	●	○	○	○	▶	○		
덴	이	부	라	덴	이	덴	이	부	라	덴	이	덴	이	부	라	덴	이	국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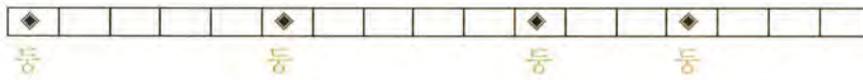
〈화성두레교습교본〉

굿거리 (북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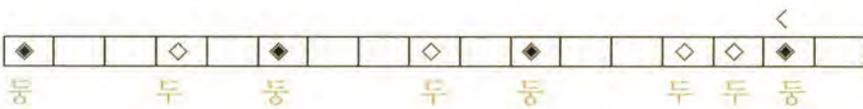
북 : 차진규(1948, 남, 정남면 쾌랑리 토민)

구음 : 차진규 (06-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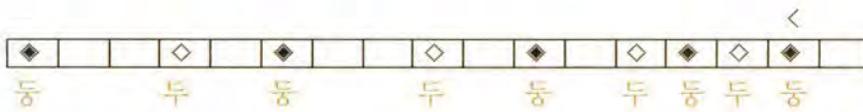
1. 8분의 12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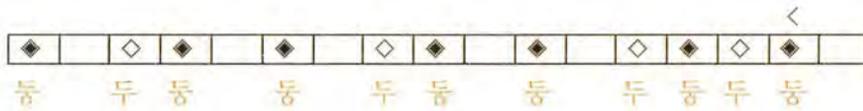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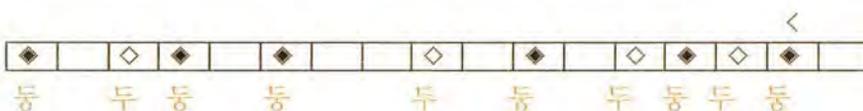
4.



5.



6.



.....
(제 1 박)

.....
(제 2 박)

.....
(제 3 박)

.....
(제 4 박)

* 여섯 종류의 북가락 가운데 3~6은 3분박 4박 중 '둥 두둥' 리듬을 어느 박에 두느냐에 따른
분별이다. 3은 제3박에, 4는 제2,3박에, 5는 제1,2,3박에, 6은 제1박에 둔다.

1가락을 제외 하곤 제4박은 '두둥' 으로 고정되는 바, 두둥_의 '둥_' 을 강하게 친다.

* 2연 '둥 두둥' 리듬이 안나온다. 그 제1,2,3박은 길고 짧은 '둥_두' 로 치다가
제4박은 짧고 긴 '두둥_' 리듬으로 단락 짓는다

* 1에선 8분의 12박을 3_3_2_4 박으로 배정한다.

<화성두레교습교본>

꽃 놀 이 가 락

1. 쇠 : 장순복(1934. 남. 동탄면 신리 토민)
 징(○) : 최기홍(1923. 남. 동탄면 방교3리 토민)
2. 차진규 교습가락
 채보 : 이소라(06-10-29A)

1-1 쇠, 징

8분의 12박

(1) ♩

●	○	○	●	○	○	●	○	○	▶		●
갱	그	라	갱	그	라	갱	그	라	객		갱

(2) ♩ ♩ 4 ㄱ

●		▶	○	●	○	○	▶		●	
갱		기	객	개	갱	기	그	랑	객	갱

(3) ♩

○	○	●	○	○	●	●	○	○	▶		●
그	라	갱	그	라	갱	갱	그	라	객		갱

(4) ♩ 4 ㄱ ♩ 4 ㄱ ♩ 4 ㄱ

●	○	○	●	○	○	●	○	○	▶		●		
갱	기	그	랑	갱	기	그	랑	갱	기	그	랑	객	갱

1-2 장고, 북

(1) 8분의 12박

●		○	○	●		○	○	●		○	○	●		○	
덩		따	따	쿵		따	따	덩		따	따	쿵		따	
◆				◆				◆		◆					
둥				둥				둥		둥					

(2) 8분의 12박

┌ 4		└		┌ 4		└		┌ 4		└					
●	.	○	○	●	.	○	○	●	.	○	○	●	.	○	
덩	기	따	따	쿵	기	따	따	덩	기	따	따	쿵	기	따	
◇	◇	◆		◇	◇	◆		◆		◆					
두	두	둥		두	두	둥		둥		둥					

(3) 8분의 12박

.	●			.	●			●				●			
기	덩			기	덩			덩				덩			
	◆			◇	◆			◆				◆			
	둥			두	둥			둥				둥			

(4) 8분의 12박

◎	◎	●		◎	◎	●		●				●			
터	터	덩		터	터	덩		덩				덩			
◆			◇	◆		◇		◆				◆			
둥			두	둥		두		둥				둥			

(5) 8분의 12박

.	●			.	○		○	●		.	○		○	
기	덩			기	따		따	덩		기	따		따	

	◆			◆		◇	◆	◆		◆				
	둥			둥		두	둥	둥		둥				

(6) 8분의 12박

.	●			.	○		○	●	●	○	●	●		○	
기	덩			기	따		따	구	궁	따	구	궁		따	

	◆			◆		◇	◆	◆		◆				
	둥			둥		두	둥	둥		둥				

인사가락

쇠, 장고, 북

●	●		●	●		●			●						
갱	갱		갱	갱		갱			갱						
			◐	◐		◐			◐						
			덩	덩		덩			덩						
			◆	◆		◆			◆						
			등	등		등			등						
●	○	●		●	○	●		●	●	○	○	▶	○	●	
갱	개	갱		갱	개	갱		갱	갱	그	라	객	개	갱	
◐		◉	◐	◐	◉	◐		◐	◐	◉	◐		◉	◐	
덩		터	덩	덩	터	덩		덩	덩	터	덩		터	덩	
◆	◇	◆		◆	◇	◆		◆	◆	◇		◆	◇	◆	
등	두	등		등	두	등		등	등	두		등	두	등	
○	○	●		○	●		○	○	●		▶				
(그라)	갱			개	갱		그	라	객					개	
		◐		◉	◐			○	◐	◐			◉		
		덩		터	덩			기	다	덩			◉		
		◆		◇	◆			◇	◇	◆			◉		
		등		두	등			두	두	등			◉		

차진규의 쇠가락 계보와 해석

1. 계보

차진규(1948,남)는 정남면 쾌랑리 토민이다. 그의 부친은 쾌랑리 상쇠였던 차병혁(1919-2000)이다. 차병혁<사진 5>은 15 ~ 20세 연상인 남궁엽(정남면 발산리 출신)한테 쇠를 배웠다. 남궁엽은 쇠, 장고 등 두레악기와 쇠납에 모두 능했다. 차진규도 남궁엽의 쇠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섯 손가락을 모두 쇠안에 넣고 쇠잡는 법<사진 9>도 남궁엽을 본받은 것이다. 가락변화의 예고는 쇠를 눌혀 침으로써 가시적인 신호로 삼는다.

2. 지가, 메라, 그라

화성가락 내지 경기가락중 가장 어려운 것이 지가, 메라, '그라' 이다. 자진가락 중의 '달도밝고' 가락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는 '그라' 가 접근하기 쉬운 편이며, '지가'가 가장 흉내내기 어렵다고 차진규는 말한다.

지가는 강은중처럼 막음쇠를 90%이상 막고 쳤을 때의 구음(口音)이다. 강은중은 쇠를 식지에 의지하여 잡는다<사진 2,3>. 차진규처럼 다섯 손가락을 모두 쇠안에 넣고 '달도밝고' 가락의 막음쇠를 쳐서는 '지가' 를 내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달도밝고' 가락은 <사진 6>에서처럼 쇠의 가장자리에서만 타점(打點)하면서 빠르게 쇠채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이다.

메라는 차진남<사진 16>이나 송재천<사진 18>처럼 막음쇠를 60~80% 막고 쳤을 때의 구음이다.

그라는 이창헌<사진 10,11>의 쇠처럼 30~40%를 막고 쳤을 때의 구음이다.

메라를 치는 쇠의 위치는 <사진 6>과 같다. '메' <사진 6>에서 바로 위로 올리되 안으로 올려 '라' <사진 6>를 칠 수도 있고, '메' 의 위치에서 손으로 막아 '라' 를 낼 수도 있다. 후자는 매우 어려운 방법인 바, 네 손가락이 모두 쇠의 안쪽에 접촉하는 관계로 쇠가 약간 기울어진다. 배울 때는 처음에 느린 속도로 단련하다가 점점 조여치면 된다.

3. 화성 쇠가락과 변형장단

화성가락의 특징은 본쇠(단쇠) 이외에 변형장단(결쇠)을 많이 구사하는 점이라고 차진규는 생각한다. 그 특징은 특히 길가락에서 잘 나타난다. 부쇠는 본쇠를 치고 상쇠는 변형장단을 잘 쳐야 풍성해 진다.



4. '화성 땅에는 효자가 많고'

이른바 삼채가락에 해당하는 더드레가락은 여러 가지 리듬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 두레에서는 그 중 어떤 가락을 특화하여 알기쉬운 의미구로된 구음을 붙여 학습에 쓰곤 한다. 차진규가 정남면의 남궁엽과 차병혁으로부터 전승하고 있는 구음은 '화-성 땅에는 효자가 많고, 경기도 땅에는 바탕이 좋다' 이며 3분박4박 2마디에 걸쳐있다. 타점으로만 본다면 '화-성 땅에는' 의 '화-성' 은 길고 짧은 3분박 1박(♩+♪)이던 것이 '경기도' 에서는 세 번 연타(♪+♪+♪)되는 차이점에 불과하지만, 가락의 정도를 알리는 구음은 전자가 "갱-개 갱그라 갱-그랑 개갱", 후자가 "개갱이, 개갱이, 갱-그랑 개갱" : 이다. '이' 라는 구음은 아주 약박이다.

5. 자진가락 '그라갱' 과 엇어빠기의 연주법

자진가락은 일반두레의 휘모리에 해당한다. 차진규의 자진가락 교습은 그라갱 - 뚫어라(우물고사의 물주소 가락) - 엇어빠기 - 넘김가락 - 달도밤고 로 진행된다.

'그라갱' 의 연주에 대해 '그라' 는 아주 약한 소리이며, 뒷손으로 살짝 막고는 가장자리 바로 끝(〈사진 6〉참조)에서 빠르게 2타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갱' 에서는 막았던 손을 열면서 '그라' 보다 약간 아래(〈사진 5〉참조)에서 1타한다. 4분의2박 1마디에 들어가는 '그라갱- 그라갱-' 을 장고에서는 '딩-딩- 쿵다쿵-' 으로 친다.

엇어빠기는 8분의4박(4분의2박에 해당) 2마디가 짝을 이루고 반복된다. 첫마디는 '갱-그라 옥개갱-' 이고 둘째마디는 '그라개개 옥개갱-' 이다. '옥' 은 쉼표에 해당한다. '그라' 만 쇠 가장자리 바로 끝(〈사진 6〉참조)에서 치며 '개' 나 '갱' 은 조금 내려와 타점된다. (쉼표를 표시하지 않고 기보하면 첫마디는 강은중의 엇어빠기가락 채보 중 해방 후 부분의 첫마디에서와 같이 '갱-개 갱-개 갱-' 으로, 둘째마디는 해방 후 부분의 둘째마디처럼 '개개개 갱-개 갱-' 으로 표시된다)

차진규 교습가락의 엇어빠기에서 달도밤고로 넘어가는 쇠가락 중 '그랑 그랑 개 객' 의 '객' 은 막음채이다. '그랑 그랑' 은 쇠의 가장자리 끝, '개 객' 은 약간 내려와 타점된다.

화보



한국음악협회 화성시지부

여 백



강 은 중 (역말두레)

〈사진 1〉



강은중의 쇠잡는 모습

〈사진 2〉

〈사진 3〉



가락의 변화를 예고하기 위해
쇠잡은 손을 치켜든 강은중

〈사진 4〉





정남면 과랑리의 상쇠
故 차병혁의 쇠잡은 모습

〈사진 5〉

〈사진 6〉

달도 밝고에서 메라의
'메' 타점(打点)과
'라' 타점(원)





〈사진 7〉

월드컵 성화봉송 릴레이에 참가한 정남면 2000년도 화성두레팀의 복색과 차병혁 상쇠(앞줄 왼쪽끝)

〈사진 8〉



부친인 故 차병혁의 쇠잡는 모습을 재현하는 차진규

〈사진 9〉



차진규의 쇠잡는 모습(남궁엽과 동일)



이 창 헌



〈사진 10〉

이창헌(쇠)과 이학재

〈사진 11〉





〈사진 12〉

이필강의 쇠잡는 모습



〈사진 13〉
이 필 강

이필강(쇠)와 노영춘 〈사진 14〉



〈사진 15〉
당산제를 지내는
매송면 송라1리
회화나무

〈사진 16〉
차진남



차진남의 쇠잡는 모습
안영돈(북), 차진규(징)

〈사진 17〉





〈사진 18〉

송재천



〈사진 19〉

송재천(쇠)과 차진규

송재천의 쇠잡는 모습

〈사진 20〉





양감면 마을회관에서 이문우(쇠)와 유강수(1930년생, 요당1리 토민)

〈사진 21〉

〈사진 22〉

정 희 창 (비봉면)





〈사진 23〉

〈사진 24〉

한 상 일 (서신면 광평리)





〈사진 25〉

이창학



〈사진 26〉

송산면 천등2리 마을회관에서
이창학(쇠), 이관형(징)



〈사진 27〉

안 병 선
(신외동)

〈사진 28〉

안 병 선 (신외동)



〈사진 29〉

남양동 두레 단원들 안병선(쇠), 양복진(장), 이광자(북) 고평분



김 경 수



〈사진 30〉



김경수(쇠)와 송재천

〈사진 31〉



〈사진 32〉 옆어빠기 A장면을 연출하는 이학재



〈사진 33〉 옆어빠기 B장면



〈사진 34〉 옆어빠기 C장면

옆어빠기 D장면



〈사진 35〉



〈사진 36〉 앉은 상에서 고개숙임



〈사진 37〉 앉은 상에서 고개젓힘

〈사진 38〉 벽구가 뒷걸음질 칠때 쇠를 놓혀 막아치는 모습



〈사진 35〉



〈사진 39〉

시계방향(CW)으로 채상돌릴 준비를 하는 이학재와 이창현(북), 차진규(징)

CW

〈사진 40〉





ACW(시계반대방향)로 채상을 돌리는 이학재와 강은중 상쇠 〈사진 41〉



〈사진 42〉

김경수의 소고동작



김경수의
소고동작 준비



〈사진 43〉

장고의 채편에
궁채를 치는 모습



〈사진 44〉 장고 채를 잡은 모습



〈사진 45〉 장고 채를 잡은 모습



〈사진 46〉

합장단 '덩'
을 치는 모습

채상을 쓸 준비



〈사진 47〉



〈사진 48〉



〈사진 49〉



〈사진 50〉

〈사진 51〉 머리수건 쓰는 모습



〈사진 52〉 머리수건 매는 모습





〈사진 53〉

머리수건



〈사진 54〉



이마 꽃 달기
〈사진 55〉



이마 꽃 달기 〈사진 56〉



〈사진 57〉



〈사진 58〉
채상쓰기



항남면 백토리의 상쇠 최중근

〈사진 59〉



〈사진 60〉

향남면 백토리의 박희식

백토리두레 치배들

(뒷줄)

조인식, 박찬희, 박재희
신길호, 고진배, 최종근

(앞줄)

강기만, 박희식, 송기정
신흥수

〈사진 60〉



시계반대방향(ACW)으로
도는 모습(백토리)

〈사진 62〉



상벽구 옆 장면



백토리 두레
(사진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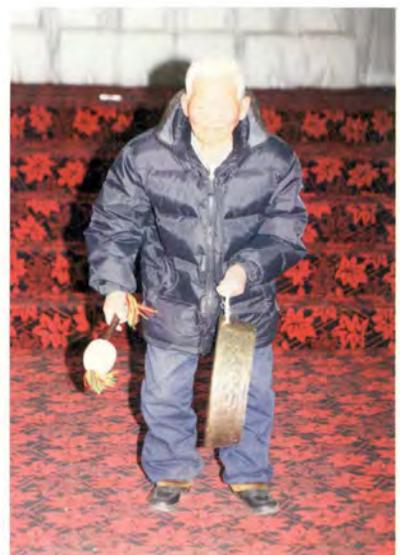
〈사진 64〉

비봉면 습지 연습실에서 대담중인 참여자들
김형섭(안경), 이학재, 조근상, 이창현, 차진규, 안영돈, 차진남(두레복착용), 이소라(女)



〈사진 65〉

안영돈 송재윤 송현택



〈사진 66〉

이 기 봉 (99세, 봉담읍)



〈사진 65〉

차진규

경기화성
민족음악연구소
민속음악연구
민속음악연구
민속음악연구

편저자 이 소 라
민족음악연구소 대표
문화재 전문위원

발행인 차진규
발행일 2008. 3. 22

편집자 조근상
송명자
류순자

표지글 明人 유용숙 / 한중서화부흥협회 작가
펴낸곳 (사)화성시국악협회 화성시지부 031) 227-2077
디자인/인쇄 천지엽 031202588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229-3

이 책은 2007년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